

창조경제의 롤 모델 :
파주출판도시 도시활성화전략

2013. 4.



● ● 연구 기관 : 출판도시입주기업협의회

● ● 연구 진

책임연구자 : 이 상

연구 자 : 이규동, 홍진기, 류승한, 조주리, 박경린, 김춘식

보조연구자 : 이경구, 손가희, 전영은, 조은정

창조경제의 롤 모델 : 파주출판도시 도시활성화전략

발행일	2013년 4월 17일
발행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서울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02)2669-0700
사업시행	출판도시입주기업협의회

제 출 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원장 귀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지원으로 시행한 <창조경제의 롤 모델
: 파주출판도시 도시활성화전략>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3년 4월

출판도시입주기업협의회
회장 송영만

요 약 3

➤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5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6

- 1. 연구 내용16
- 2. 연구 차별성17
- 3. 연구 방법17

➤ **제2장 파주출판도시의 조성배경 및 성과 분석** **19**

제1절 파주출판도시의 조성 목적과 배경 21

- 1. 파주출판도시의 조성 목적21
- 2. 파주출판도시의 조성 배경21

제2절 파주출판도시 1단계 사업의 성과 23

- 1. 건축 및 물리적 환경23
- 2. 입주 및 사업 운영23
- 3. 문화 콘텐츠 및 프로그램24
- 4. 생태 및 환경 도시25

➤ **제3장 파주출판도시의 구조적 문제점 및 도전과제** **27**

제1절 출판환경의 변화와 출판도시의 역할 변화 29



제2절 출판산업 환경의 변화 31

1. 세계 출판시장의 흐름31

2. 국내 출판시장의 흐름32

3. 출판산업 활성화 및 진흥34

제3절 설문조사 결과 분석 35

1. 조사 개요35

2. 출판도시 입주사 설문조사 분석36

3. 출판도시 방문객 설문조사 분석51

제4절 파주출판도시의 구조적 문제점 및 도전과제 56

1. 21세기형 정보지식 창출 산업 클러스터의 완성56

2. 문화예술의 일상적 향유가 가능한 문화도시의 완성63

3. 거주민의 일상생활이 가능한 주거도시의 완성64



제4장 파주출판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방안

제1절 파주출판도시의 비전과 발전방향 69

제2절 파주출판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방안 70

1. 출판문화 클러스터 전략70

1) 출판문화 클러스터의 필요충분조건 확보70

2) 도시기본시설 확충85

2. 문화도시 전략88

1) 문화 프로그램의 확대 및 질적 향상88

2) 출판도시 자산을 활용한 문화 비즈니스 모델 창출94

3. 생태도시 전략96

1) 출판도시 에코시티 프로젝트 추진96

2) 공용주차장 조성 및 친환경 내부 교통 시스템98



제5장 법률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

101

제1절 제도개편의 배경과 필요성 103

제2절 파주출판도시 발전의 제도적 제약요인 105

1. 입주업종 기준의 불합리105

2. 기업지원 기능의 취약107

제3절 제도 개선방안 109

1. 출판도시 산업시설구역내 입주허용 업종의 확대109

2. 필지분할 최소규모 제한의 완화122

3. 관리기관 등의 기업지원 기능 강화125

4. 복합용도구역의 허용129

5. 파주출판도시특별법 제정1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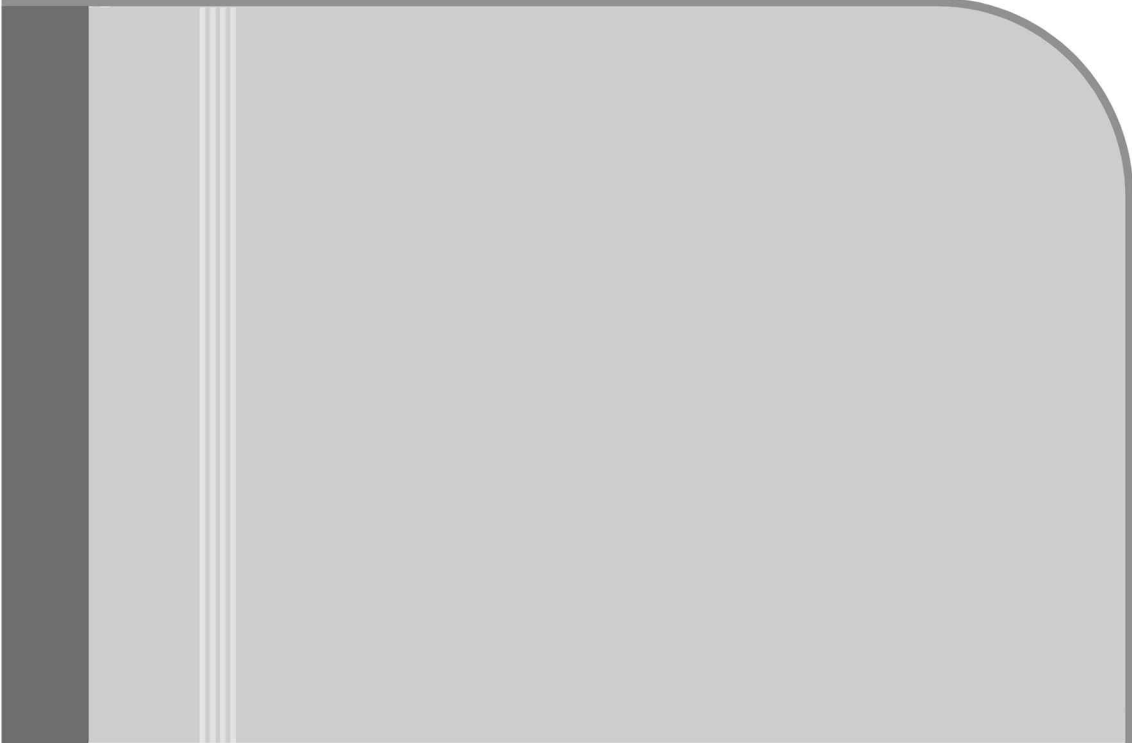
참고 문헌 134

부록 : 설문조사 자료 137

〈표 3-1〉 출판도시 설문조사 현황	36
〈표 3-2〉 출판도시 기본현황	36
〈표 3-3〉 출판도시의 최대장점	37
〈표 3-4〉 출판도시 1단계 조성목표 달성 정도	38
〈표 3-5〉 전후방 연관산업 관련 출판도시내 거래업체 비중	38
〈표 3-6〉 출판도시 입주업체 경영 애로사항	39
〈표 3-7〉 출판도시 입주사 경영 현황	40
〈표 3-8〉 출판도시 입주사 경영 약화의 원인	40
〈표 3-9〉 1단계 입주사 매출액 추이	41
〈표 3-10〉 건축자금 대출 현황	42
〈표 3-11〉 산업단지 관련 법규 개정 필요성	43
〈표 3-12〉 출판도시 관리 방안	44
〈표 3-13〉 책방 개설 용의	45
〈표 3-14〉 회사 이전 계획	46
〈표 3-15〉 책방 개설 및 책방거리 조성의 출판도시 활성화 기여도	47
〈표 3-16〉 출판도시내 책방의 문화행사 기여도	47
〈표 3-17〉 책방 경영 현황	47
〈표 3-18〉 책방 개설 이유	48
〈표 3-19〉 타사 출판물 취급 판매 의향	48
〈표 3-20〉 타사 출판물 판매 방안	48
〈표 3-21〉 출판도시내 한책방 유치	49
〈표 3-22〉 한책방 개설 및 운영(임대 포함) 의사	49
〈표 3-23〉 책방내 편의시설 허용	49
〈표 3-24〉 편의시설 개설 찬성 이유	49
〈표 3-25〉 복궤 허용시의 허용 기준	50
〈표 3-26〉 출판도시 방문객 인구 통계학적 분포	51
〈표 3-27〉 연간 방문 횟수 및 동기	52
〈표 3-28〉 동반객 유형 분포	52
〈표 3-29〉 방문객 이용 교통수단 유형	53
〈표 3-30〉 출판도시의 최대장점 및 불편사항(방문객)	53
〈표 3-31〉 책방거리 조성 및 문화행사 개최에 대한 견해	54

〈표 3-32〉 도서 구매 의사 및 타사 출판물 판매에 대한 견해	54
〈표 3-33〉 서점내 북카페 개설에 대한 견해	55
〈표 3-34〉 출판도시의 미래상	55
〈표 4-1〉 기업 입장에서 본 산업 클러스터의 장단점 비교	71
〈표 4-2〉 산업 클러스터 개발사례 분석	72
〈표 4-3〉 문화 클러스터의 조건과 주요시설	73
〈표 4-4〉 문화 클러스터 성공사례 분석	80
〈표 4-5〉 출판도시 내외부 교통수단 확충방안	85
〈표 4-6〉 책방거리 일상 프로그램 구성안	89
〈표 4-7〉 출판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영역과 유형	93
〈표 4-8〉 친환경 내부 교통 시스템 비교	99
〈표 5-1〉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내 산업시설구역 입주허용 시설 및 업종	105
〈표 5-2〉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의 산업단지 정의	107
〈표 5-3〉 출판업 등의 기업체 사업장 규모 분포	124
〈표 5-4〉 파주출판도시의 기관별 주요 업무	125
〈표 5-5〉 출판도시입주기업협의회 개요	126

〈그림 2-1〉 파주출판도시 조성 배경과 비전	22
〈그림 3-1〉 출판도시의 최대장점	37
〈그림 3-2〉 출판도시 1단계 조성 목표 달성 정도	38
〈그림 3-3〉 전후방 연관산업 관련 출판도시내 거래업체 비중	39
〈그림 3-4〉 출판도시 입주업체 경영 애로사항	39
〈그림 3-5〉 출판도시 입주사 경영 현황	36
〈그림 3-6〉 출판도시 입주사 경영 악화의 원인	41
〈그림 3-7〉 1단계 입주사 매출액 추이	41
〈그림 3-8〉 건축자금 대출 현황	42
〈그림 3-9〉 산업단지 관련 법규 개정 필요성	43
〈그림 3-10〉 산업시설용지내 확대희망 업종	43
〈그림 3-11〉 출판도시 관리 방안	44
〈그림 3-12〉 책방 개설 용의	45
〈그림 3-13〉 책방 미개설 이유	45
〈그림 3-14〉 회사 이전 계획	46
〈그림 3-15〉 출판도시 활성화를 위한 자유의견	46
〈그림 3-16〉 출판도시의 최대장점 및 불편사항(방문객)	54
〈그림 3-17〉 도서 구매 의사 및 타사 출판물 판매에 대한 견해	55
〈그림 3-18〉 출판도시 발전을 위한 개선사항	56
〈그림 3-19〉 출판산업 가치사슬	57
〈그림 3-20〉 산업 클러스터	58
〈그림 4-1〉 출판도시의 21세기 도시 패러다임 전환 모델	70
〈그림 4-2〉 독일 오버하우젠 가스미터 (Gasometer Oberhausen) 전경 및 전시 사진	75
〈그림 4-3〉 에센시 출판라인 탄광산업단지 및 출판라인 디자인경영학교	77
〈그림 4-4〉 헬싱키 아라비아 지구	78
〈그림 4-5〉 헬싱키 디자인 지구	79
〈그림 4-6〉 출판도시 연결 교통 인프라 개선방안	86
〈그림 4-7〉 단계적 방문객 개발 모델	95
〈그림 5-1〉 한국산업단지공단 파주지사의 주요 업무	126
〈그림 5-2〉 출판도시입주기업협의회 조직도	127
〈그림 5-3〉 복합적 산업입지의 개념	131



요약

제1장 서론

파주출판도시는 1단계 조성의 높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문제점에 의해 도시적 활성화가 지체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도시로 발전해가는 데 한계를 노정하고 있음.

출판도시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 문화자본이 얽혀 있는 공공의 영역으로서, 지식문화산업의 원형 콘텐츠인 출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인식의 전환과 출판, 영상 등 지식정보서비스 산업이 집적화해 있는 출판도시를 창조문화 산업의 거점으로 만들어가는 전략이 긴요함.

본 연구는 파주출판도시가 자생력을 갖춘 문화산업도시로 발전해갈 수 있는 문화전략을 중심으로 한 전략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현실적인 발전의 걸림돌인 법률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함.

제2장 파주출판도시의 조성배경 및 성과 분석

파주출판도시는 출판, 영상 등 지식정보산업의 집적화를 통한 국가전략산업 육성 및 국제적 문화정보 교류 및 공연, 전시가 이루어지는 ‘통일한국시대의 문화중심지’를 목표로 조성되었음.

파주출판도시의 건축물들은 독특한 스토리를 지닌 개성 있는 건축물로 채워져 한국의 도시 개발 및 건축문화사에 신기원을 열었으며, 미래의 입주자들이 능동적으로 나서 도시 개발을 수행한 드문 사례이자 현대건축의 세계적 명소로 평가받고 있음.

1단계가 완성된 현재 출판도시에는 출판 연관회사 3백여 업체가 입주하여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출판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으며, 창조경제의 핵심인 지식과 정보를 창출하는 중심기지(고용인원 6천 명, 연매출 1조7천억 원)로서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있음.

파주출판도시의 건축물들은 산업단지임에도 건축법상 대부분 공장이 아닐뿐더러, 건물마다 연구실, 집필실, 전시장, 공연장, 북카페, 서점 등의 문화공간이 들어서 독자들이 찾아와 책문화를 즐기는 곳으로 변모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파주북소리를 비롯한 굵직한 문화행사가 진행되는 문화도시이자 방문자들에게 다양한 교육 및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도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파주출판도시는 폐천 부지 위에 도시를 건설하는 악조건 속에서도 갈대셋강을 원형대로 보존하는 등 자연과 첨단도시, 그리고 건축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 환경 친화적이고 생태계를 보전하는 도시를 건설하였음.

제3장 파주출판도시의 구조적 문제점 및 도전과제

출판산업의 구조적 불황 및 출판 생태계의 급격한 변화시대를 맞이하여 출판도시는 능동적인 노력을 통해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며, 정부는 창조경제시대와 지식정보문화산업의 글로벌 트렌드에 맞는 출판진흥정책을 수립해야 함.

출판도시의 가치사슬은 생산부문에 한정되어 있으면서도 도시 내 연계성이 낮는데, 저자를 포함한 기획 및 아이디어 부문과 책방거리 조성사업을 통해 독자에게까지 확장될 필요가 있음.

출판도시 구성원들은 전통 제조업의 시각에서 마련된 출판도시 관련법이 ‘문화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하고, 창조산업 융복합시대에 맞게끔 입주허용 업종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 출판도시입주기업협의회 회원들은 총회에서 ‘출판도시 활성화를 위한 회원 결의 및 정책건의’ 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음. 결의안에는 출판도시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가 집약되어 있으며, 소매서점 및 북카페의 허용이 그 가운데 하나임.

자사 출판물 외에는 전문서점조차 개설이 불가능한 제약은 개선되어야 하며, 국제적 트렌드에 맞도록 지식기반산업 및 콘텐츠 산업의 입주가 허용될 필요가 있음.

출판도시 구성원의 대부분은 출판도시의 관리가 출판산업의 육성과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원활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협동화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옴으로써 업종의 성격과 현황, 문제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자체조직이 관리조직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음.

출판도시 입주사들은 출판도시의 장점으로 ‘책을 중심으로 특성화된 문화공간’ 이라는 항목을 최우선에 두었으며, 방문객들의 다수도 출판도시가 ‘책을 중심으로 한 문화도시’ 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음.

2011년부터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책방거리 조성사업은 향후 출판도시의 문화지형도를 바꾸어낼 것으로 기대되는바, 문화예술의 일상적 향유가 가능한 도시, 그리고 보유한 문화자원을 열기설기 엮어 보여주는 것을 넘어 문화 창조의 용광로가 되어야 할 것임.

출판도시는 ‘단순 산업시설을 넘어, 거주민의 일상생활이 가능한 주거도시의 완성’ 이라는 과제 및 현대도시의 흐름에 비추어볼 때는 낙제점임. 종업원을 위한 주거시설이 턱 없이 부족하고, 교통 및 생활편익 부문의 불편도 심각한 수준임.

출판도시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서울 등 타 지역으로 이jarah겠다는 입주사가 적지 않은바, 주거와 교통, 생활편익 시설의 문제를 해결한 이후라야 출판도시가 쾌적한 전원도시, 창조적인 인재들이 일하는 자족도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임.

제4장 파주출판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방안

제1절 파주출판도시의 비전과 발전방향

산업단지에서 문화산업도시, 지역 컨텍스트에서 글로벌 문화도시, 물리적 시설보다 창조적 인적 자원이 풍부한 도시, 창조인력을 양성하고 교류시키는 도시, 새로운 문화 키워드를 창출하는 도시로 비전이 전환되어야 함.

제2절 파주출판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방안

1. 출판문화 클러스터 전략

1) 출판문화 클러스터의 필요충분조건 확보

출판도시의 클러스터 완성도는 매우 낮은 수준이며, 클러스터에 편입되어 있지 않은 외부 기업들에 비해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단언하기 어려움. 성공한 산업 클러스터들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주도하에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 개발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공통점을 지니며, 교육 및 연구 분야가 활성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편의시설과 쾌적한 환경 및 주거시설이 확보되어 있음.

문화 클러스터는 산업 클러스터와는 달리 문화적 활동의 다양성과 창조산업의 존재, 교육의 기획 등 콘텐츠의 질이 핵심을 이루고, 카페 문화 같은 네트워크 활동을 만들어내는 구조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도시공간의 조밀도 및 공공공간의 양과 질 등 경관이 중요 척도임.

출판도시는 문화적 진보성과 철학, 공간에 대한 열린 해석과 상상력, 지식 생태계의 우수성이 강점이나, 수용성이 떨어지고 공공 공간 및 건축 전면의 활성화가 부족함. 도시 활동 측면의 수치가 낮고 일반 관람객을 유인할 수 있는 강력한 문화 프로그램 역시 부족함.

공장 중심의 산업단지 모델로는 창조문화도시 및 창조경제로 나아갈 수 없는바, 공공의 문화가치를 생산하고 확장해 나가며 시민들의 문화적 요구에 부응하는 도시로 거듭나야 함.

독일 루르지구, 핀란드 헬싱키 디자인지구, 프랑스 앙굴렘 등 문화산업 클러스터의 경우 박물관 및 관련분야 센터의 조성과 함께 프로그램 개발에 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함으로써 각 지역에 맞는 이야기를 만들어내었으며, 클러스터를 발전시키기 위한 중앙과 지방정부 차원의 장기간에 걸친 지원이 뒷받침되었음. 특성화된 콘텐츠를 중심으로 정부 산하 각종 기관과 기업, 문화단체, 아티스트들이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며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는 물

론, 내외부를 연결하는 네트워크의 활성화 및 개방성이라는 공통점도 지니고 있음.

파주출판도시가 ‘출판문화 클러스터’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발전목표를 다양한 문화 콘텐츠가 집적된 글로벌 문화도시, 창조도시로 설정하여 가능성을 확대하여야 하며, 출판인쇄 등의 제조업 기능과 문화콘텐츠 서비스 부문을 통합한 융복합 클러스터가 되어야 함.

R&D 기반 강화를 위한 연구기관의 설립 및 대학의 유치가 출판도시의 장기발전을 위해 중요한데, 우선은 2013년 출판도시에 동지를 둔 파주타이포그래피학교와 온북TV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를 ‘세계출판교류센터’로 개편해 국제 출판교류의 거점으로 발전시키는 일과 출판도시 정보도서관의 활성화 및 지지향 게스트하우스를 라이브러리 호텔로 꾸미는 일도 선순위에 두어야 할 과제임.

출판도시 2단계 지구에 출판인쇄박물관과 출판도시의 위상에 걸맞는 전문도서관이 하루속히 건립되도록 노력해야 함.

출판도시 입주사들이 희망하고 그들이 꿈꾸는 도시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국가 지원체제가 강화되어야 하며, 출판도시내 입주사간 네트워킹 및 협력체제가 강화되어야 함.

2) 도시기반시설 확충

과거에 비해 교통 인프라가 많이 발전한 상태이나 광화문 등 서울시내 중심부 및 강남권 노선버스의 확충과 파주지역 노선의 직선화가 필요함.

출판도시 남측 IC의 개설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 할 수 있는데, 인근 가좌마을까지 연장된 일산 중앙로를 출판도시까지 연결하면서 김포-관산간 도로에 IC를 만들면 자유로 및 제2자유로 진출입까지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

출판도시의 도시 환경을 사용자에게 친숙한 환경으로 개선하는 사업의 핵심은 책방거리 조성사업으로서, 책방거리 조성을 통해 출판도시는 공공성이 배가되고 사색과 여유가 묻어나는 도시 공간으로 거듭날 것임.

이웃 교하신도시 및 일산신도시와 도시적 채널로 연결하는 방안을 모색해 자족도시로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아울러 지역사회와의 문화적 동질감을 높여야 함.

2. 문화도시 전략

1) 문화 프로그램의 확대 및 질적 향상

출판도시내 책방거리의 문화적 지형도를 그려나가기 위해, 상시적인 일상 프로그램을 운영

해 나가되, 출판문화 진흥의 관점에서 책방거리 전체가 하나의 문화 벨트로 움직이며 고유한 성격을 만들어나가야 함.

차별화된 문학/책 프로그램 기획을 통해 긴 호흡으로, 특화된 관객층에게 여러 채널로 다가가는 전략이 필요함. 출판도시에 산재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다양한 내용의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대안적 출판물 생산을 병행함으로써 다원적 예술이 생산되는 문화 플랫폼으로 기능하도록 해야 함.

국내외의 수준 높은 문화예술기관 및 타 페스티벌과 협업하여 파주북소리를 아시아 대표 축제로 육성하고, 어린이책잔치를 더욱 유니크한 축제로 발전시키는 일과 출판도시의 문화적 자양에 기반한 생산적이고 유니크한 문화 이벤트를 개발하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함.

출판도시는 작가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최적의 장소인바, 출판사들의 동의와 참여를 이끌어내, 다양한 성격의 ‘저자’와 ‘출판문화’가 만나는 넓은 범주의 문화, 지식 생산과 교류의 장으로서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출판도시에 많은 출판사들이 모여 있고, 각 출판사들은 수십, 수백의 저자와 네트워킹되어 있으므로 출판도시의 좋은 지식문화 인프라를 활용하여 ‘출판도시 인문학당’ 혹은 ‘100인 1,000강좌’ 같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2) 출판도시 자산을 활용한 문화 비즈니스 모델 창출

책방거리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일상 프로그램이 늘고 대규모 축제를 찾는 내방객이 증가함에 따라 출판도시는 대중이 찾아와 책의 문화를 즐기는 공간으로 변신하고 있는바, 출판도시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과 자원을 활용해 생산적이고 교육적인 관광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문화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필요가 있음.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의 우수한 산업자원을 활용해 가족 단위는 물론 청소년들의 단체 학습공간으로 개발하겠다는 산업관광 육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시교육청은 출판도시의 자원을 학생들의 현장학습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출판도시와 2013년 4월 MOU를 체결하였음.

방문객을 위한 안내시설을 확충하고 교육 기능을 중심으로 출판도시의 장점을 살려 출판도시만의 특화된 대안여행 프로그램 곧 새로운 문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임.

출판도시내 서점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의 체험 프로그램을 더욱 확장하여 체계적이고 밀도있는 컬리큘럼의 ‘출판도시 창의학교’를 설립해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3. 생태도시 전략

1) 출판도시 에코시티 프로젝트 추진

출판도시는 구상 초기부터 생태도시로서의 지향점을 설정하였는바, 21세기형 에코시티로 재점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경관이 아름다운 건축도시에서 사람과 자연, 건축환경, 출판문화가 조화를 이루며 공생하는 미래형, 도심형, 비즈니스형 에코시티로 진화해야 함.

물길이 막혀 썩어가고 있는 갈대샨강의 환경 복원작업과 오염을 방지하는 방안이 하루속히 마련되어야 하며, 1단계와 2단계 사이에 위치한 우수지의 기능은 도시화된 현재의 환경변화를 고려해 출판도시의 생태환경을 떠받치는 비오톱 개념으로 변모해야 함.

방치되어 있다시피 한 수변공간에 어울리는 조형물을 설치해 예술공원, 생태공원으로 바꾸는 작업은 방문객의 증가와 더불어 검토해볼 만한 사업으로서, 일본의 에치고즈마리 트리엔날레 같은 대지미술제, 독일의 뮌스터 프로젝트 같은 예술행사가 좋은 본보기임.

2) 공용주차장 조성 및 친환경 내부 교통 시스템

생태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친환경 교통 시스템의 도입이 필수적인데다 외부 방문객이 많지 않은 지금도 출판도시의 도로가 주차장을 방불케 하므로, 출판도시 외부에 대형 공용주차장을 조성하고 친환경 내부 교통 시스템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도입 가능한 내부 교통 수단 가운데 출판도시의 여건을 고려할 때 가장 적절한 내부 교통 시스템은 무선충전 전기버스(OLEV)로서, 국토부가 주관해 국가 R&D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국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연구해볼 만함.

제5장 법률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

제1절 제도개편의 배경과 필요성

산업단지로서 파주출판도시는 나름의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 계획 및 관리로 인해 출판문화산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기업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는 파주출판도시가 인쇄출판업으로 특화된 산업단지로서는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문화산업의 집적거점이자 문화중심지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정립하지 못했음을 의미함.

파주출판도시가 안고 있는 주요 문제점은 도심지향성이 강한 출판산업을 기존 시가지에서 이격된 교외지역에 건설한데 따른 것이지만, 지정 이후 10여 년이 지나는 동안 대내외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였기 때문이기도 함.

따라서 정부는 파주출판도시가 당초 개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당면한 정책과제들을 해소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제2절 파주출판도시 발전의 제도적 제약요인

1. 입주업종 기준의 불합리

파주출판도시의 활성화와 발전을 가로막는 대표적 제약요인으로는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내 입주허용 업종이 출판산업의 특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입주허용 업종과 비교하여서도 불합리한 부분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임.

산업시설구역내 입주가 허용된 출판업(581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592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의 경우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를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기능은 배제되어 있음.

문화산업 가운데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한국표준산업분류 591)에 대해서는 기획에서 제작 및 관련서비스업, 배급 및 상영에 이르는 전 단계를 허용하고 있으나, 중심산업인 출판에 대해서는 출판물의 판매(도·소매업)의 입지를 불허하고 있음.

2. 기업지원 기능의 취약

파주출판도시는 물적 시설 중심의 관리기능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기능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관리기능 또한 지역과 입주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출판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시책사업이 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의해 추진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관리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관장하는 법률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담당하고 있어서 출판 관련 입주기업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음.

제3절 제도 개선방안

1. 출판도시 산업시설구역내 입주허용 업종의 확대

파주출판도시의 활력을 제고하고 문화중심지로서의 장소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산업시설 구역에 서적소매업과 편의음식점이 결합된 소위 북카페의 설치가 필요함.

하지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북카페는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 내 입주허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설치·운영되고 있는 시설의 대부분은 합법적이지 못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따라서 북카페의 산업시설구역 입주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관리기본 계획상 유치업종에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 정한 문화산업을 추가하는 방안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1호 다목 “출판·인쇄·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을 유치업종에 포함하는 두 가지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이와 함께 전문화된 산업단지에 대한 특례제도의 신규 도입을 통해 전문화된 산업단지 내의 입주허용 업종 기준을 변경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필지분할 최소규모 제한의 완화

파주출판도시 내 입주허용 업종을 확대하거나 출판사 사옥이 입지한 부지 내에 서적 소매업 등의 입주를 허용할 경우 입주기업의 규모는 현재에 비해 다양화될 수 있으므로 소규모 필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가 있음. 따라서 필지분할의 최소규모를 출판업과 영상산업 등의 수요에 부합하도록 축소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와 함께 현행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한 최소 분할기준 1,650㎡는 제조업 중심 산업단지에서 적용될 수 있는 규모로 파주출판도시 유치업종의 성격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여 건축물이 들어선 부지의 분할 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3. 관리기관 등의 기업지원 기능 강화

파주출판도시 관리상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문화산업단지를 기존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와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어 문화산업이 갖는 변화성, 다양성, 유연성 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임.

따라서 출판도시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기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단기적 대안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지방자치단체, 입주기업협의회 및 관리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

는 파주출판도시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와 함께 산업단지 관리업무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관리업무의 다양성, 유연성, 전문성 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4. 복합용도구역의 허용

근로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파주출판도시를 방문하는 소비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에서 창조 지향적인 산업단지로의 전환이 필요함. 현행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4개 용도별 구역에 더해 복합용도구역을 추가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음.

생산기능뿐만 아니라 주거, 판매, 교육, 연구개발기능 등이 일정 구역 내에 함께 입지하는 복합용도를 허용한다면 문화산업 중심의 산업단지를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5. 파주출판도시특별법 제정

파주출판도시는 1,2단계 합쳐 150만㎡에 이르는 규모로서, 세계 유일의 출판문화 클러스터이자 방송, 영상, 소프트웨어, 전시, 공연을 아우르는 융복합 산업클러스터로서 창조경제의 실험적인 모델임.

세계 유일의 출판문화 클러스터를 국제경쟁력을 갖는 글로벌 창조경제 클러스터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파주출판도시특별법(가칭)」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책을 위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발상 아래 출판인들이 조합을 결성한 지 20여 년이 훌쩍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파주출판도시는 한국 출판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시 건설이라는 측면에서 뚜렷한 궤적을 그려왔다. 단순히 출판사들이 물리적으로 집적된 산업 클러스터가 아니라 출판과 건축, 도시와 문화에 대한 의미 있는 발언을 생산해내는 특수한 문화지구로, 이상적인 계획도시의 모델로 자리매김해온 것이다. 가파른 경제성장 및 도시화를 견인해온 정부주도형 도시 개발 드라이브와 부동산 개발논리에 함몰되지 않으면서 중소 규모의 출판사 사이의 결속력을 토대로 민간 조합을 구성하여 도시건설 기획단계에서부터 운영방안에 이르기까지 스스로 주체가 되어 청사진을 그려나갔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산업단지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주도하에 설립된 것과 달리, 파주출판도시는 출판, 인쇄, 제본, 유통 등 다양한 인접 분야와 출판과 관련을 맺는 다양한 인맥과 이해관계, 사상을 가진 조합원들에 의해 현실화되었다.¹⁾ 파주출판도시를 기존의 산업단지과 가장 뚜렷하게 구분시키는 지점은 선구적인 도시 마스터플랜과 건축설계지침, 실험적 성향의 건축가들을 대거 영입시킨 점이였다. 기존의 도시 설계 문법과는 전혀 다른 접근의 입체적이고 혁신적인 실험이었기에, 오늘날 출판도시가 국내외적으로 높은 관심과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파주출판도시 1단계 조성이 완료된 현시점에서 뒤돌아볼 때 높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문제점에 의해 도시적 활성화가 지체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도시로 발전해가는 데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많은 입주사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부도에 처하거나 서울로 U턴하는 곳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산업구조가 디지털 콘텐츠를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정보와 지식의 소비 형태가 변하는 출판 환경의 변화에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 출판도시 2단계 기반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건축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으나, 내외 환경의 변화로 인해 그 진전도는 매우 느린 편이다.

출판도시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 문화자본이 얽혀 있는 공공의 영역이 되었고, 출판도시의 문제는 곧 공공의 문제이다. 지식문화산업의 원형 콘텐츠인 출판에 대한 정부

1) 배형민(2009), 「파주출판도시와 공공성의 경계」, 강수미 외, 『공공미술: 건축과 참여: 플랫폼 2009 심포지엄 자료집』.

차원의 인식의 전환과 출판, 영상 등 지식정보서비스 산업이 집적화해 있는 출판도시를 창조문화 산업의 거점으로 만들어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하겠다.

출판도시는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의 일반산업단지와는 다른 문화산업단지로서 산업단지 관련법으로 획일적으로 규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출판도시가 산업단지로 지정될 때는 출판업이 제조업으로 분류되었으나,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2008년 서비스업으로 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었으며, 이는 출판도시의 정체성 및 발전전략에서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된다.

새로운 시대적 트렌드 및 출판도시의 변모에 맞는 융복합 문화산업 클러스터로 출판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제조업 차원에서 입안된 입주허용 업종부터가 서점 및 지식기반산업, 콘텐츠산업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아울러 다중이 문화를 즐기기 위해 출판도시를 찾아오는 현실을 감안하여 내방객들에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아늑한 공간에서 장시간 독서와 힐링을 즐길 수 있는 식음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파주출판도시가 자생력을 갖춘 문화산업도시로 발전해갈 수 있는 문화전략을 중심으로 한 전략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현실적인 발전의 걸림돌인 법률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파주출판도시의 조성 목적과 배경, 그리고 1단계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아울러 파주출판도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이 무엇인지 다양한 출판도시 구성원들에 대한 다층위 설문조사를 토대로 도출해낼 것이다. 도출된 문제점들을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2단계협동화사업계획서>가 설정하고 있는 2단계 사업의 기본방향 속에 녹여내어 파주출판도시가 풀어야 할 도전과제로 제시하고, 이 같은 기초조사와 국내외 사례에 대한 연구 분석을 토대로 파주출판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방안을 출판문화 클러스터 전략, 문화도시 전략, 생태도시 전략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는 폭넓게는 출판도시의 발전을 위한 문화전략을 포괄하고 있지만, 현실적 목표는 파주출판도시에 적용되고 있는 산업단지 관련 법률과 제도를 검토해 파주출판도시의 도시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따라서 제5장에서는 관련법률에 대한 법리적 분석은

물론 출판도시 입주사들의 의견까지를 포괄해 전향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 차별성

본 연구는 출판도시를 만들고 운영해온 기관이 중심이 되어 수행하는 것으로서 출판도시의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주체에 의한 실체적 연구라는 데 특징이 있다. 한편 연구 결과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실천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 다년간 산업단지 관련 연구를 수행해온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이 연구진으로 합류하여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였다.

3. 연구 방법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조사와 설문 및 면접, 공청회 등이 병행되었다. 파주출판도시가 펴낸 각종 책자와 자료집, 출판도시에 관한 연구논문, 산업 및 문화 클러스터 관련 논문, 세미나, 단행본, 정책 보고서 등을 폭넓게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는 출판도시 관련 구성원이 다양한 관계로 1단계 입주사, 1단계 임차사, 1단계 지원 시설부지 입주사, 2단계 입주 예정사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각기 처해 있는 환경이 다르므로 설문 대상자에 따라 부분적으로 설문내용을 달리하였다. 한편 현재 출판도시에서 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입주사와 1단계 입주사 가운데 서점을 개설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업체를 대상으로 2차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 외에도 현안에 따라 출판도시 관계자 및 연구자 등의 개별면담이 이루어졌으며, 사계 권위자들의 자문을 구하였다.

본 연구의 큰 틀이 마련된 후 출판도시 입주사 및 관련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1회 개최하였다.



제2장

파주출판도시의 조성배경 및 성과 분석

제1절 파주출판도시의 조성 목적과 배경

제2절 파주출판도시 1단계 사업의 성과

제2장 파주출판도시의 조성배경 및 성과 분석

제1절 파주출판도시의 조성 목적과 배경

1. 파주출판도시의 조성 목적

파주출판도시 조성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21세기 고도 정보화사회에 대비하여 출판, 영상 등 지식 정보산업을 중심으로 한 출판문화산업을 집적화하여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

둘째, 첨단 정보 영상산업의 고부가가치 극대화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출판문화 창달을 위한 공간을 조성함은 물론 유통구조를 현대화한다.

셋째, 국제적 문화정보 교류 및 공연, 전시가 이루어지는 ‘통일한국시대의 문화중심지’ 이자 ‘세계적인 문화 관광명소’ 로 개발한다.

2. 파주출판도시의 조성 배경

1) 출판문화 발전을 위한 환경의 쇄신

- 산업 경제적 측면 :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 발명국이자 세계적 수준의 출판물 제작량과 출판 종수를 생산하는 출판 대국의 면모를 신장시키기 위한 산업 기반을 조성한다.
- 산업 경영적 측면 : 기획, 편집, 디자인 같은 연성(軟性)업무와 제작, 유통 같은 경성(硬性)업무가 유기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출판산업의 생산성 향상은 물론 공동체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바, 이를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
- 문화 매체적 측면 : 출판은 국민 교육의 수단이자 학문 발전의 바탕이 되며, 문학과 지성을 전달 창달하는 최고의 매체이다. 또한 뉴미디어 사회 속에서도 콘텐츠 생성의 기초 및 원천 매개자로서 기능하므로, 이를 신장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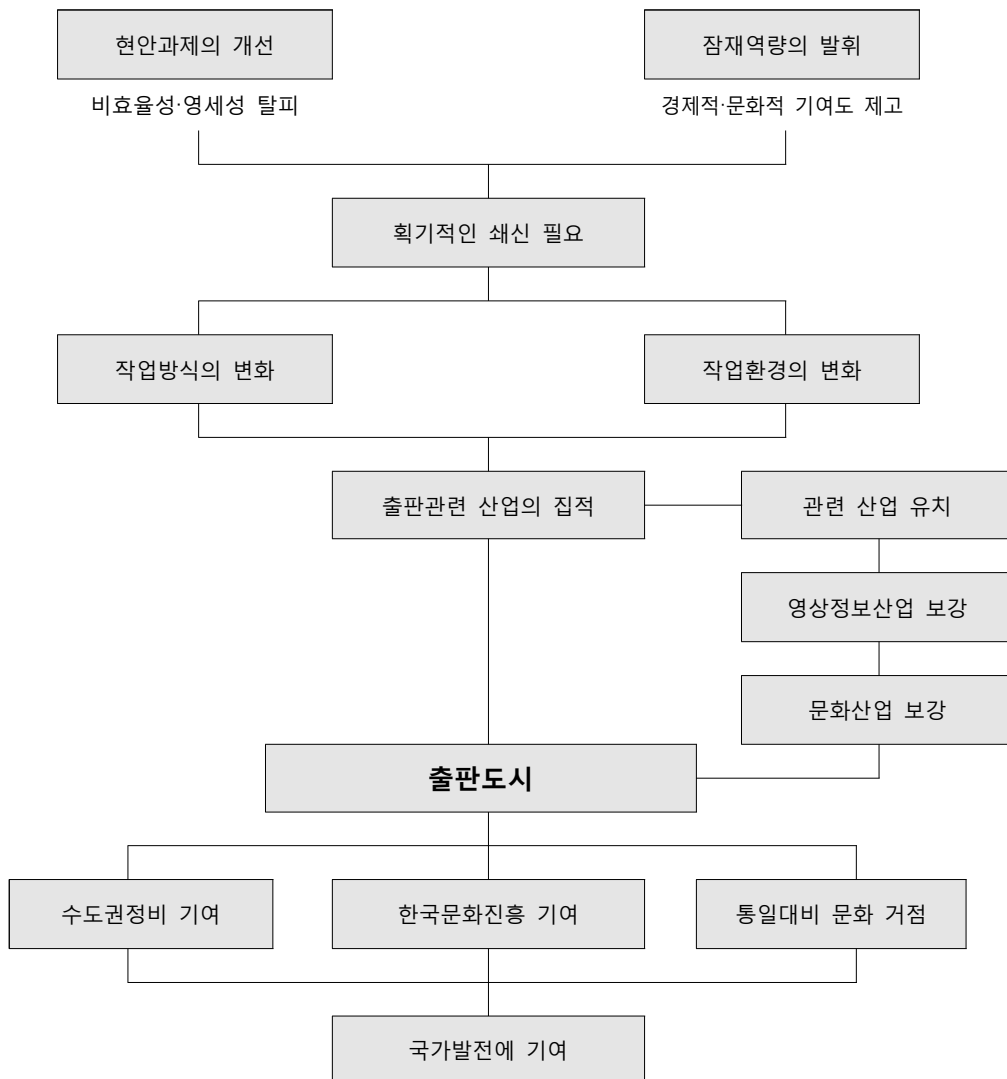
2) 집적화, 단지화의 필요성

- 집적(집적)을 통한 경제성 제고 : 출판은 어느 산업보다도 다단계에 걸친 산업적 흐름과

가치사슬로 연결되어 있어 이들의 집적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 집적의 이익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 도시 단위 단지의 효율성 : 가치사슬 간 동업종간의 연계성과 경쟁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내부 구심력과 외부 개방성을 담보할 수 있는 도시형 단지가 적합하며, 이 같은 이유가 단지 조성의 동인이 되었다.

〈그림 2-1〉 파주출판도시 조성 배경과 비전



*출처: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2010),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2단계협동화사업계획서』, p. 39.

제2절 파주출판도시 1단계 사업의 성과

1. 건축 및 물리적 환경

파주출판도시의 건축물들은 책과 어우러진 문화적 환경을 체험하게 할 뿐 아니라 독특한 스토리를 지닌 개성 있는 건축물로 채워져 한국의 도시 개발 및 건축문화사에 신기원을 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개발계획에서부터 대상부지 선정, 기반시설, 건축설계지침, 간판규정, 관리운영지침은 물론이고 입주 후의 운영에 이르기까지 미래의 입주자들이 능동적으로 나서 도시 개발을 수행한 드문 사례이자, 국내외의 대표 건축가들을 참여시켜 현대건축의 세계적 명소로 만들었다. 베니스 비엔날레를 비롯한 세계 유수의 전시공간에서 출판도시의 도시 개발 사례와 건축물들이 전시되었을 뿐 아니라,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까지 출판도시를 찾는 건축 투어의 물결이 끊이지 않고 있다. 출판도시의 건축에 대한 국내외의 높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단지계획이 기존 도시 개발의 문법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은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출판도시 종사자들은 파주출판도시의 건축에 대해 상대적으로 평가가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판도시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설문에 대답한 총 280명의 응답자 가운데 18명(6.4%)만이 건축이라고 답하였다.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한 답변은 ‘출판산업 집적화에 의한 시너지’ (128명, 45.7%)와 ‘책을 중심으로 특성화된 문화공간’ (103명, 36.8%)이었다. 건물을 지어 입주해 생활하고 있는 입주사들이 ‘책을 중심으로 특성화된 문화공간’ 이라고 다수 답변한 반면, 2단계 입주 예정사들과 임대료 출판도시에 들어와 있는 회사들에서는 출판도시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지 ‘출판산업 집적화에 의한 시너지’ 를 선택한 답변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p.37 <표 3-3> 참조)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 북시티는 파주출판도시를 벤치마킹해 건설되고 있으며, 중국과 대만 등지에서도 파주출판도시 같은 공간을 조성하려는 모색이 시도되고 있다. 파주출판도시가 아시아 출판시장에서 우리 출판문화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여실히 증명해주는 사례다.

2. 입주 및 사업 운영

1단계가 완성된 현재 파주출판도시에는 출판사, 인쇄소, 제본소, 저작권 에이전시, 출판유통회사, 디자인회사 등 각종 출판연관 회사 3백여 업체가 입주하여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출판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으며, 협업과 경쟁을 통해 활발한 지식생산을 이루어내고 있다.

창조경제의 핵심인 지식과 정보를 창출하는 중심기지로서 현재 고용인원 6천 명, 연매출 1

조7천억 원을 달성하고 있으며(2단계 완공시 고용인원 1만1천 명, 연매출 3조3천억 원 예상), 연관산업의 집적화를 통해 1단계에서 절감하고 있는 연간 생산 및 물류 비용만도 2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된다.

인쇄 및 인쇄관련산업의 경우 전국 매출액의 9.8%, 기록매체복제업의 경우 전국 매출액의 20.0%, 일반도서와 학습서적을 합한 출판시장의 경우 전국 매출액의 33.4%(2010년 기준 정부 통계에 의하면 출판업, 인쇄업을 합한 출판관련업종 총매출액 12조 5,456억 원 가운데 신문, 정기간행물, 인쇄업을 제외한 출판시장 매출액은 3조 8,946억 원임. 출판도시에서 발생한 출판업 매출액을 1조 3천억 원으로 추정해 산출하였음)가 파주에서 발생한다. 파주시 매출액의 대부분이 출판도시의 성과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대부분의 산업단지가 국가정책과 주도에 의해 하향식으로 건설되는데 반해, 출판인들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협동화 사업으로 순수 민간 차원에서 건설되었음에도 그 성과와 국가경제에 대한 기여가 남다름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출판인들이 협동화 사업으로 파주출판도시를 건설하면서 가졌던 가장 큰 기대는 ‘출판산업 집적화에 의한 시너지’였다. 그러나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출판 불황으로 인해 출판도시 입주사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출판도시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 가운데 현재의 경영 현황이 어떠한지를 묻는 설문에 답한 206사 가운데 흑자라고 답한 곳은 10곳에 지나지 않고, 85곳(41.3%)이 적자라고 답하였다. 나머지는 다소의 부침은 있으나 현상유지를 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매출액의 추이를 적어낸 70사 가운데는 19사가 상승한 반면 하락한 곳은 38사였다. 내용적으로 보면 인쇄소에 비해 출판사가, 그 가운데에서도 단행본 출판사들의 어려움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p.40 <표 3-7> 및 p.41 <표 3-9> 참조)

그 때문인지 출판도시 1단계 조성의 목표가 얼마만큼 달성되었다고 생각하는지 그 정도를 묻는 설문에 1단계 입주사 및 2단계 입주예정사 162사 가운데 56.2%(91사)가 보통이라고 답하였고,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경우는 33.3%(54)에 머물렀다.(p.38 <표 3-4> 참조)

3. 문화콘텐츠 및 프로그램

출판도시의 건축물들은 산업단지임에도 건축법상 대부분 공장이 아닐뿐더러, 건물마다 지식을 발굴하고, 모으고, 창작하는 연구실, 자료실, 집필실, 세미나실이 자리하고, 전시장, 공연장, 북카페, 서점, 도서관 등의 내방객들을 위한 상설 문화공간과 종횡으로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있다. 출판산업의 구조적 기능적 특성을 담아내기 위해 기획 초기부터 ‘박물관 도시’라는 개념을 도입해 책을 만드는 행위의 기능적 과정과 구성 요소를 박물관 프로그램으로 설정하였으며, 궁극적으로 책의 소비자인 독자들이 와서 보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지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출판도시 전체 차원에서 파주북소리, 출판도시어린이책잔치, 국제출판포럼, 동

아시아 책의 교류 등 굵직한 연간 행사를 진행해 책과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즐겨 찾는 문화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 2011년부터는 문화도시로서의 면모를 일신하기 위해 책방거리 조성사업을 의욕적으로 진행함으로써 2013년 초 현재 40여 곳의 책방과 문화시설이 들어서 상시적으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변모하고 있다.

파주출판도시는 출판문화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방문자들에게 다양한 교육 및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하여 ‘책’을 통해 독자와 젊은이들이 미래를 향한 꿈을 키우도록 지혜를 주는 교육도시의 기능을 아울러 수행하고 있다.

출판도시 방문자들은 출판도시를 ‘책을 중심으로 한 문화공간’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설문 응답자 371명의 절대다수인 280명(75.5%)이 문화공간으로서의 출판도시에 주목하고 있었다.(p.53 <표 3-30> 참조) 방문목적 역시 ‘책을 사거나 보기 위해’가 57.0%, 문화활동이나 견학, 체험이 23.2%로 대부분을 차지해 같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연간 방문회수를 묻는 질문에는 60% 가까이가 계절에 한번 이상씩 방문한다고 답하여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매니아층이 다수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p.52 <표 3-27> 참조)

방문자의 96.2%는 출판도시에서 책을 구입하였거나 구입할 의향이 있었으며,(p.54 <표 3-32> 참조) 파주북소리, 어린이책잔치 같은 문화행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은 93.3%였다.(p.54 <표 3-31> 참조) 출판도시를 문화도시로 인식하고 문화 프로그램을 한층 늘려주기를 바라는 방문자들의 의견이 강렬함은 자유발언 난에서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출판도시가 미래 어떤 도시가 되기를 원하는지를 묻는 설문에는 96.8%가 ‘책을 중심으로 한 문화도시’를 선택하였으며, ‘출판산업단지’라고 답한 비율은 1.9%에 지나지 않았다.(p.55 <표 3-34> 참조)

4. 생태 및 환경 도시

파주출판도시는 해발 193m의 심학산을 배경으로 습지보호구역인 한강 하류와 접하고 있다. 무엇보다 출판도시의 미덕은 단지내 수로와 우수지를 원형 그대로 보존한 일이다.

자유로 개설에 의해 인위적으로 형성된 폐천 부지 위에 도시를 건설하는 악조건 속에서도 한강 하류의 삼각주 지문을 지우지 않고 오히려 자연과 첨단도시, 그리고 건축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 본래의 지문을 더 살려 나간다는 대원칙을 고수하여, 환경친화적이고 생태계를 보전하는 도시를 건설하였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출판도시의 생태도시로서의 면모는 크게 부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설문에 응한 총 280명의 입주 및 입주 예정자 가운데 6.1%(17명)만이 출판도시의 가장 큰 장점으로 생태도시를 꼽아 건축과 비슷한 빈도를 보여주었다. 방문객들의 답변은 더욱 낮아 371명 가운데 6명(1.6%)만이 생태도시에 주목해 25명(6.7%)을 기록한 건축에 비해서도 많이 낮았다.

▶ 파주출판도시 1단계 조성 현황

- 성격 :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지정고시 : 1997년 3월)
- 위치 : 파주시 교하읍 문발동 일대
- 면적 : 총 874,042.6㎡
- 개발기간 : 1997 ~ 2007
 - * 사업기간 : 1989(출판문화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발기인대회) ~ 현재
- 투자비용 : 약 6,000억 원
- 주요 유치업종 : 출판, 인쇄, 출판유통, 기타
- 건축물 준공 및 입주 시작 : 2002년
- 입주업체 수 : 출판사 168개, 인쇄 및 출판관련 지원사 76개, 기타 등 300여 사
- 근로자수 : 약 6,000명
- 매출액 : 1조 7천억
- 상설기구 : 사단법인 출판도시입주기업협의회
재단법인 출판도시문화재단
- 특징 : 출판인들이 협동조합을 결성해 정부와 파트너십으로 개발



제3장

파주출판도시의 구조적 문제점 및 도전과제

제1절 출판환경의 변화와 출판도시의 역할 변화

제2절 출판산업 환경의 변화

제3절 설문조사 결과 분석

제4절 파주출판도시의 구조적 문제점 및 도전과제

제3장 파주출판도시의 구조적 문제점 및 도전과제

제1절 출판환경의 변화와 출판도시의 역할 변화

21세기는 지식창조산업을 중심으로 한 융복합의 시대다.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의 시대는 저물고 있다. 출판 역시 지식정보산업을 조직하고 다양한 산업에 콘텐츠를 공급하는 원형 콘텐츠 생산자로서 이같은 출판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야 한다.

한편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출판산업을 둘러싼 환경은 전통적인 텍스트 중심의 종이책에서 전자책으로 급변하고 있다. 콘텐츠 주력 생산자인 출판사가 종이책에 못지않은 고품격 디지털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제작기반과 환경을 구축하여야 할 뿐 아니라, 전자책을 둘러싼 저작권과 출판권의 문제, 그리고 대자본이 점유해 들어오는 전자책 유통환경에도 대응하여야 한다. 도서관의 디지털 자료 서비스 및 도서정가제 또한 해결하여야 할 과제다.

파주출판도시를 건설하던 당시에는 출판산업의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 집적화가 중요한 과제였다. 지금의 출판도시의 출판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앞장서 대응함으로써 창조경제 시대에 걸맞는 출판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그러나 1단계 출판도시의 조성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출판도시 구조로는 그같은 과제를 수행하기에 한계가 커 보인다. 하드웨어 중심의 도시적 목표는 달성되었으나 당초의 목표에 근접하는 도시활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002년부터 현재까지 150여 동의 건물이 준공되었으나 오랜 시간이 경과한 지금도 건물내에 상당한 유휴공간이 존재하는 실정이다. 출판도시에 건물을 소유한 1단계 입주사 94개사를 대상으로 건물 이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건물의 총연면적 273,127㎡ 가운데 161,819㎡를 직접 사용하고, 88,335㎡는 임대를 주고 있었다. 사옥내 유휴공간은 22,973㎡로 조사되어 1개 건물에 평균 244㎡(약 74평)의 꼴이었다. 그러나 실질 유휴공간은 훨씬 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것은 출판도시로 이주하기 전에 94개사가 사용하였던 사무실 면적이 33,735㎡로서 출판도시 입주 후 공간을 4.8배나 넓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휴공간에 대한 대책과 함께 공간활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음을 알게 하는 대목이다.(p.36 <표 3-2> 참조)

출판도시의 활성화가 지체됨으로써 출판도시의 건물들은 하나하나가 고립된 섬과 같다. 거의 모든 활동이 건물내에서만 이루어짐으로써 거리를 이동하는 인구가 별반 눈에 띄지 않는다. 출판계의 불황과 출판도시의 미활성화로 어려움을 겪는 입주사 가운데는 급기야 서울로 U턴하는 회사도 나오고 있다.

출판도시의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2단계 사업의 진행이다. 2012년 말까지 사업지구 조성공사를 마치고 현재는 부분적으로 건축이 진행되고 있다.

▶ 파주출판도시 2단계 조성 현황

- 성격 :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 위치 : 파주시 교하읍 문발동 일대(1단계 북서쪽 자유로변)
- 면적 : 총 687,896㎡
- 개발기간 : 2007 ~ 2013
- 투자비용 : 약 8천억 원
- 주요 유치업종 : 출판, 인쇄, 영상, 소프트웨어, 기타
- 건축물 준공 및 입주 시작 : 2011년(2013년 4월 현재 8개동 준공)
- 예상 입주업체수 : 250(출판 57, 인쇄 19, 영상 34 등 건축물 110동 건축 예정)
- 예상 근로자수 : 약 5,000명
- 예상 매출액 : 1조 6천억 원
- 사업추진 : 문화체육관광부, 국토해양부
- 사업시행 : 한국토지주택공사
- 출판도시 사업주체 :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출판도시 2단계 개발은 출판도시 건설계획을 입안하던 최초단계에서 이미 기획되고 준비된 사업이다. 출판을 중심으로 조성된 1단계 지구를 확장해 영상과 미디어 산업까지를 한곳에 집적시키는 것이 2단계 사업의 근간이다. 이를 통해 아직은 자족도시로서의 내용을 갖추지 못한 1단계의 출판도시를 완성으로 이끌고, 출판과 영상을 아우르는 미래형 문화도시를 건설하자는 것이다.

2단계 사업이 완성되면 출판도시는 활자와 영상, 콘텐츠와 미디어, 디지털과 아날로그, 원천과 응용의 융합을 통해 종합 미디어시티로 거듭날 것이며, 이와 같은 문화산업 인프라, 클러스터는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과 경쟁력을 한층 강화시켜 국가 문화경쟁력의 토대가 될 것이다.

그러나 목표점까지의 길은 멀고 지난하다. 여기에서는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2단계 협동화사업계획서>가 “도시 내부에 거주하는 사람은 물론 외부인들까지” 출판도시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와 예술을 상시 향유하고, “도시 내부에서 삶에 필요한 모든 의식주와 문화예술 활동이 동시에 충족” 되는 자족도시를 기본방향으로 제시하면서 밝힌 ‘21세기형 정보지식 창출 산업 클러스터의 완성’ ‘문화예술의 일상적 향유가 가능한 문화도시의 완성’ ‘단순 산업시설을 넘어, 거주민의 일상생활이 가능한 주거도시의 완성’ 이라는 의제를 중심으로 출판도시의 현주소와 도전과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국내외 출판산업 환경의 변화와 제도 및 관리상의 문제 역시 아울러 조망할 것이다.

제2절 출판산업 환경의 변화

1. 세계 출판시장의 흐름

1) 출판 불황 및 인쇄물 시장의 쇠퇴

세계적인 리서치 회사인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PwC)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세계 출판시장은 2012년부터 향후 5년간 연평균 0.6%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전자책을 포함한 것으로서 종이책 시장은 2012년부터 연평균 2.3%씩 역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디지털 출판의 급성장에 의한 영향으로서 이같은 형상이 장기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출판업의 불황에 의해 매출 감소를 겪고 있는 오프라인 서점들이 서점 안에 교구, 완구 등의 판매 코너를 마련해 매출액을 유지하려는 판매다각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2) 디지털 전자책 시장의 급성장

디지털 전자출판은 거의 모든 나라 출판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이며, 특히 미국과 영국에서 고성장을 구가하고 있다. 2012년 기준으로 전자책 시장의 비중은 미국 15%, 영국 6%인 반면, 독일은 3%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강력한 도서정가제의 영향으로 파악된다. 킨들, 누크 같은 e북 전용 리더기뿐 아니라 태블릿PC, 스마트폰 같은 새로운 e북 리더기의 가세로 전자책 시장은 더욱 시장 점유율을 높여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전자책의 주종이 로맨스, 만화 같은 비주류 출판물이라는 점에서 전자출판 성장의 한계를 짐치는 시각도 있다. 영미권의 경우 시장에서의 저가의 견인력과 마케팅 역량에 힘입어 로맨스를 중심으로 높은 성장률을 구가하고 있는 반면,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시장점유율이 담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3) 1인 출판의 확산

e북이 확산되고 디바이스가 다양해지면서 1인 출판이 급속히 늘어나는 현상 역시 세계 출판계의 주요한 흐름으로 짚어볼 수 있겠다. 애플의 아이북스, 아마존의 싱글즈 같은 전자책 플랫폼을 이용하면 누구라도 쉽게 전자책을 출간할 수 있다.

4) 공공 디지털 도서관 프로젝트

우리나라에서 최근 국립중앙도서관이 도입해 공론이 된 디지털 도서관 프로젝트는 인터넷의 확산과 더불어 유럽을 중심으로 그 영역이 점차 넓어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최근 하버드대학교가 미국내 대학과 공공도서관, 의회, 민간 및 공공 부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디지털 도서관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그 흐름이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2. 국내 출판시장의 흐름

1) 출판시장의 구조적인 불황

출판시장이 최악의 위기라는 소리가 높다. 글로벌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마이너스성장 시대로 접어들고 있으며, 일반 단행본 출판업의 어려움은 더욱 깊다. 지역서점의 기하급수적인 감소와 반품률 증가로 출판업계의 시름은 끝 모를 터널 속을 헤매고 있다. 1994년에 5,683개로 정점을 찍었던 오프라인서점은 2010년에는 1,723개로 줄어들었다.

경기 침체로 신간의 출판이 위축되고 있는 것을 보면 내용적인 출판 불황의 골이 매우 깊음을 알 수 있다. 물가 상승에 의한 제작비용 증가와 경영 악화가 원인이다.

통계청의 2012년도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가구당 월평균 책 구입비는 19,026원으로 2003년도의 26,346원에 비해 28%나 감소하고 있다(소득은 2003년도에 비해 55% 상승). 승승장구하던 인터넷 서점들도 매출은 여전히 신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오픈마켓의 파격적인 할인 공격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되는 어려움을 맞보기 시작했다.

이같은 틈바구니에서 소위 리퍼북(반품도서)을 기반으로 한 온오프라인 서점이 증가하는 것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시장에서 실패한 상품이 높은 할인율을 무기로 시장점유율을 높여간다면 이는 도서정가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 전자책 시장의 동향

2012년 전자책 시장의 규모는 550억 원을 기록해 전체 출판시장 규모 대비 1.3%(교과서 및 학습서적 출판업을 제외한 단행본 시장 규모 대비로는 4%)로 추정된다. 2011년 한국출판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 전자책 제작에 참여중인 출판사는 전체 출판사의 약 14% 정도로 집계되었으며, '외부 유통사'에서 제작하는 경우가 62%, '외부 제작사'에 의뢰하는 경우가 20%로서, 출판사가 '직접 제작'하는 경우는 16%에 불과하였다. 대다수의 출판사들은 디지털 출판물 제작 과정에 참여하기보다는 종이책 제작 파일을 전자책 유통사에 단순 제공하는 역할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정부가 전자책 출판을 뉴미디어 시대를 이끌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판사들의 전자책 시장 참여는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나 2013년부터 각급학교에 스마트러닝과 전자교과서가 도입되고 이에 따라 전자책 단말기가 보급될 예정이어서 전자책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3)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설립

정부는 2012년 “글로벌화·디지털화되는 출판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출판산업 육성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법정기관”으로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을 설립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설립은 출판계에 적지 않은 영향과 변화를 가져다줄 것으로 예상된다.

4) 도서정가제를 둘러싼 공방

한국 출판계의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는 완전 도서정가제 실현을 둘러싼 공방이라고 할 수 있다. 준공공재인 출판물의 가격제도는 소비재 상품 같은 시장질서가 아닌 공공적 가격제도에 의하여야 하며, 문화적 다양성과 국민의 독서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도서정가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제도를 도입한 국가와 찬성론자들의 주장이다. 1977년 도입되어 시행되어온 우리나라의 도서정가제가 인터넷 서점 등의 과당경쟁에 의해 훼손된 것을 바로잡자는 것이 그 취지이다.

그러나 개정발의안이 국회에 상정되었음에도 심사절차조차 거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도서정가제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반대론자들의 입김이 만만치 않은 탓이다. 도서정가제는 할인 허용의 범위와 적용기간의 쟁점을 놓고 2003년부터 현재까지 10여 년 동안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5) 스크린 셀러의 출현

2011년과 2012년 들어 베스트셀러에 오른 『도가니』 『완득이』 『은교』 『화차』 같은 소설은 영화화된 후 다시 주목을 끈 작품들이다. 이른바 스크린 셀러의 열풍, 곧 영화나 드라마가 흥행에 성공하면서 다시 원작이 주목받는 현상을 가리킨다. 영상세대의 전면적 등장과 영상미학의 발전이라는 키워드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3. 출판산업 활성화 및 진흥

출판사업은 현재 미증유의 불황속을 헤매고 있다. 그럴수록 출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인식의 전환과 새로운 패러다임의 출판 진흥정책이 요구된다 하겠다. 그것은 정부가 중점 육성하려는 영상, 애니메이션, 게임, 소프트웨어, 방송(드라마 등) 등 모든 문화콘텐츠 산업의 원형 콘텐츠가 다름아닌 출판이기 때문이고, 출판이 발전하여야 문화콘텐츠 산업, 지식정보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창조경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해리포터 시리즈는 소설 출판물을 기반으로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생산해냄으로써 천문학적 수익을 창출하였으며, 출판도시 입주사인 사계절에서 펴낸 동화 <마당을 나온 암탉>은 영화화되어 한국 애니메이션 영화사상 최초로 200만 관객을 돌파하였다.

정부는 ‘글로벌 출판 한류’ 를 2012년부터 16년까지 추진할 <출판문화산업진흥5개년계획>의 5대 정책과제의 하나로 표방하였다. <엄마를 부탁해> 같은 소설을 염두에 둔 것이겠으나, 이 소설 역시 출판도시에 등지를 틀고 있는 (주)창비 에서 출간되었다. 출판도시는 눈으로 보이는 것 이상으로 한국 출판문화 발전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같은 출판도시의 역할을 비약적으로 증대시키고 집적된 출판연관산업간의 시너지를 통해 우리 출판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파주출판도시에 대한 획기적인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파주출판도시 자체가 세계적 경쟁력을 지닌 ‘출판 한류’ 의 성공적 작품이다. 출판도시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출판물과 문화콘텐츠를 통해서서는 물론이요, 세계에 우리 출판문화의 이미지를 확실히 각인시키는데 있어 출판도시만한 히트상품이 있기 쉽지 않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파주출판도시 활성화 및 지식문화산업 거점화’ 를 <출판문화산업진흥5개년계획>의 5대 정책과제의 하나인 ‘출판문화산업 지속성장 인프라 구축’ 의 주요내용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그 가운데서 “파주출판도시내 컨벤션 시설 등을 활용, ‘세계 유일의 출판 클러스터, 북 시티(Bookcity)’ 의 위상에 걸맞는 국제출판교역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글로벌 비전을 추진” 한다는 내용과 더 구체적으로 “파주출판도시의 성공사례를 세계와 소통할 수 있도록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를 세계출판교류센터(World Book Trade Center)로 개편” 해 “세분화된 특정 주제분야 중심의 출판물 전시·판매, 컨퍼런스, 저작권 교역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연중 수시 개최)” 한다는 내용이 눈길을 끈다.

문화부의 계획대로 파주출판도시가 우리 출판문화를 끌어올리고 우리 출판계가 세계와 소통하는 중심지가 될 수 있는 후속 정책이 나와 주기를 기대한다.

사실 출판도시는 출판도시 입주사들이 외부의 큰 도움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룩해낸 성과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화산업의 자유로움을 가로막는 산업단지 관련법이 첩첩이 장벽을 형성하고 있고, 산업단지라면 의당 제공되어야 할 입주사들에 대한 행정편의, 산업육성정책, 금융, 컨설팅, 정보제공 등에서도 출판도시는 사각지대에 방치되다시피 하였다.

출판도시는 이미 우리 사회의 공적 자산이다. 이를 더욱 키워 국가경제에 기여하도록 할 책무가 정책 담당자들과 출판도시 입주사 모두에게 있다. 출판도시 주체들은 출판 생태계의 변화에 대응하는 능동적인 노력을 통해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하여야 하고, 정부는 창조경제시대에 맞는 또한 지식정보문화산업의 글로벌 트렌드에 맞는 전향적인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절 설문조사 결과 분석

1. 조사 개요

파주출판도시의 구성원들이 출판도시를 어떻게 평가하고 발전전망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출판도시의 구성원이 복잡하고 각기 느끼는 바가 다를 것이므로, 1단계 입주사, 1단계 임차사, 1단계 지원시설부지 입주사, 2단계 입주 예정사로 나누어 설문내용을 부분적으로 달리하였다.

출판도시내의 책방 운영사와 책방 개설 의향이 있다고 밝힌 1단계 입주사에게는 책방 운영과 관련한 2차 설문을 1회 더 실시하였다. 아울러 출판도시가 대외적으로 문호를 확장해감에 따라 출판도시의 구성원으로서 중요도가 높아져가고 있는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도 실시하였다.

이같은 다층위의 설문조사를 통해 출판도시의 성과와 출판도시 구성원들이 느끼는 애로사항, 그리고 구조적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었다. 설문조사 결과는 문헌조사 및 출판도시 관련자들의 의견, 그리고 대외적 평가까지를 종합해 출판도시가 풀어야 할 도전과제로 제시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및 제도개선 정책제안으로 기술될 것이다.

본 설문은 2013년 1월부터 2월에 걸쳐 실시되었다. 입주사 설문조사는 공문과 팩스를 보낸 후 조사원이 전화를 걸거나 방문해 진행하였으며, 방문객에 대한 조사는 출판도시내 서점의 협조를 얻어 실시하였다.

입주사에 대한 조사는 전수조사를 목표로 하였으나, 연락처 불명 혹은 조사 불응 등의 이유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항목에 따라 답변을 생략한 경우가 있어 응답자 수가 각기 다르지만, 아래의 통계에서는 항목별 결측값은 제외하였다.

〈표 3-1〉 출판도시 설문조사 현황

구분	출판도시 입주사					출판도시 방문객	합계
	1단계			2단계 입주 예정사	출판도시 책방		
	건물소유 입주사	임차사	자원시설부지 입주사				
총 업체수(개)	138	-	23	109	58	-	328
조사 가능 업체수(개)	112	-	23	89	54	-	278
응답 업체(자) 수 (개 or 명)	94	120	7	68	24	373	686

2. 출판도시 입주사 설문조사 분석

1) 출판도시 기본현황

〈표 3-2〉 출판도시 기본현황

구분	내용				
종업원	총인원 4,498명	직능별	성별	국적별	교통수단이용별
		사무직: 2,853명	남성: 2,647명	내국인: 4,405명	자가용: 2,189명
		생산직: 1,479명	여성: 1,851명	외국인: 93명	대중교통: 2,309명
		서비스: 166명	*0~5세 자녀를 둔 남녀직원: 242명		
사옥이용 현황	건축규모		이용현황		
	대지면적: 258,997㎡	직접사용면적: 161,819㎡	입주전 사무실면적 33,735㎡ (직접사용면적 4.8배로 확대)		
	연면적: 273,127㎡	임대면적: 88,335㎡			
	사옥내 여유(유휴)공간: 22,973㎡			여유공간비율: 8.9%	

○ 설문에 응한 1단계 입주사 94사와 임차사 120사가 답한 내용을 합산하여 작성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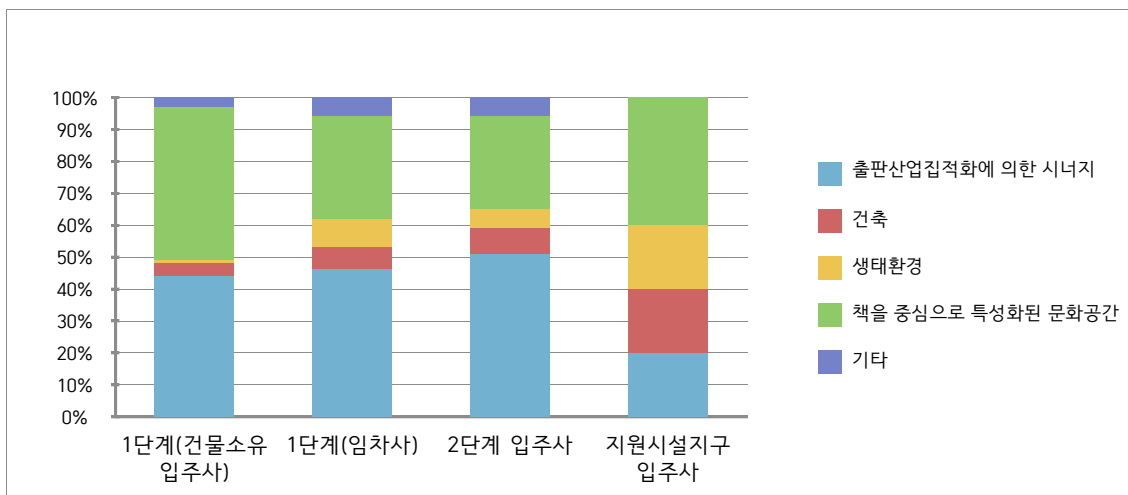
- 건물 소유사 138사 가운데 94사만이 답변하였으며, 임차사 역시 건물소유사를 통해 설문조사하였으므로 미답변사를 고려하면 출판도시에서 일하는 총종업원은 6,0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됨.
- 사옥이용현황 조사는 유희공간의 비율 파악 및 출판도시 입주전과 비교하기 위한 것임.

2) 출판도시의 장점

〈표 3-3〉 출판도시의 최대장점

구분	1단계				2단계 입주 예정사		지원시설부지 입주사	
	건물 소유 입주사		임차사		빈도(개)	비율(%)	빈도(개)	비율(%)
	빈도(개)	비율(%)	빈도(개)	비율(%)				
출판 산업 집적화에 의한 시너지	41	43.6	53	45.7	33	50.8	1	20.0
건축	4	4.3	8	6.9	5	7.7	1	20.0
생태환경	1	1.1	11	9.5	4	6.2	1	20.0
책을 중심으로 특성화된 문화공간	45	47.9	37	31.9	19	29.1	2	40.0
기타	3	3.1	7	6.0	4	6.2	0	0.0
합계	94	100.0	116	100.0	65	100.0	5	100.0

〈그림 3-1〉 출판도시의 최대장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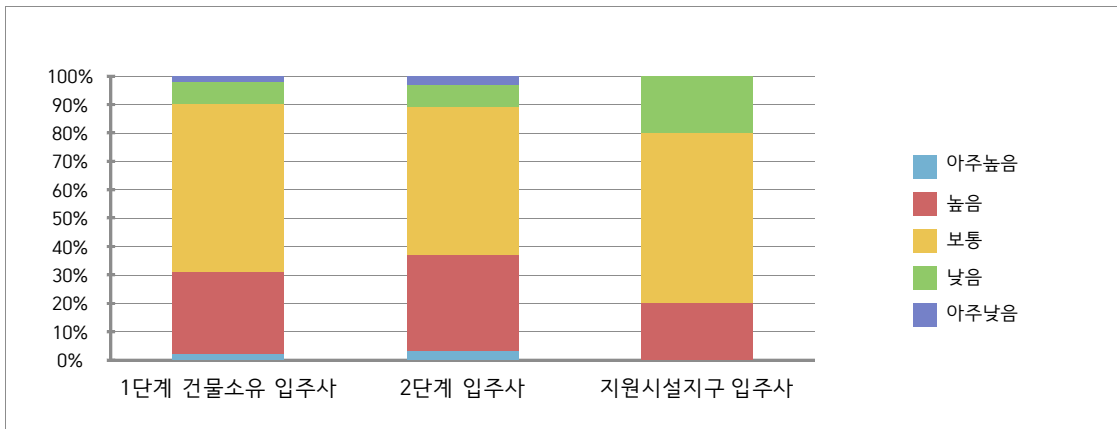


3) 출판도시 1단계 조성목표 달성

〈표 3-4〉 출판도시 1단계 조성목표 달성 정도

구분	1단계 건물 소유 입주사		2단계 입주 예정사		지원시설부지 입주사	
	빈도(개)	비율(%)	빈도(개)	비율(%)	빈도(개)	비율(%)
아주 높음	2	2.2	2	3.1	0	0.0
높음	27	29.3	22	33.8	1	20.0
보통	54	58.7	34	52.3	3	60.0
낮음	7	7.6	5	7.7	1	20.0
아주 낮음	2	2.2	2	3.1	0	0.0
합계	92	100.0	65	100.0	5	100.0

〈그림 3-2〉 출판도시 1단계 조성 목표 달성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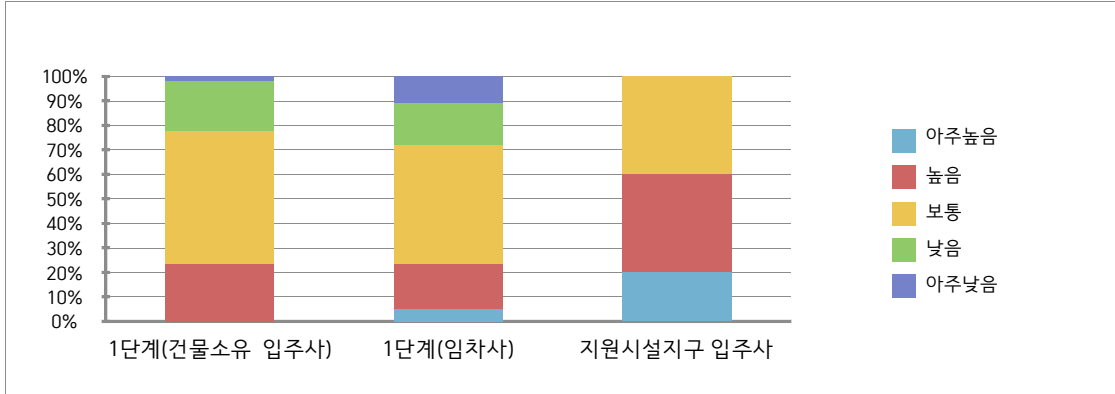


4) 출판도시내 거래업체 가치사슬

〈표 3-5〉 전후방 연관산업 관련 출판도시내 거래업체 비중

구분	1단계				지원시설부지 입주사	
	건물 소유 입주사		임차사		빈도(개)	비율(%)
	빈도(개)	비율(%)	빈도(개)	비율(%)		
아주 높음	0	0.0	6	5.2	1	20.0
높음	22	23.4	21	18.3	2	40.0
보통	51	54.3	56	48.7	2	40.0
낮음	19	20.2	19	16.5	0	0.0
아주 낮음	2	2.1	13	11.3	0	0.0
합계	94	100.0	115	100.0	5	100.0

〈그림 3-3〉 전후방 연관산업 관련 출판도시내 거래업체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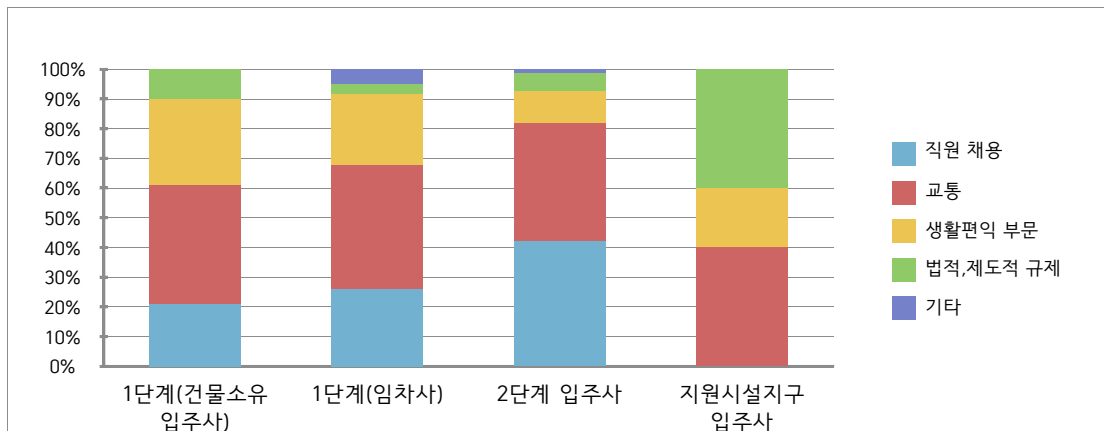


5) 경영 애로사항

〈표 3-6〉 출판도시 입주업체 경영 애로사항

구분	1단계				2단계 입주사		지원시설 지구 입주사	
	건물 소유 입주사		임차사		빈도(개)	비율(%)	빈도(개)	비율(%)
	빈도(개)	비율(%)	빈도(개)	비율(%)				
직원 채용	20	21.5	29	25.7	28	41.8	0	0.0
교통	37	39.8	47	41.6	27	40.3	2	40.0
생활편의 부문	27	29.0	27	23.9	7	10.4	1	20.0
법적 제도적 규제	9	9.7	4	3.5	4	6.0	2	40.0
기타	0	0.0	6	5.3	1	1.5	0	0.0
합계	93	100.0	113	100.0	67	100.0	5	100.0

〈그림 3-4〉 출판도시 입주업체 경영 애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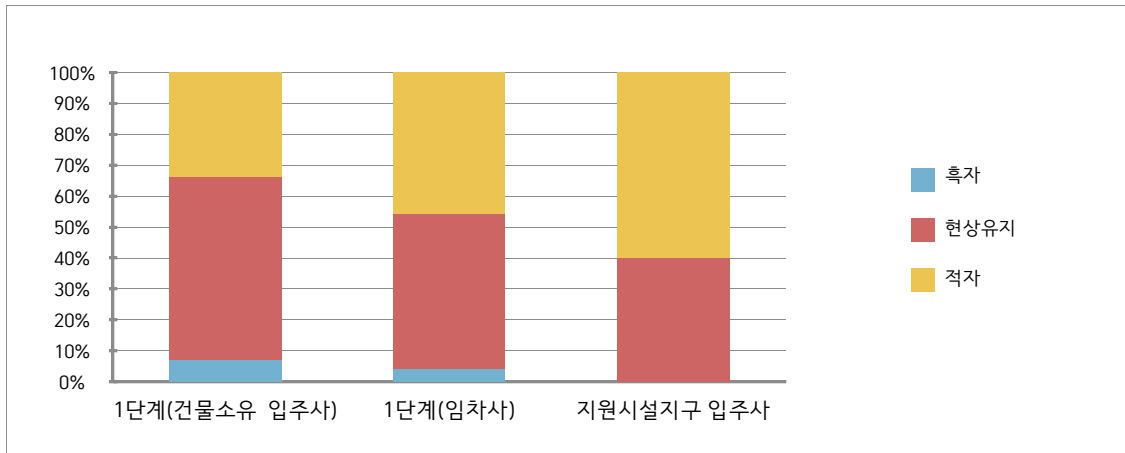


6) 경영 현황

〈표 3-7〉 출판도시 입주사 경영 현황

구분	1단계				지원시설 지구 입주사	
	건물 소유 입주사		임차사		빈도(개)	비율(%)
	빈도(개)	비율(%)	빈도(개)	비율(%)		
흑자	6	7.0	4	4.0	0	0.0
현상유지	54	59.0	55	50.0	2	40.0
적자	31	34.0	51	46.0	3	60.0
합계	91	100.0	110	100.0	5	100.0

〈그림 3-5〉 출판도시 입주사 경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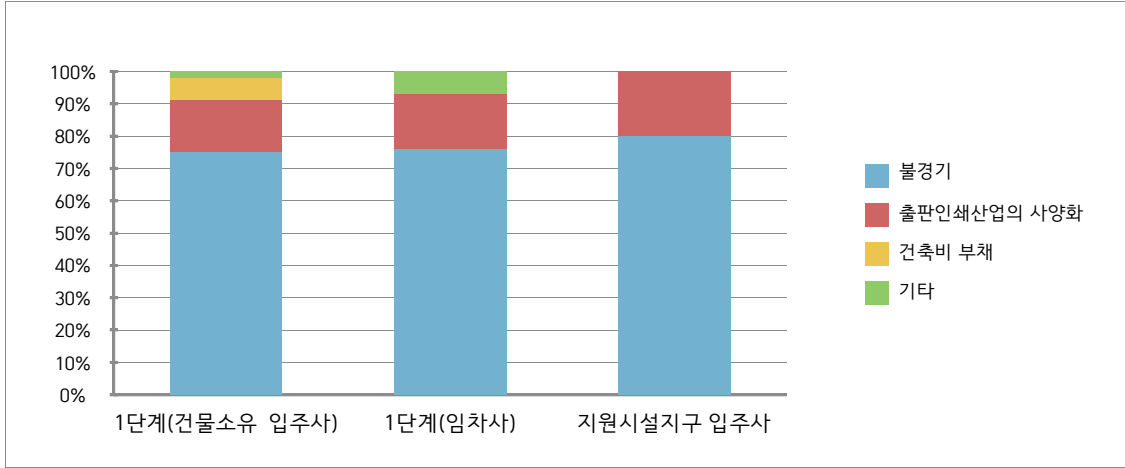


7) 경영 악화의 원인

〈표 3-8〉 출판도시 입주사 경영 악화의 원인

구분	1단계				지원시설 지구 입주사	
	건물 소유 입주사		임차사		빈도(개)	비율(%)
	빈도(개)	비율(%)	빈도(개)	비율(%)		
불경기 (경제 전반의 위축)	62	74.7	79	76.0	4	80.0
출판인쇄산업의 사양화	13	15.7	18	17.3	1	20.0
건축자금 부채	6	7.2	0	0.0	0	0.0
기타	2	2.4	7	6.7	0	0.0
합계	83	100.0	104	100.0	5	100.0

〈그림 3-6〉 출판도시 입주사 경영 악화의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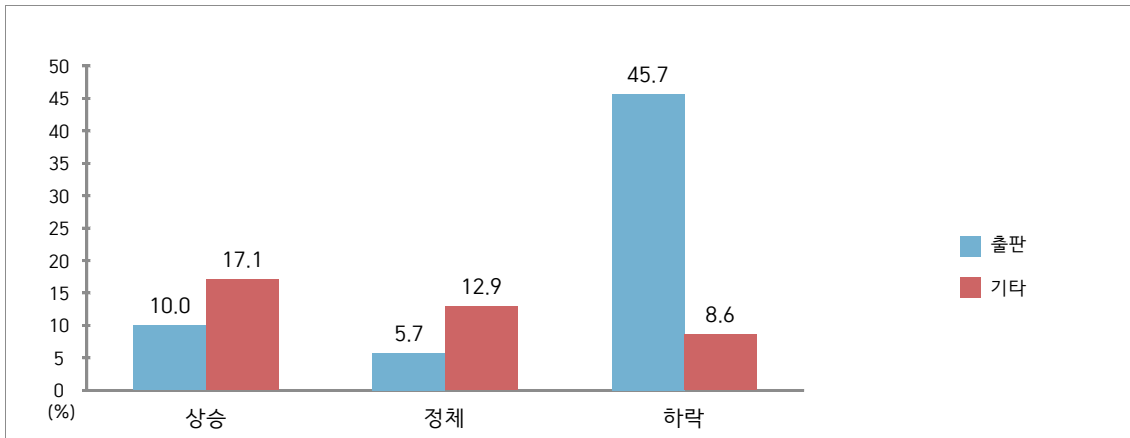


8) 매출액 추이

〈표 3-9〉 1단계 입주사 매출액 추이

구분	상승		정체		하락		합계	
	빈도(개)	비율(%)	빈도(개)	비율(%)	빈도(개)	비율(%)	빈도(개)	비율(%)
1단계 입주사	19 (출판 7/기타 12)	27.1	13 (출판 4/기타 9)	18.6	38 (출판 32/기타 6)	54.3	70	100.0

〈그림 3-7〉 1단계 입주사 매출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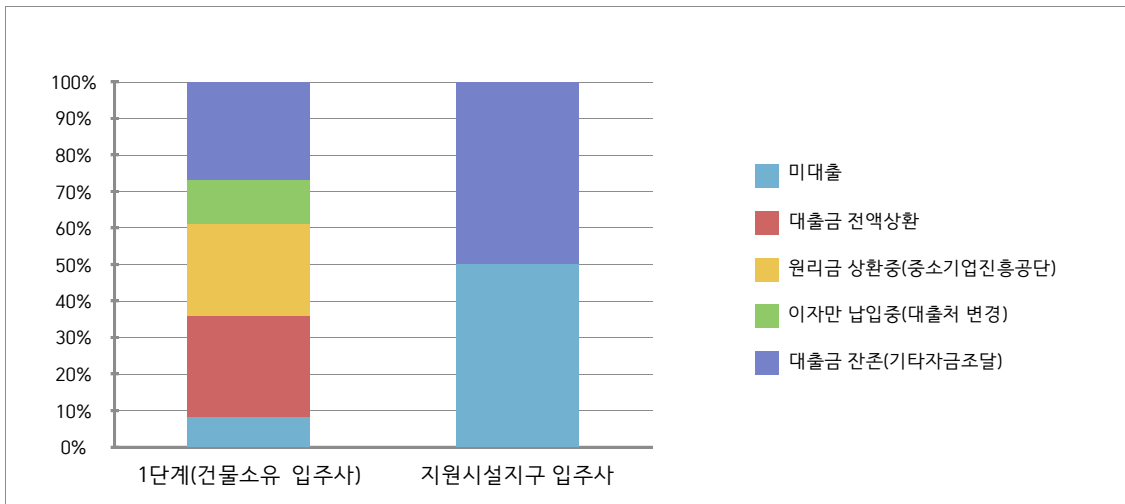


9) 건축자금 대출 현황

〈표 3-10〉 건축자금 대출 현황

구분	1단계 건물 소유 입주사		지원시설부지 입주사	
	빈도(개)	비율(%)	빈도(개)	비율(%)
미대출	7	8.4	2	50.0
대출금 전액 상환	23	27.7	0	0.0
원리금 상환 중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출)	21	25.3	0	0.0
이자만 납입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금융기관으로 대출처 변경)	10	12.0	0	0.0
대출금 잔존 (금융기관, 기타방식으로 자금조달)	22	26.6	2	50.0
합계	83	100.0	4	100.0

〈그림 3-8〉 건축자금 대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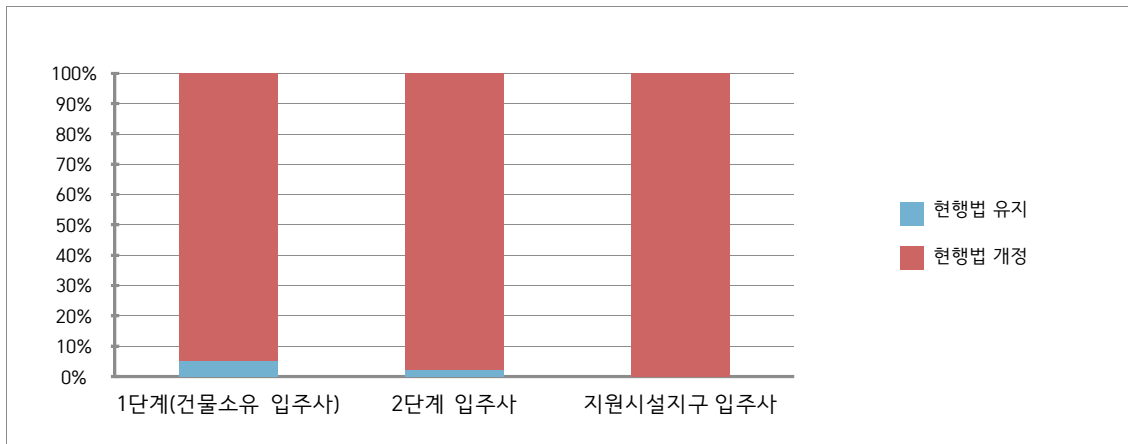
-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타금융기관으로 대출처를 변경한 회사들은 거치기간이 끝난 후 원리금 상환이 부담되어 더 높은 금리 부담을 안으면서 부득이 대출처를 변경한 경우임.

10) 산업단지 관련 법규 개정 필요성

〈표 3-11〉 산업단지 관련 법규 개정 필요성

구분	1단계 건물 소유 입주사		2단계 입주사		지원시설지구 입주사	
	빈도(개)	비율(%)	빈도(개)	비율(%)	빈도(개)	비율(%)
산업단지 관련법 유지	4	4.5	1	1.5	0	0.0
산업단지 관련법 개정 (문화산업 특수성 반영)	84	95.5	65	98.5	5	100.0
합계	88	100.0	66	100.0	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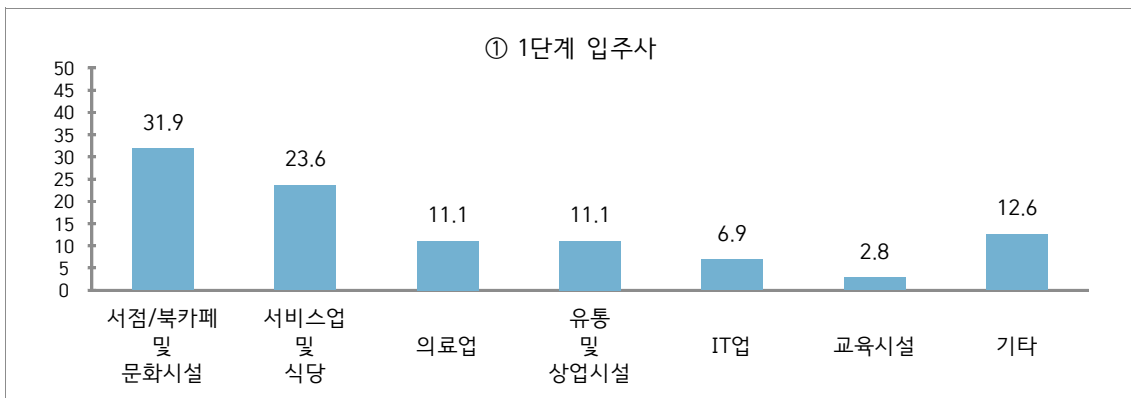
〈그림 3-9〉 산업단지 관련 법규 개정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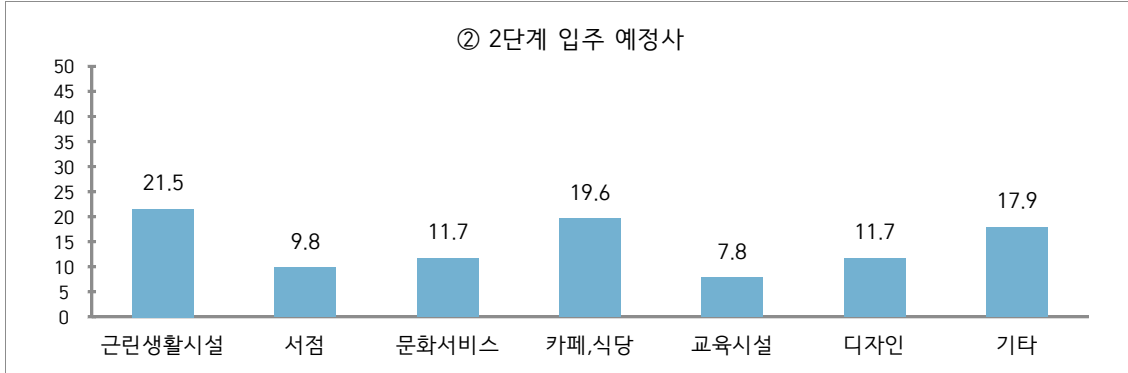
11) 산업시설용지내 확대희망 업종

〈그림 3-10〉 산업시설용지내 확대희망 업종

(Base=72, 단위 : %)



(Base=51,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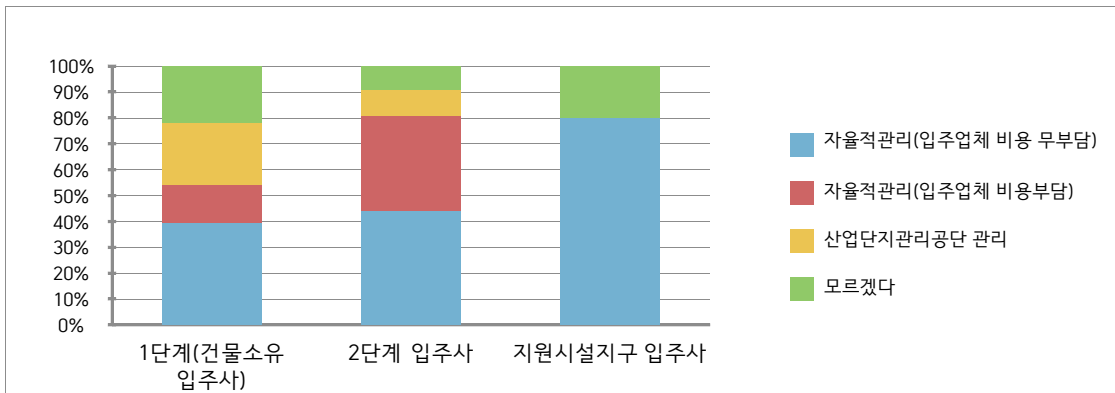
*자유 기술한 내용을 표로 정리

12) 출판도시 관리 방안

〈표 3-12〉 출판도시 관리 방안

구분		1단계 건물 소유 입주사		2단계 입주사		지원시설지구 입주사	
		빈도(개)	비율(%)	빈도(개)	비율(%)	빈도(개)	비율(%)
관리권 양도 자율적 관리	입주업체 비용 무부담	32	39.0	39	57.4	4	80.0
관리권 양도 자율적 관리	입주업체 비용 부담	12	14.6	12	17.6	0	0.0
산업단지관리공단 관리 (현행 관리 방법)		20	24.4	9	13.2	0	0.0
모르겠다		18	22.0	8	11.8	1	20.0
합계		82	100.0	68	100.0	5	100.0

〈그림 3-11〉 출판도시 관리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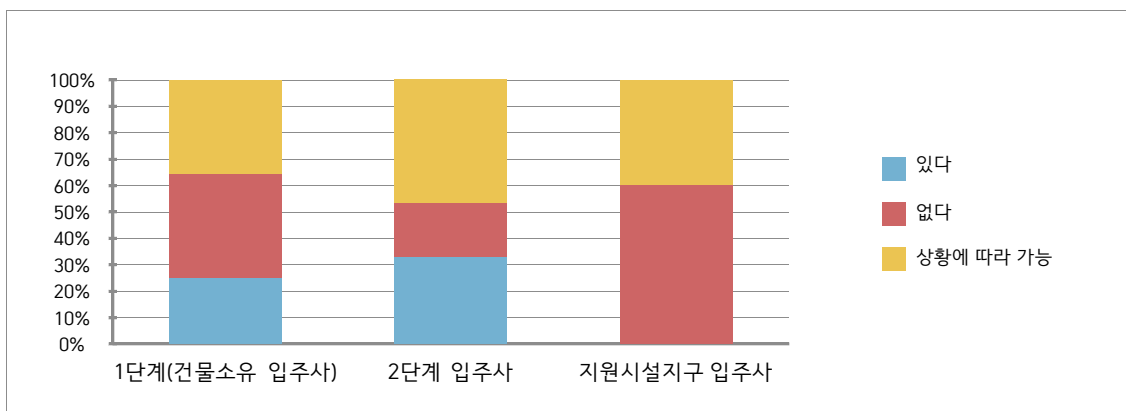


13) 책방 개설

〈표 3-13〉 책방 개설 용의

구분	1단계 건물 소유 입주사		2단계 입주사		지원시설지구 입주사	
	빈도(개)	비율(%)	빈도(개)	비율(%)	빈도(개)	비율(%)
있다	22	25.3	22	33.3	0	0.0
없다	34	39.1	13	19.7	3	60.0
현재 없으나 상황에 따라 가능	31	35.6	31	47.0	2	40.0
합계	87	100.0	66	100.0	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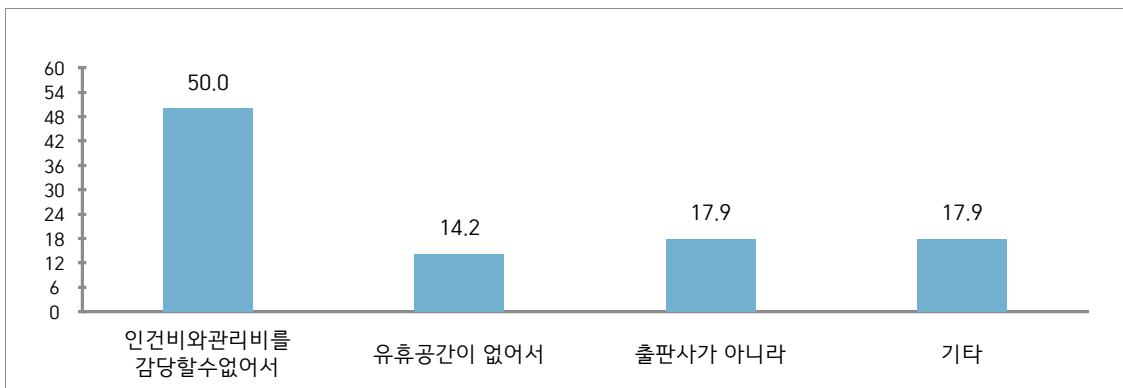
〈그림 3-12〉 책방 개설 용의



14) 책방 미개설 이유

〈그림 3-13〉 책방 미개설 이유

(Base=28,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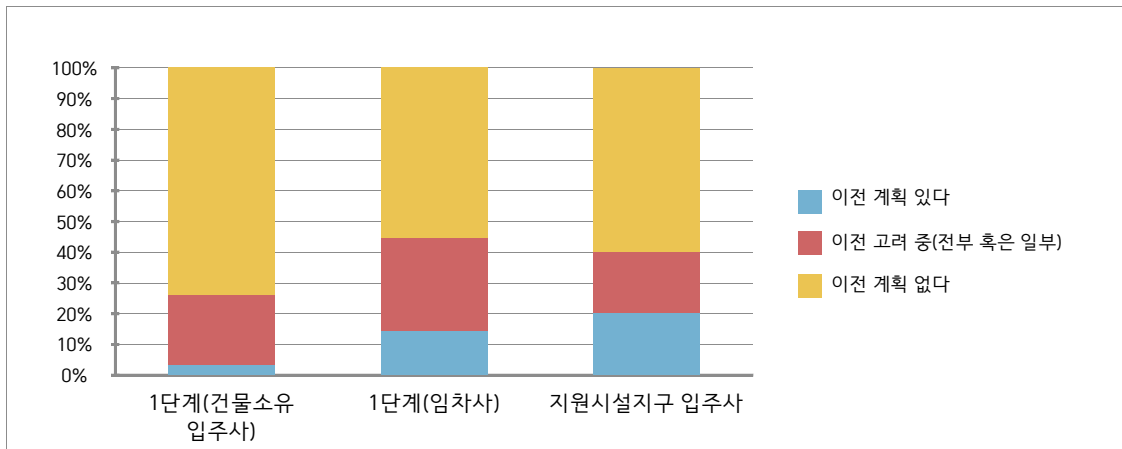


15) 회사 이전 계획

〈표 3-14〉 회사 이전 계획

구분	1단계				지원시설지구 입주사	
	건물 소유 입주사		임차사		빈도(개)	비율(%)
	빈도(개)	비율(%)	빈도(개)	비율(%)		
이전 계획 있다	3	3.4	15	13.9	1	20.0
이전 고려 중 (전부 혹은 일부)	20	23.0	33	30.6	1	20.0
이전 계획 없다	64	73.6	60	55.5	3	60.0
합계	87	100.0	108	100.0	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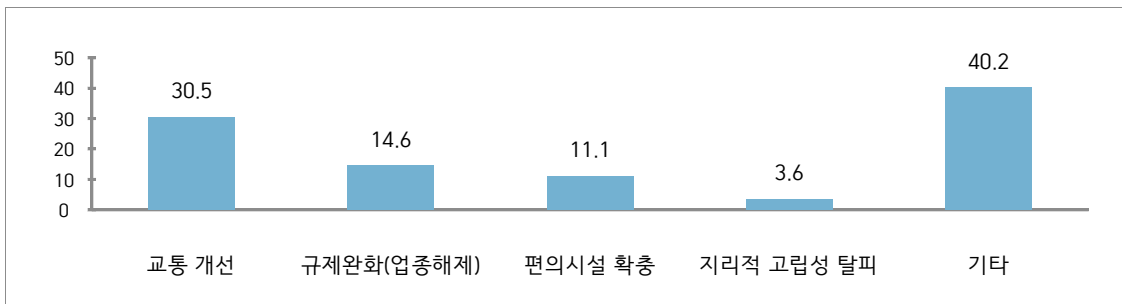
〈그림 3-14〉 회사 이전 계획



16) 출판도시 활성화를 위한 의견 및 정책대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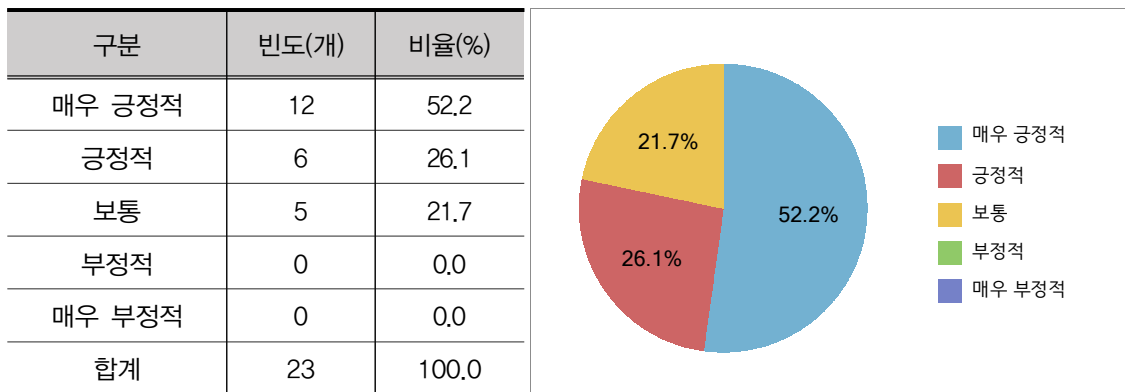
〈그림 3-15〉 출판도시 활성화를 위한 자유의견

(Base=82,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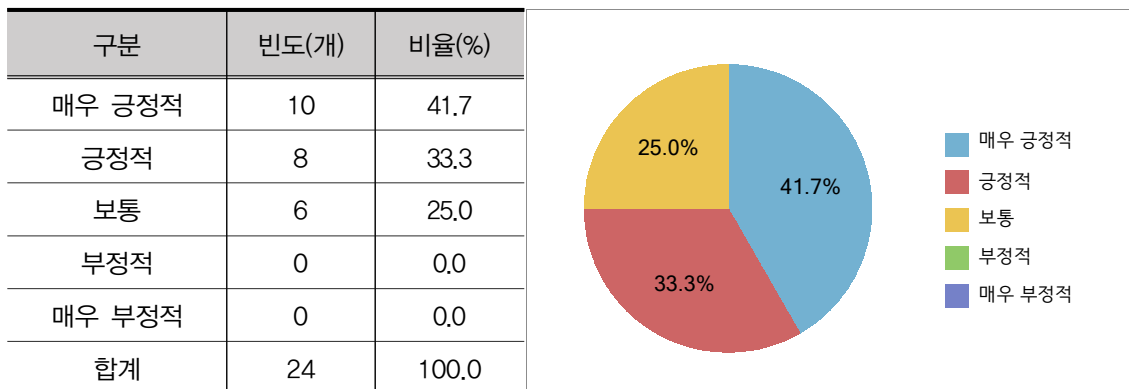


17) 출판도시 책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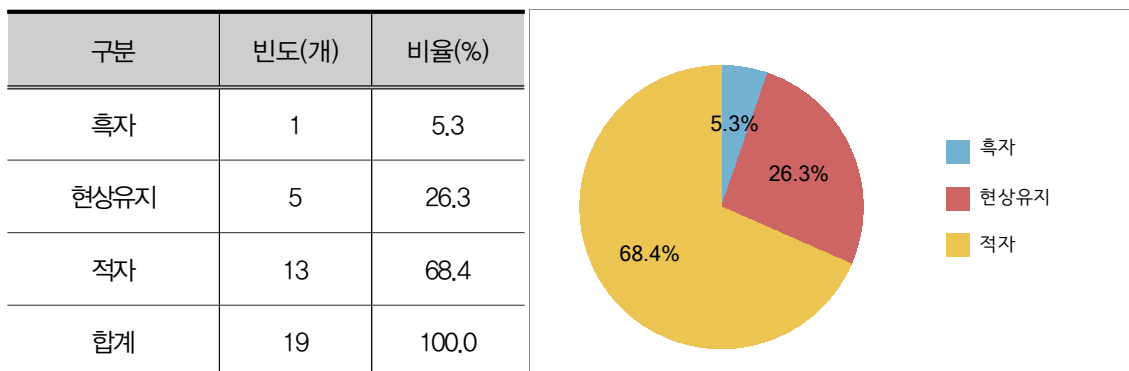
〈표 3-15〉 책방 개설 및 책방거리 조성의 출판도시 활성화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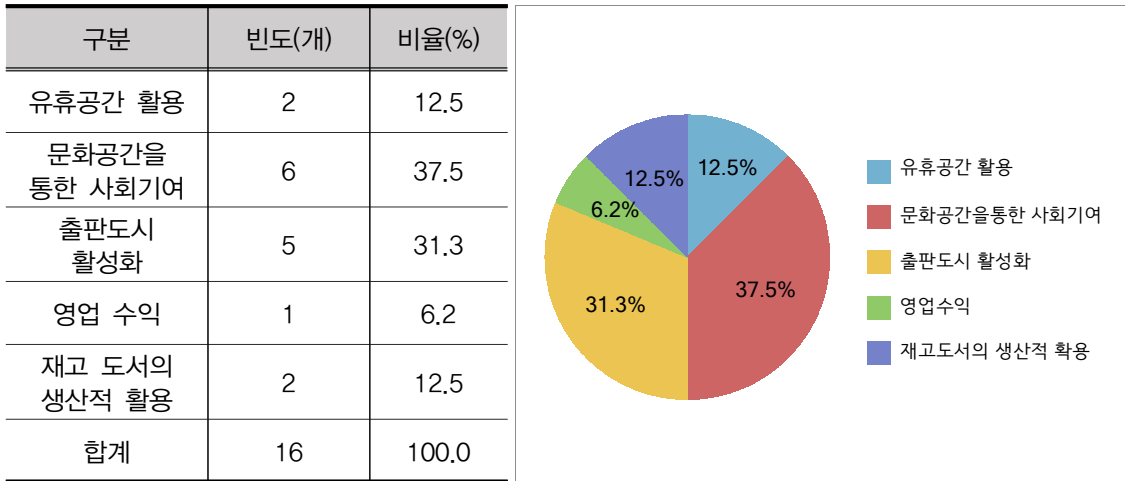
〈표 3-16〉 출판도시내 책방의 문화행사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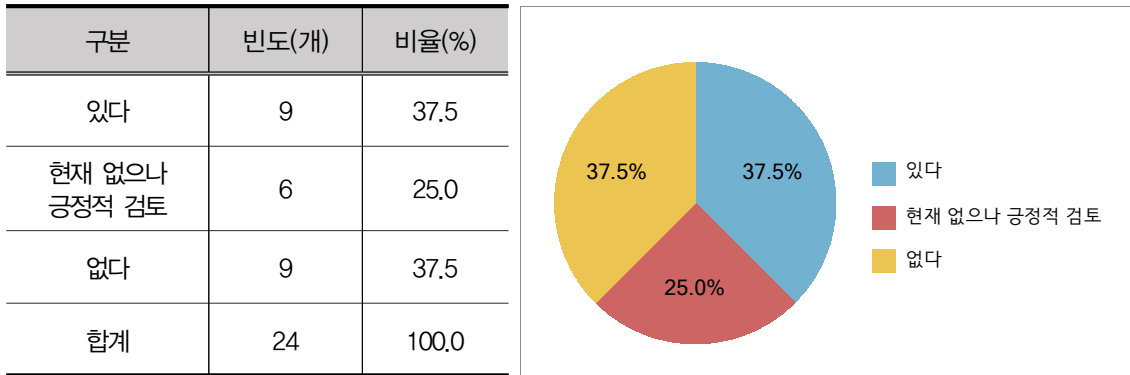
〈표 3-17〉 책방 경영 현황



〈표 3-18〉 책방 개설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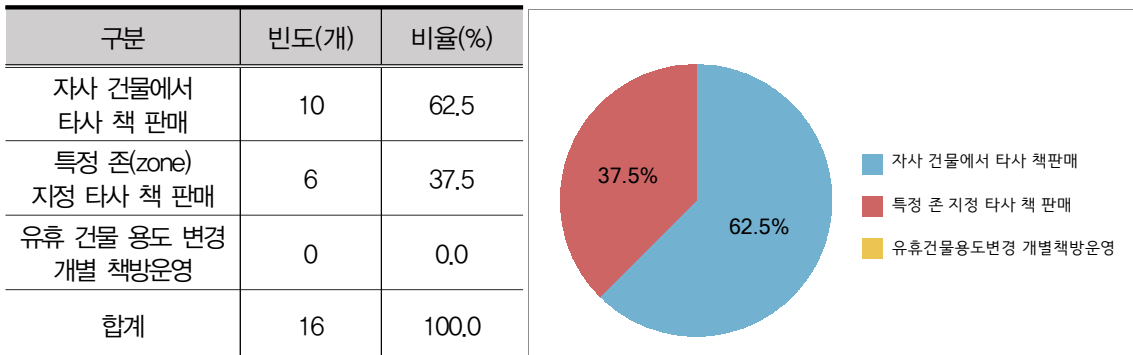


〈표 3-19〉 타사 출판물 취급 판매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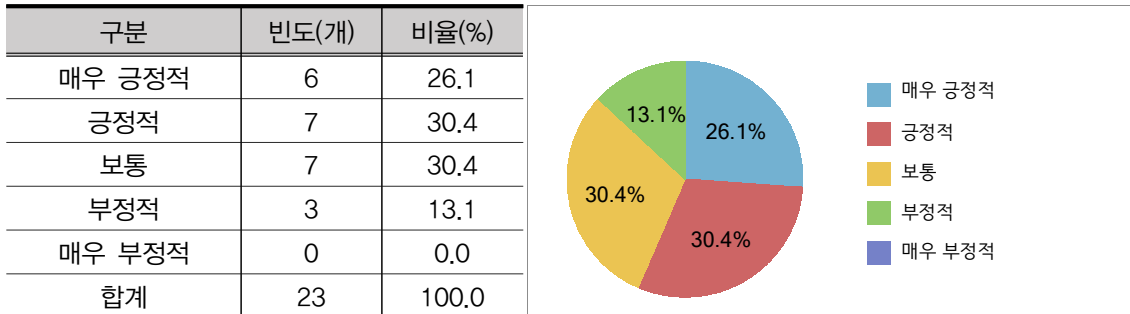


○ 타사 출판물을 취급 판매하려는 이유는 독자들의 선택권 확대 및 고객 만족 증진, 상품도서의 다양성 확보, 출판도시 활성화, 판매 증진의 순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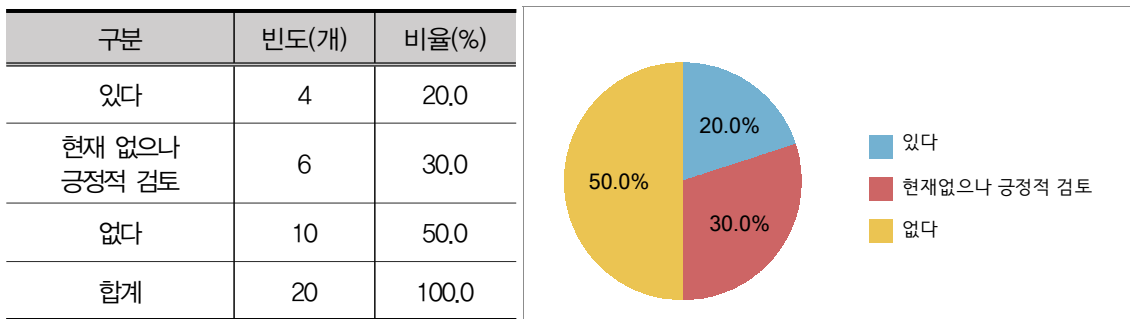
〈표 3-20〉 타사 출판물 판매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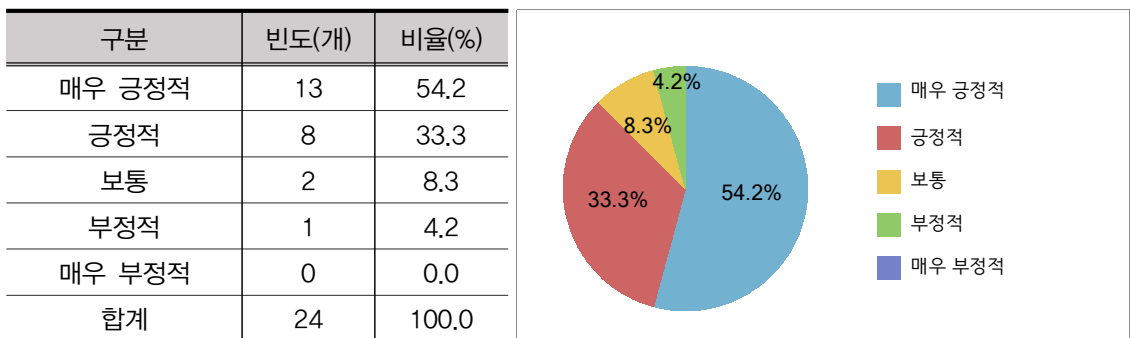
〈표 3-21〉 출판도시내 헌책방 유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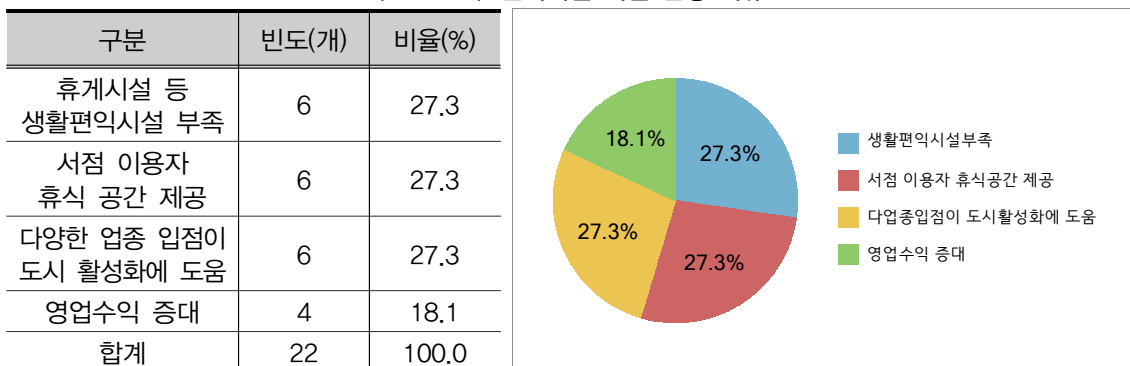
〈표 3-22〉 헌책방 개설 및 운영(임대 포함) 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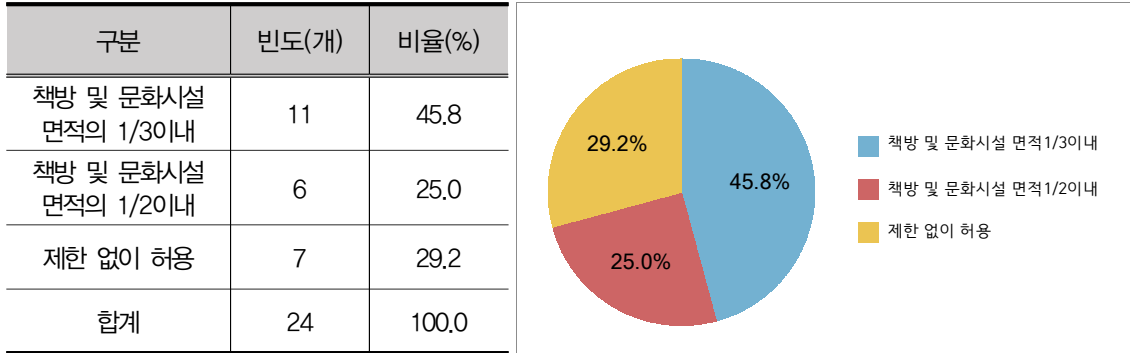
〈표 3-23〉 책방내 편의시설 허용



〈표 3-24〉 편의시설 개설 찬성 이유



〈표 3-25〉 북카페 허용시의 허용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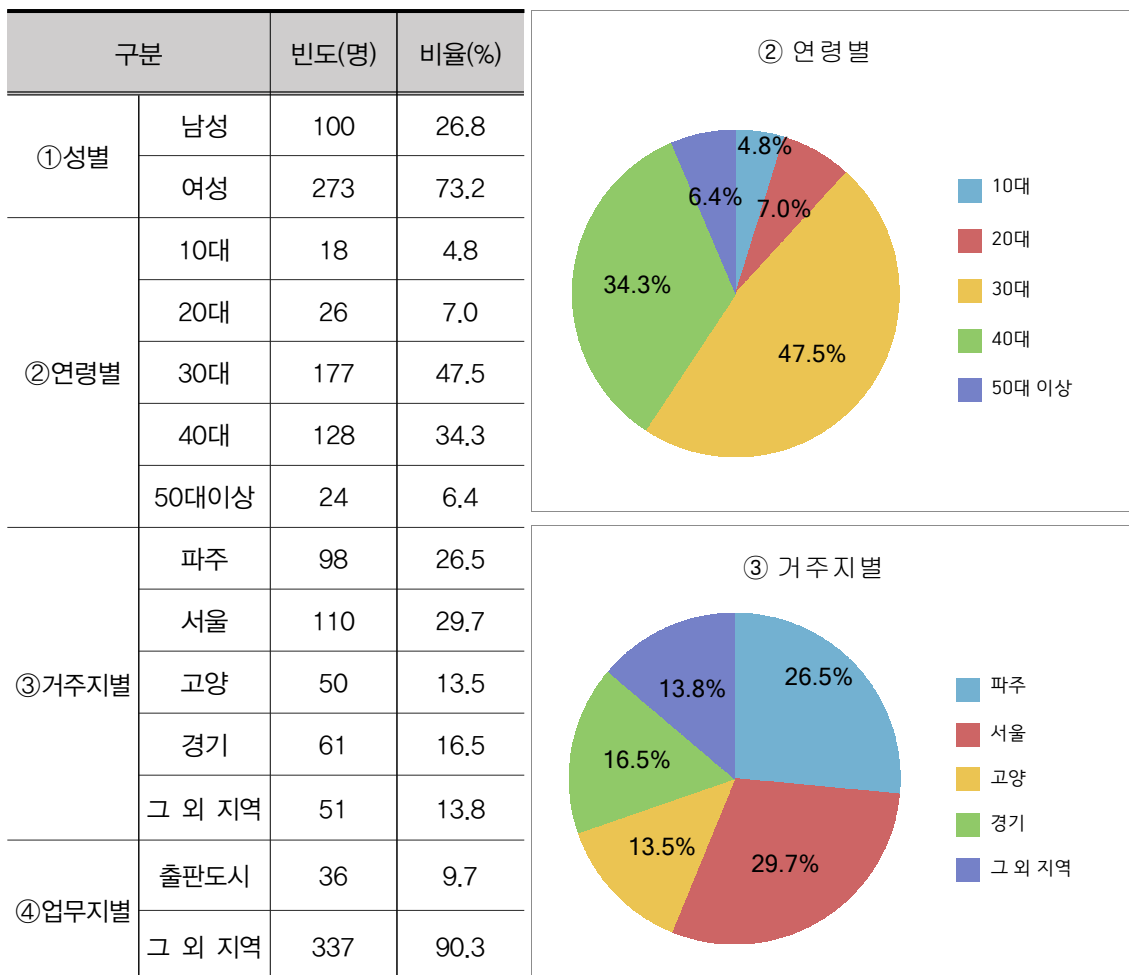
18) 책방거리 조성사업 및 책방 운영에 대한 자유 의견

- ▶ 서점을 운영중인 출판사 대표자의 관심과 지속적 운영 의지가 있어야 함
- ▶ 업종제한이 해제되어야 책방거리가 다양화되며 독자들이 오게 됨
- ▶ 환경/ 편의시설/ 먹거리 문화공간 등 복합공간 활성화로 테마거리 조성해 출판도시 이미지를 문화+책+기록의 열린 공간으로 확대해야 함
- ▶ 책방을 찾는 독자를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필요
- ▶ 고객들의 편의시설 확보가 우선되어야 함

3. 출판도시 방문객 설문조사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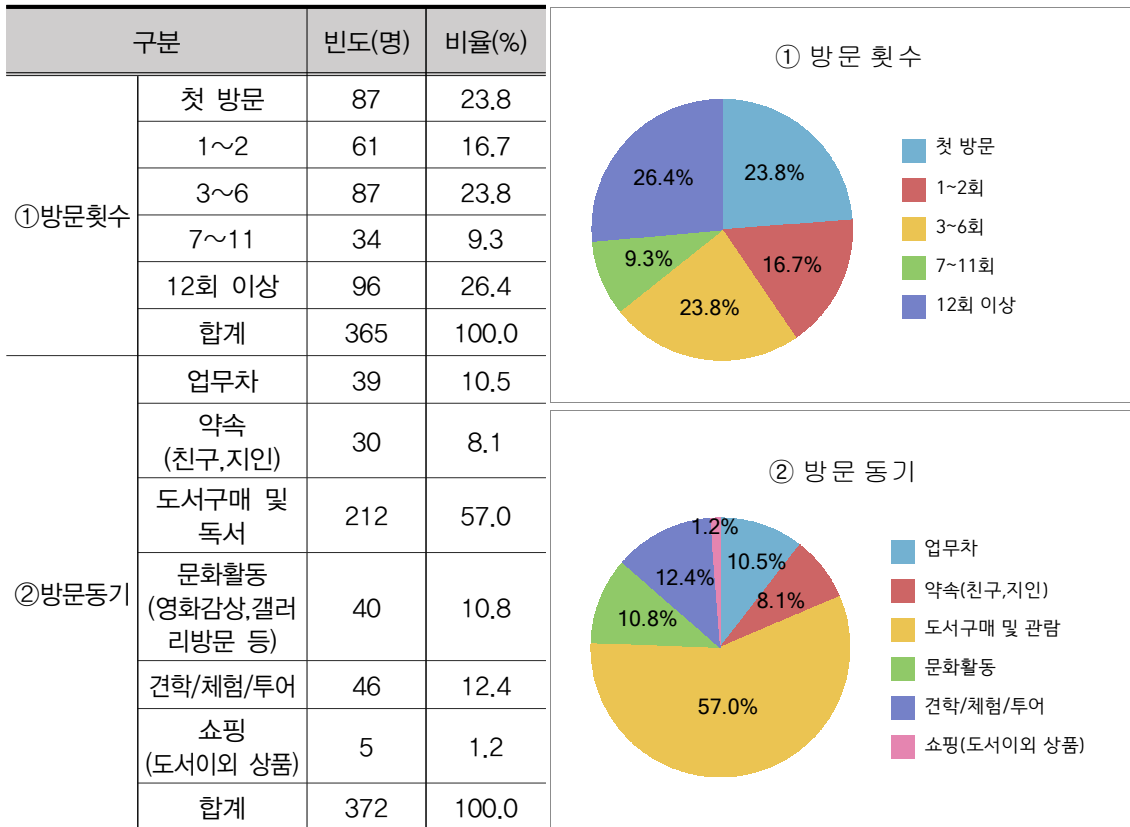
1) 인구 통계학적 분포

〈표 3-26〉 출판도시 방문객 인구 통계학적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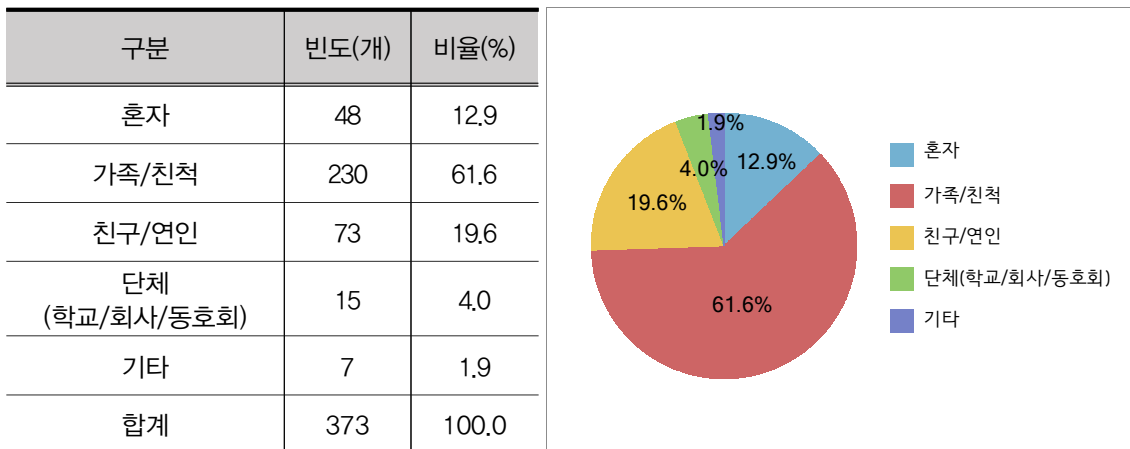
2) 연간 방문 횟수 및 동기

〈표 3-27〉 연간 방문 횟수 및 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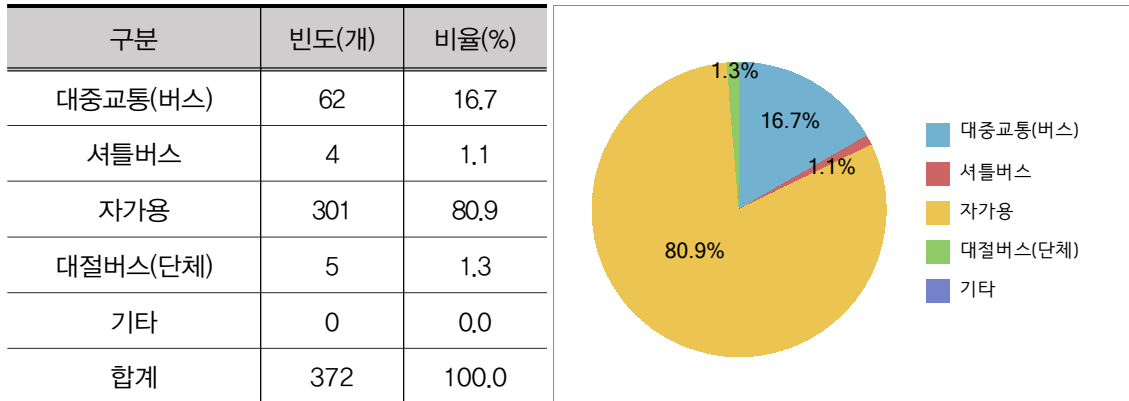
3) 동반객 유형

〈표 3-28〉 동반객 유형 분포



4) 이용 교통수단 유형

〈표 3-29〉 방문객 이용 교통수단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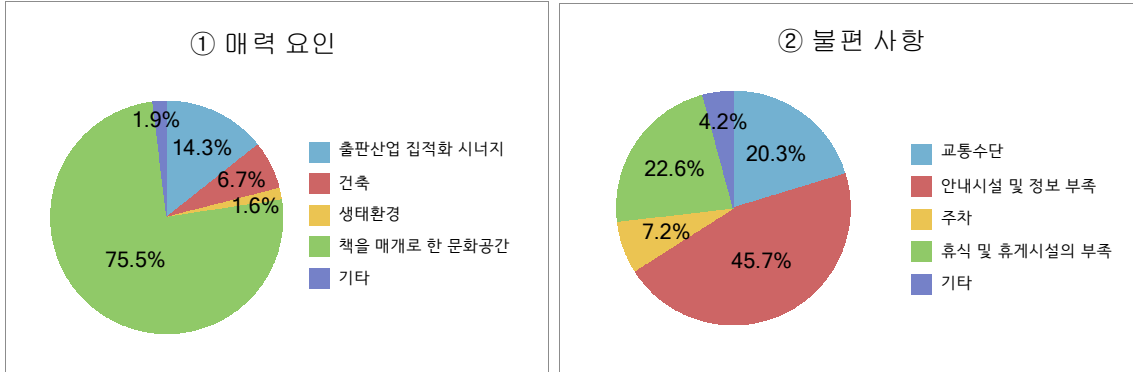


5) 출판도시의 정점 및 불편사항

〈표 3-30〉 출판도시의 최대장점 및 불편사항(방문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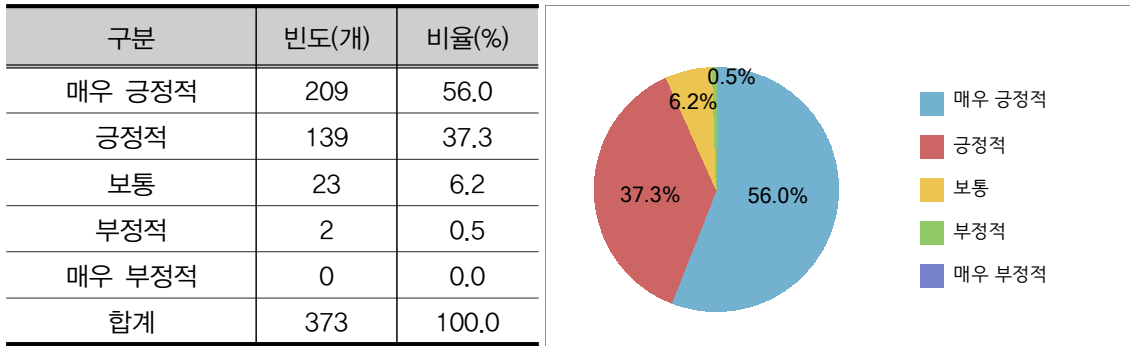
구분		빈도(명)	비율(%)
①최대장점	출판 산업 집적화에 의한 시너지	53	14.3
	건축	25	6.7
	생태환경	6	1.6
	책을 중심으로 특성화된 문화공간	280	75.5
	기타	7	1.9
	합계	371	100.0
②불편사항	교통수단	73	20.3
	안내시설 및 정보 부족	164	45.7
	주차	26	7.2
	휴식 및 휴게시설의 부족	81	22.6
	기타	15	4.2
	합계	359	100.0

〈그림 3-16〉 출판도시의 최대장점 및 불편사항(방문객)



6) 책방거리 조성 및 문화행사 개최

〈표 3-31〉 책방거리 조성 및 문화행사 개최에 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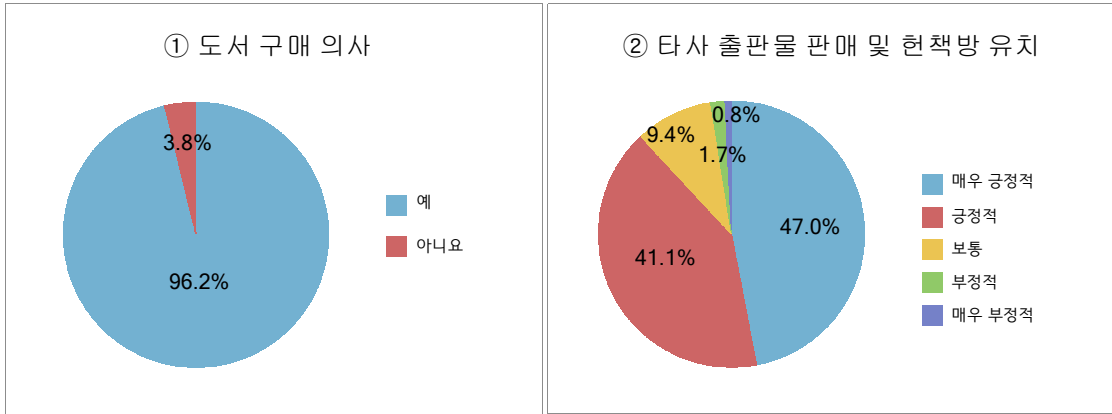


7) 도서 구매 의사 및 타사 출판물 판매에 대한 견해

〈표 3-32〉 도서 구매 의사 및 타사 출판물 판매에 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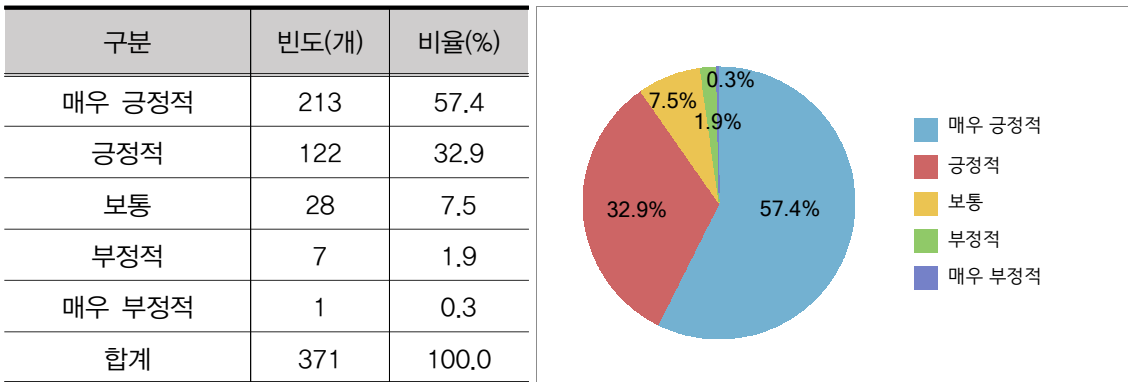
구분	빈도(명)	비율(%)	
①도서구매 의사	예	356	96.2
	아니오	14	3.8
	합계	370	100.0
②타사 출판물 판매 및 현책방 유치	매우 긍정적	175	47.0
	긍정적	153	41.1
	보통	35	9.4
	부정적	6	1.7
	매우 부정적	3	0.8
	합계	372	100.0

〈그림 3-17〉 도서 구매 의사 및 타사 출판물 판매에 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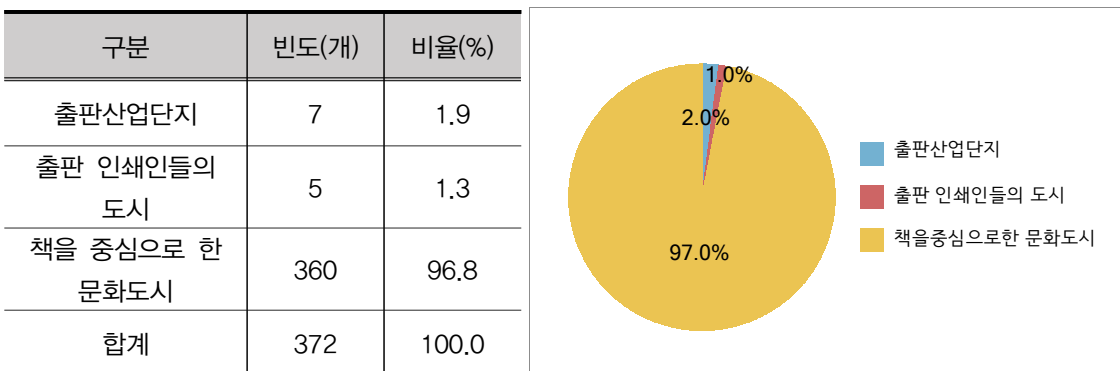
8) 서점내 북카페 개설에 대한 견해

〈표 3-33〉 서점내 북카페 개설에 대한 견해



9) 출판도시의 미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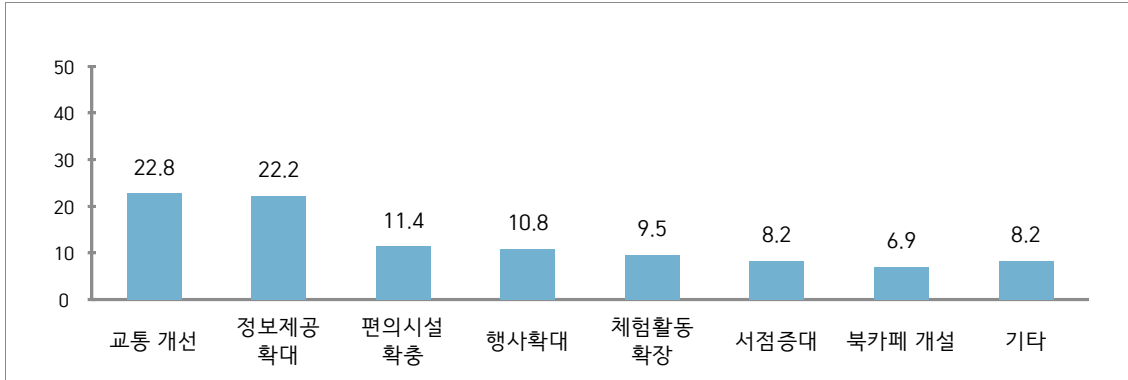
〈표 3-34〉 출판도시의 미래상



10) 출판도시 발전을 위한 개선사항

〈그림 3-18〉 출판도시 발전을 위한 개선사항

(Base=158, 단위 : %)



제4절 파주출판도시의 구조적 문제점 및 도전과제

1. 21세기형 정보지식 창출 산업 클러스터의 완성

1) 출판연관산업 가치사슬 분석

출판도시는 산업단지다. 1단계의 중점 유치업종은 출판업과 인쇄 및 인쇄관련산업이며, 대형 출판물 유통사와 몇 개의 지업사가 동지를 틀었다. 출판물의 제조라는 가치사슬에서 보자면 출판물의 기획에서부터 편집, 인쇄 및 제본 등의 제작과정, 그리고 유통부문까지가 출판도시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출판도시에 기업이 입주하기 시작한 지 10여 년이 흐른 지금 출판도시내 업체들은 어떤 가치사슬 생태계를 구축하였을까? 전후방 연관산업과 관련한 거래처 가운데 출판도시내 업체의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를 묻는 설문에 응답한 총 214명의 응답자 가운데 50.9%인 109명이 보통을 선택하였고, 높다고 응답한 수자와 낮다고 응답한 수자가 거의 같은 수치로 나타났다. 4개사 가운데 1사 정도인 전체의 24.3%만이 출판도시내에 위치한 연관업체와 비교적 높은 수준에서 거래관계를 맺고 있어, 기대만큼의 가치사슬 생태계를 구축하였다고 보기는 힘들다. (p.38 <표3-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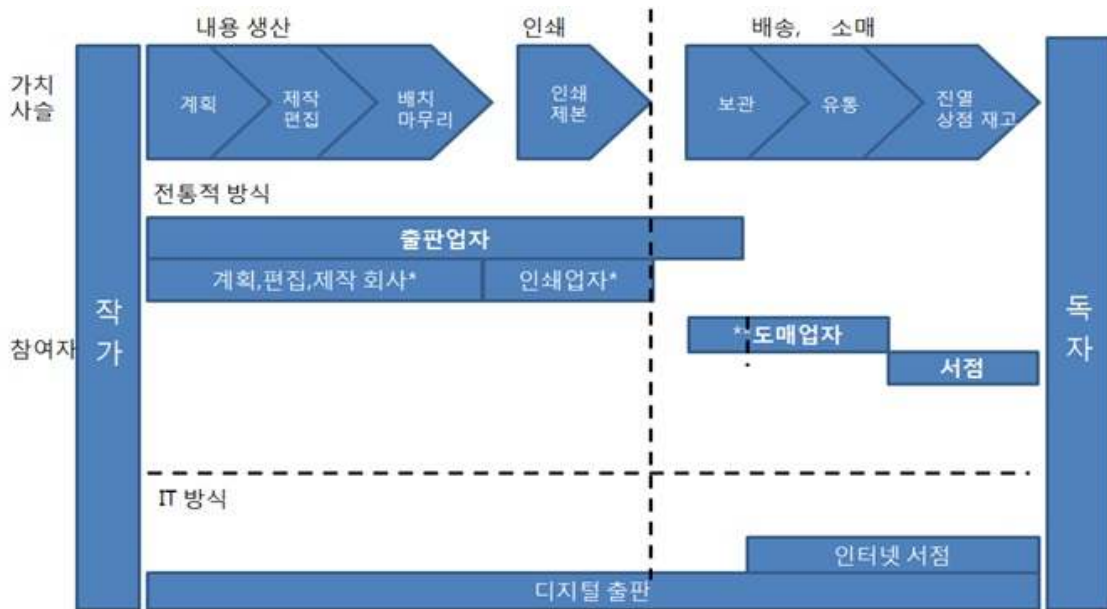
출판물의 유통은 기본적으로 '콘텐츠 생산 → 편집, 디자인 → 인쇄, 제본 → 도매서점 → 소매서점 → 독자'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콘텐츠 생산의 주체는 대부분 출판사로서 필자 혹은

작가와의 계약을 통해 출판 콘텐츠를 만들어낸다. 출판 콘텐츠는 인쇄, 제본 과정을 거쳐 책의 형태로 출판되며, 도매서점과 소매서점을 경유해 독자에게 다다른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출판도시에 원주 토지문화관이나 서울 연희창작센터처럼 작가들이 상주할 수 있는 다량의 집필실을 마련해 기획 및 아이디어 부문의 가치사슬을 확장하는 일과 책방거리 조성사업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바와 같이 출판사가 운영하는 서점을 통해 독자들과의 대면공간을 마련함으로써 독자들의 크리티크이 새로운 기획으로 피드백되는 구조, 곧 독자에게까지 가치사슬을 확장하는 구조가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이같은 구조의 창출은 출판도시내 출판사들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한국 출판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전자책 산업의 가치사슬은 전자책 콘텐츠 생산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적 특성을 반영해 한 사업자가 복수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일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콘텐츠 생산 단계에서 출판 주체는 기존 책, 잡지, 신문의 발행자이자 순수 전자책 사업자일 수도 있다. 자가출판도 가능해 작가는 콘텐츠 생산자와의 계약을 통해 전자책을 생산할 수 있으며 자신이 직접 유통부문을 담당할 수도 있다.

〈그림 3-19〉 출판산업 가치사슬



*출처: Adapted from METI(2002) Current Situation in the Publishing Industry, Tokyo.

외국에서는 전자책 기술제공 업체들과 대형 출판사, 서점 등이 다투어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으며, 솔루션 업체 및 망사업자 등과의 제휴도 활발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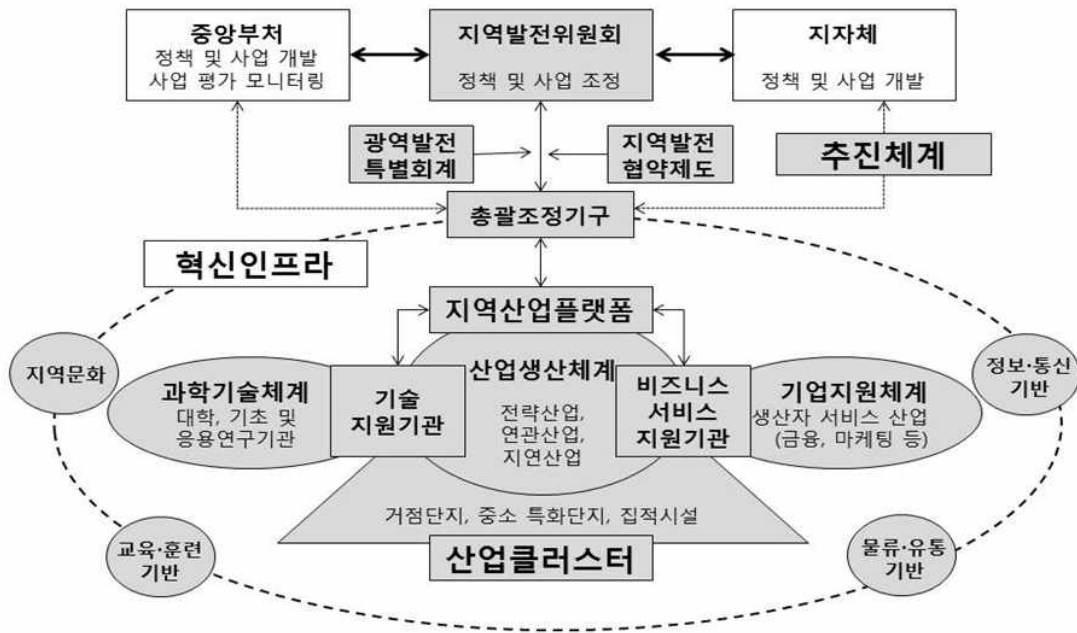
정부는 ‘전자출판 및 신성장 동력 육성’ 을 <출판문화산업진흥5개년계획>의 5대 정책과제

의 하나로 설정해 지속적인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같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출판산업이 밀집해 있는 출판도시에 전자출판연구소 및 지원센터를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산업 클러스터 분석

파주출판도시는 세계에 유례가 없는 출판산업 클러스터라고 수식되고 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클러스터가 아니다. 관련기업들을 한곳에 모아놓는다고 클러스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입주기업들이 정보와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갖추어져야 하고, 또한 생산만이 아니라 연구개발, 교육, 금융, 행정지원, 컨설팅, 판매, 마케팅까지가 한곳에 집적되어야 한다.

〈그림 3-20〉 산업 클러스터



파주출판도시에는 출판사와 인쇄연관업체, 그리고 지원시설부지에 들어와 있는 일부 상업 시설만이 존재할 뿐, 산업 클러스터의 기본요소인 지원기관이 전무하다시피 하다. 출판유통의 현대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며 출범한 출판도시내 유일의 대형 출판유통회사는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고,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도 단순 사무실 기능에 머무는 수준이다.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에 구축된 정보도서관은 예산 부족으로 겨우 명맥을 잇고 있을 뿐, 출판도시 입주사들의 기대치를 따라갈 수 없어 이용자가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그나마 올해 들어 소규모 디자인 교육기관(파주타이포그래피학교 : PaTI)과 온북TV가 입주한 것이 작은 변화의 시작일 수 있다. 외국의 성공한 클러스터들은 높은 수준의 교육과 문화 등 각종 사회 인프라까지를 구비하고 있다. 출판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출범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있어야 할 곳은 다름 아닌 출판도시다.

출판문화산업 클러스터로서 출판도시에 빠져 있는 미싱 링크를 찾아 채우는 일, 그리고 입주하는 기관들이 출판도시의 비전을 이해하면서 출판도시 네트워크 속에서 제대로 기능하게 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다.

3) 관리기본계획과 입주업종

파주출판도시는 도시의 내재적 발전이 가능한 구조에서 큰 한계를 안고 있다. 그것은 산업단지라는 제약이다. 산업단지가 축복이 되고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않다. 출판산업이 문화산업이라는 점에서 볼 때, 또 세계적으로 문화창조산업 클러스터들이 도심을 기반으로 자유로운 공기를 호흡하며 제도적 제약 없이 발전해가는 트렌드에 비추어볼 때, 출판도시의 산업단지 관련제도는 문화산업의 특성을 살린 개성있는 발전전략은커녕 오히려 발전을 가로막는 족쇄로 느껴지는 실정이다.

출판도시 관리기본계획은 단지조성과 집적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반 산업단지의 틀을 그대로 원용한 것이다. 단지조성이 완성된 지 10여 년이 흐른 이제는 출판도시 조성의 강력한 목표였던 문화산업의 집적거점 및 문화중심지 형성을 위해 관리기본계획에서부터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대표적인 것으로 산업시설구역내 입주허용 업종이 출판산업의 특징을 반영하는 것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현재 산업시설구역 내에 입주 가능한 주요 시설 및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펄프·종이 및 판지 제조업(171), 출판업(581, 592), 상업인쇄 및 인쇄관련 서비스업(181), 기록매체 복제업(182), 소프트웨어 자문·개발 및 공급업(582), 영화·방송 및 기타 공연·전시 관련 산업(591, 592, 601, 602, 901, 902) 등이다.

그런데 서적 소매업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의하면 문화산업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산업시설구역 입주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반면 문화산업 가운데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한국표준산업분류 591)에 대해서는 기획에서 제작 및 관련서비스업, 배급 및 상영에 이르는 전단계를 허용하고 있다. 공연과 전시 부문도 재화나 서비스를 최종 소비자에게 서비스하는 기능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출판도시내 최대 특화업종인 출판부문에 대해 최종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출판도시 입주사의 대부분은 서점조차 개설할 수 없는(현재는 자사 도서의 전시 판매만 가능) 현실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산업단지 관련법의 개정이나 개발계획 및 관리

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설문에 임대사를 제외한 159개사에서 답변에 응하였는데, 절대다수인 154사(96.9%)가 ‘문화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답하였다. 나머지 5사만이 ‘현재의 산업단지 관련법은 준수되어야 한다’고 답하였다.(p.43 <표 3-11> 참조)

한편 본연구를 위해 출판도시에서 책방을 운영하고 있거나 개설할 용의가 있다고 답한 업체를 대상으로 2차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책방 개설과 책방거리 조성이 출판도시 활성화에 도움된다고 답한 비율은 전체의 78.3%, 파주북소리 같은 문화행사에서 책방들이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답변은 75.0%였다. (p.47 <표 3-15> 및 <표 3-16> 참조) 두 설문 모두 부정적인 답변은 전무하였다. 경영 현황이 대부분 적자(흑자 5.3%, 적자 68.4%)인데도 책방을 개설해 운영하는 이유는 ‘문화공간을 만들어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27.6%)와 ‘출판도시 활성화를 위해’ (31.0%) 등의 공적인 이유가 경제적 동기보다 우선하고 있었다.(p.47 <표 3-17> 및 p.48 <표 3-18> 참조)

타사 도서의 판매가 가능해질 경우 타사 출판물을 판매할 의향에 대해서는 답변이 반반으로 서(있다 37.5%, 없다 37.5%),(p.48 <표 3-19>) 판매가 허용된다고 해서 출판사들이 운영하는 출판도시 책방의 성격이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임을 보여주었다. 타사 출판물을 취급하려는 이유는 독자들의 선택권 확대 및 다양성 확보 등을 꼽았다. 현책방 유치에 대해서는 긍정적 의견(56.5%)이 부정적 의견(13.1%)보다 우세하였으나, 직접 현책방을 운영할 의지가 있다는 답변은 매우 낮았다(20.0%).(p.49 <표 3-21> 및 <표 3-22> 참조)

방문객들은 타사 출판물의 병행 판매 및 현책방 유치에 대해 88.1%(372명 가운데 328명)가 긍정적이었으며, 부정적 의견은 2.5%에 머물렀다.(p.54 <표 3-32>)

한편 출판도시 입주사를 대상으로 출판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시설내의 업종확대가 가능하다면, 무슨 업종이 허용되는 게 바람직한지 희망업종을 적어내도록 하였다. 제한 없이 기술할 수 있는 관계로 다양한 답변이 나왔는데, 지원시설부지에 입주해 있는 5사를 포함한 1단계 입주 72사 가운데 23사가 서점/북카페 및 문화시설(31.9%), 17사가 서비스업 및 식당(23.6%), 8사가 의료업(11.1%), 8사가 유통 및 상업시설(11.1%), 5사가 IT(6.9%), 2사가 교육시설(2.8%)을 희망하였다. 2단계 입주예정사에서는 근린생활시설(21.5%), 카페/식당(19.6%), 문화서비스(11.7%), 디자인(11.7%), 서점(9.8%), 교육시설(7.8%) 순으로 답변이 나왔다.(p.43 <그림 3-10> 참조)

출판도시 입주사들의 요구를 전부 수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도시가 완성되고 나서 10여 년 운영을 하고 난 다음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라는 점, 그리고 서점 개설 및 다양한 문화행사를 치르면서 나온 문화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의견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출판도시의 민원을 해결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향후 산업단지 정책의 전향적 실마리를 풀어간다는 차원에서도 진지하게 경청할 필요가 있다.

출판산업은 출판사를 매개로 저자와 독자에게까지 가치사슬이 확장되는 특수한 산업이라는 점을 위에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출판도시의 서점은 바로 그러한 가치사슬 고리를 대면적인 관계로 만들어주는 매개의 장으로서, 문화산업의 교류와 소통의 공간인 것이다. 그러한 교류와 소통이 활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유있는 만남의 장소가 필요하고 음료 서비스가 필수적이다. 상업지역 내에 입지한 북카페는 세련된 휴게음식점에 불과할 수 있지만 출판사 사옥에 입주한 북카페는 현대화된 문화공간으로서의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출판도시내 서점 운영자들은 서점내 일부공간에 편의시설을 허용하자는 의견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전체의 87.5%가 긍정적인 답변을 보인 것이다.(p.49 <표 3-23> 참고)

편의시설을 개설해야 하는 이유로는 ‘출판도시내에 휴게시설 등 생활편익시설이 부족해서’와 ‘서점 이용자들에게 실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그리고 ‘다양한 업종이 입점하는 것이 도시 활성화에 도움이 되므로’에 각각 27.3%씩을 응답해 ‘영업수익 증대에 필요하기 때문’(18.1%)이라는 경제적 동기보다 공적인 동기가 우선함을 보여주었다.(p.49 <표 3-24>) 방문객들 역시 서점내 일부공간을 북카페로 만드는 의견에 대해 절대다수인 90.3%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p.55 <표 3-33>)

한편 서점 운영자들은 북카페 허용 기준에 대해 일정 정도 제한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책방 및 문화시설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하자는 의견이 45.8%, 2분의 1로 제한하자는 의견이 25.0%였다.(p.50 <표 3-25>)

출판도시입주기업협의회 회원들은 지난 2월25일 총회를 개최해 ‘출판도시 활성화를 위한 회원 결의 및 정책건의의 건’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총 6개항으로 구성된 결의안에는 출판도시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가 집약되어 있으며, 소매서점 및 북카페의 허용이 그 가운데 하나를 차지하고 있다.

▶ 출판도시 활성화를 위한 회원 결의 및 정책건의

1. 정부에 출판도시를 발전시키기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요청한다.
2. 출판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한 단기대책으로 출판사 건물내에 소매서점 및 북카페의 허용을 요청하기로 한다.
3. 노선버스 증차, 셔틀버스 운행, 전철 개설, 자유로 진입로 개선 등 교통대책의 전면 개선을 요청하기로 한다.
4. 오염물질 퇴적으로 정화기능을 상실한 갈대샨강의 환경복원을 요청하기로 한다. 책방거리 조성사업 등 출판도시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 중앙정부 차원의 관심과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5. 파주북소리를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육성하는 등 출판도시를 문화가 살아있는 도시로 육성할 것을 요청하기로 한다.

출판도시 관리기본계획은 전통 제조업의 시각에서 마련된 것이다. 그리하여 출판물 중심으로 허용업종이 결정되고 이후 2단계 사업이 진전되면서 영상, 소프트웨어, 방송, 전시, 공연으로의 유치업종 확장이 이루어졌는바, 이를 창조산업 융복합시대에 맞게끔 더욱 확장하자는 목소리도 있다.

지식기반산업 및 콘텐츠 산업이 그 대상이 되겠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컴퓨터 프로그래밍(62), 정보서비스업(63), 연구개발업(70), 전문서비스업(71),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72), 기타 전문, 과학 서비스업(73), 교육서비스업(85) 또는 그 일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4) 산업단지 관리체계

입주기업 지원과 관련하여 파주출판도시의 딜레마 가운데 하나는 출판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시책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의해 주관됨에 비해 관리기관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이라는 사실이다. 그리하여 관리기관이 정부를 대행하여 출판도시내 입주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역할에 한계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파주출판도시의 관리는 입주기업 관리, 공급처리시설 관리 등 제조업 중심의 다른 산업단지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출판도시의 특성 및 입주기업들의 다양한 요구에는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출판도시의 관리방안에 대해 입주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입주업체의 비용 부담이 없다면 관리권을 양도받아 자율적으로 관리’ 하자는 의견이 48.4%(75), ‘입주업체의 비용 부담이 있더라도 관리권을 양도받아 자율적으로 관리’ 해야 한다는 의견이 15.5%(24), ‘현재처럼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관리’ 하자는 의견이 18.7%(29), 모르겠다는 의견이 17.5%(27)의 분포를 보였다.(p.44 <표 3-12> 참조) 아직 본격 공론화가 안 된 시점이어서 입장정리가 안된 회사가 많아 보인다.

출판도시의 조성목적이나 성격은 출판도시 회원사들이 스스로 설정한 것이며, 사업협동조합과 입주기업협의회 등의 자체 조직을 만들어 조성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문화 클러스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20여 년에 걸쳐 협동화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옴으로써 업종의 성격과 현황, 문제점 등을 자체조직이 가장 잘 알고 있으며, 미래의 전망도 전문가 집단인 스스로가 준비하고 세워나가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2. 문화예술의 일상적 향유가 가능한 문화도시의 완성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2단계 협동화사업계획서>는 2단계 사업의 목표를 “출판 도시는 단순한 산업 클러스터의 단계를 넘어, 가장 고등한 형태로 진화한 첨단 문화예술 도시를 꿈꾼다” 며 모두(冒頭)를 시작하고 있다. 이어 “낮에만 활용되는 산업단지를 넘어, 365일

24시간, 원하는 사람 누구나 자연과 문화와 지식을 향유할 수 있는 도시,” “문화와 예술이 상존하고, 도시 내부에 거주하는 사람은 물론 외부인들까지 언제나 이를 향유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자는 것이 출판도시 건설의 기본 이념” 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같은 옹골찬 목표의 제시는 역설적으로 1단계 사업에서 설정한 “국제적 문화정보 교류 및 공연, 전시가 이루어지는 ‘통일한국시대의 문화중심지’ 이자 ‘세계적인 문화 관광명소’로 개발한다” 는 목표에 크게 미달한 것으로 느끼게 한다. 1단계 입주사들은 출판도시의 장점으로 ‘출판산업 집적화에 의한 시너지’ (41사)보다 ‘책을 중심으로 특성화된 문화공간’ (45사)이라는 항목을 더 꼽았다. 방문객들의 다수도 책을 사거나 문화활동을 위해 출판도시를 찾고, 출판도시가 ‘책을 중심으로 한 문화도시’ 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다.

출판도시에는 40여 곳의 서점이 들어서 있다. 물론 내용적으로 들여다보면 그 가운데 활발히 운영되는 곳은 절만 남짓이다. 운영이 어렵기 때문이다. 1단계 입주사 가운데 자사 유희공간에 책방을 개설할 용의가 있느냐는 설문에 ‘현재는 없으나 상황에 따라 가능’ 하다고 답한 곳이 31곳이었다. 2단계 입주 예정사 가운데는 ‘있다’ 고 답한 곳이 22곳, ‘상황에 따라 가능’ 하다고 답한 곳이 31곳이었다.(p.45 <표 3-13> 참조) 잠재적으로 책방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한 편이다. 그러나 책방을 개설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상당수의 입주사들이 인건비와 관리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답하고 있다.(p.45 <표 3-13>)

출판도시의 서점들은 출판물 기획과 관련된 가치사슬 구조 속에서도 중요한 역할이 기대되지만, 한곳 한곳이 문화 사랑방이자 문화 거점이다. 몇몇 서점에서는 매우 활발히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있다. 더 많은 서점들이 문을 열고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출판도시 활성화의 요체 아닐까 싶다. 그런 점에서 2011년부터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책방거리 조성사업은 매우 의미있는 프로젝트이며, 향후 출판도시의 문화 지형도를 바꾸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출판도시에는 몇 개의 박물관과 갤러리들이 들어와 있지만, 아직 존재감은 미미한 편이다. 문화도시로서 출판도시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박물관과 갤러리, 공연장 등 문화시설은 그 수가 늘어갈 것이며, 그 같은 잠재력은 이미 출판도시 속에 내포되어 있다.

출판도시에서 진행되는 가장 큰 규모의 문화행사로 연례 책축제인 파주북소리와 파주어린이책잔치가 있다. 아울러 국제출판포럼과 동아시아 책의 교류 심포지엄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얼핏 보면 행사가 제법 많아 보이지만 출판도시가 갖고 있는 역량과 그릇에 비해 문화 이벤트는 많이 부족하다. 외국의 작은 마을들도 1년에 예닐곱 개의 페스티벌을 치르는 곳이 적지 않다. 문제는 출판도시의 특성에 기발한 차별성이고 행사의 질일 것이다. 또한 행사의 성과가 출판도시의 경쟁력 강화, 활성화,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가 일 것이다. 현재 진행되는 행사의 내용과 규모를 발전시켜 국제적 경쟁력을 갖는 행사로 만들어가는 것이 당면과제이며, 아울러 유니크한 행사를 개발하는 일도 중요해 보인다.

한편 출판도시는 다수의 방문객들이 체험과 견학을 위해 방문하는 곳이기도 하다. 건축을 중심으로 형성된 출판도시의 박물관적 성격과 몇몇 서점 및 박물관에서 개발한 체험 콘텐츠가 출판도시 견학 투어 프로그램의 핵심이다. 최근에는 출판도시 해설사를 양성해 방문 수요에 적절히 대처하고 있다.

이제 출판도시는 질적 변모를 요구받고 있다. 보유한 문화적 자원을 열기설기 엮어 보여주는 데 급급할 게 아니라 문화를 창조해내는 용광로가 되어야 한다. 지식 생산과 유통, 교육의 플랫폼으로 발전해야 하며,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성숙한 시민을 위한 지성적 공간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치밀한 문화전략과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 하겠다.

3. 거주민의 일상생활이 가능한 주거도시의 완성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2단계 협동화 사업계획서〉는 “도시 내부에서 삶에 필요한 모든 의식주와 문화예술 활동이 동시에 충족” 되는 자족도시를 지향한다고 밝히고 있다. 산업단지에서 과연 그같은 자족도시가 가능한지 의문이지만, 목표만큼은 현대도시가 지향해야 할 점을 정확히 지적해주고 있다 할 것이다.

출판도시 1단계 사업은 최소한의 자족도시로서의 기능 도입에도 실패하였다. 의욕적으로 추진하였던 종업원 공동주택 건립 프로젝트가 난관에 봉착하면서 그 땅은 건설업자들에게 불하되었고, 출판도시와는 거리감이 있는 고급 타운하우스로 탈바꿈하였다. 설령 그 땅에 종업원 공동주택이 들어섰다 해도 산업단지가 갖는 근본적 한계인 직주분리 문제가 해결되었을 리 없지만, 자족도시의 목표가 더 멀어진 것만큼은 분명하다.

2단계 사업지구내에도 주거시설구역이 일부 있지만 규모가 작아 주거와 관련해서는 출판도시의 근본적인 변화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 2단계 주거지구를 잘 개발하는 일도 중요하겠고, 운정신도시나 일산신도시처럼 멀리 떨어진 곳과의 추상적인 연계가 아닌 도시적 채널로의 연결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출판도시의 가장 큰 약점의 하나는 밤의 삶이 없다는 것이다. 창조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밤을 낮 삼아 일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하지만 출판도시는 오후 6시만 되면 출판도시를 빠져나가는 행렬이 길게 장사진을 이룬다. 일하는 사람들이 빠져나간 거리는 암흑에 묻혀 죽은 도시가 되고 있다. 출판도시를 창조적인 사람들의 도시, 자족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도시 구조와 관련해 이 문제를 고민하고 풀어야 한다.

입주 초기에 비하면 대중교통의 문제는 많이 개선되었다. 그러나 출판도시가 낮에도 밤에도 이동하는 인구가 많은 도시가 아니다 보니 노선 버스만으로는 아침 저녁의 출퇴근 수요를 충당하기 어렵다. 대중교통을 늘리자 한들 출퇴근 시간 외에는 빈자리가 많아 이 또한 쉽지 않다. 출판도시의 교통인구를 늘려야 하며, 그 요체 또한 출판도시의 활성화이다.

출판도시에서 사업하면서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묻는 설문에 1단계 입주사들은 ‘교통’을 첫째로 꼽았다(전체 211명 가운데 40.8%인 86명). ‘직원 채용’은 23.2%(49명), ‘주차, 식사, 보육, 여가생활 등 생활편의 부문’은 26.0%(55명)를 차지하였다. 2단계 입주 예정사에서는 ‘직원 채용’(41.8%)과 ‘교통’(40.3%)이 엇비슷했다. 아직 이주 전이라서 직원 이직 등의 문제가 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서 일 것이다.(p.39 <표 3-6> 참조)

출판도시는 주차 문제도 심각한데, 대중교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역시 해결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설문조사와 함께 진행한 출판도시 기본 현황조사에서 무슨 교통수단을 이용하는지 답한 4,498명 가운데 무려 48.7%(2,189명)가 자가용을 이용하고, 51.3%(2,309명)만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출판도시에서 일하는 사람 가운데 절반 남짓이 자가용을 이용하는 너무도 비현실적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대중교통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p.36 <표 3-2> 참조)

한편 출판도시 방문객들 역시 자가용을 이용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전체 설문 응답자 372명 가운데 80.9%(301명)가 자가용을 이용하였고, 나머지는 노선버스나 셔틀버스 등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p.53 <표 3-29>)

출판도시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생활편의시설의 부족 문제는 아주 심각한 수준이다. 애로사항으로 생활편의시설 부문을 꼽은 입주사들이 아주 많음을 위에서 살펴보았지만, 의료 시설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출판도시 방문객들은 ‘안내시설 및 정보의 부족’(45.7%)을 가장 큰 불편사항으로 꼽았지만, ‘휴식 및 휴게시설의 부족’(22.6%)을 두 번째로 꼽아 출판도시 내에 편히 쉴 곳이 매우 부족하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있다.(p.53 <표 3-30>)

출판도시가 활성화되지 않은 채 출판불황이 계속된다면 서울 등 타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설문에 답한 1단계 87개 입주사 가운데 3개사(3.4%)는 이전계획이 있다고 하였으며, 무려 20개사(23.0%)가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이 없지만 전부 또는 일부라도 이전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출판도시에 들어와 건물을 짓고 사업을 운영 중인 회사들이어서 쉽게 움직일 수 있는 회사들이 아니기에 그 비율이 예상롭게 느껴지지 않는다. 임대로 입주해 있는 회사들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좀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전계획이 있다고 답한 곳이 설문에 답한 108개사 가운데 15개사(13.9%), 이전을 고려중이라고 답한 곳이 33개사(30.6%)였다.(p.46 <표 3-14> 참조)

주거와 교통, 생활편의 시설의 문제를 해결한 이후라야 출판도시가 쾌적한 전원도시, 창조적인 인재들이 일하는 자족도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제4장

파주출판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방안

제1절 파주출판도시의 비전과 발전방향

제2절 파주출판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방안

제4장 파주출판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방안

제1절 파주출판도시의 비전과 발전방향

파주출판도시는 국가산업단지로서 규정되어 있으나 출판물 중심으로 한 지식 생산 및 서비스를 창출하는 문화산업 복합단지로서 여타의 국가산업단지와는 다른 차원의 미래 발전방향과 전략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미래 지식 서비스 산업의 중심축이자 앞으로 등장하게 될 다른 문화산업단지의 발전 모델로서 파주출판도시가 나아가야 할 기본 방향에 대한 검토와 함께 미래상을 그려보고자 한다.

파주출판도시의 산업단지 법률에 따르는 산업도시이나 지식 콘텐츠 산업의 중심기지로서 문화산업도시로 나아가야 한다. 파주출판도시 계획이 입안되던 초기의 건설 이념과 계획안에 이러한 미래 발전방향이 내포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산업단지 법률의 여러 제약 요건들로 인해 문화도시로서의 정체성 확보와 활발한 문화콘텐츠 생산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어왔다. 하드웨어 측면의 성과 위에 새로이 문화도시로서의 정체성이 획득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비전과 발전방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도시의 성격을 출판 ‘산업’ 도시에서 출판 ‘문화’ 도시로 명백히 재규정하는 일이다. 또한 경기 북부, 서울의 외곽에 위치한 파주라는 지역적 한계에서 벗어나 보다 넓은 시야에서 파주를 글로벌 문화도시의 중심으로 놓고 도시 발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한국 근현대사 속의 특수한 도시 만들기 실험에 대한 다층적 객관적 분석과 평가를 토대로 세계적 관점에서 도시의 정체성을 재평가할 때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파주출판도시의 독특한 실험이 보다 의미 있게 다가올 것이다.

출판도시의 도시 건설 및 건축적 실험, 그리고 출판문화산업 집적화라는 성과에서 더 나아가 미래의 발전 동력이자 도시의 자산인 창조적 인력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배출되는 곳으로 발전해나가야 한다. 젊고 창의적인 인재가 모여 생산적인 성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들이 찾아와서 일하고 싶은 도시적 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

외부에서 업종별 전문 인력을 흡수하는 모델에는 한계가 있다. 도시 내에서 창조적 인력을 양성하고 교류시키는 장이 되어야 하고, 창의적 인재들에게 열려 있는 개방적인 도시가 되어야 한다. 출판은 지식과 담론 생성의 최전선에 있기 때문에 통섭형 인재 생산과 문화 교류의 좋은 터전이다.

동시에 지식 생산과 유통, 교육의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 어린이 관람객 중심으로 편중된 출판도시의 공간과 프로그램은 성숙한 시민을 위한 지성적 공간과 프로그램으로 확장되어야 한

〈그림 4-1〉 출판도시의 21세기 도시 패러다임 전환 모델



다. 문화 매니아층이 형성되어 반복적으로 방문하고 긴 시간 체류하며 사색하는 힐링 도시로 나아갈 때라야 문화적 수요를 따라가는 도시에서 새로운 문화적 키워드를 창출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자기만의 색깔로 새로운 문화적 키워드와 담론을 만들어내는 도시, 거기에 파주출판도시의 미래가 있다.

제2절 파주출판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방안

1. 출판문화 클러스터 전략

1) 출판문화 클러스터의 필요충분조건 확보

가. 산업 클러스터의 측면에서 바라본 출판도시

산업 클러스터 관점에서의 진단은 파주출판도시의 현재를 가늠해보는 데 매우 유용한 분석틀이다. 클러스터는 수평적, 수직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경쟁하고 협력하는 특정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집적되어 있는 일정지역을 의미한다. 크게 산업 클러스터(Industrial Cluster)와 지역

클러스터(Regional Cluster)로 나눌 수 있는데, 출판도시의 경우 ‘출판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한곳에 집적되어 있다는 점에서 전·후자 모두에 해당하는 요건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산업 클러스터가 구매자-공급자 관계, 공통의 기술과 구매자, 공통의 유통경로 또는 공통의 인력자원 풀에 의한 연계된 산업집단이라는 점²⁾과 클러스터 내의 기업들이 일정한 지역적 범위 내에서 구매자와 공급자간의 관계 및 연구 개발, 생산, 판매 등에서 협력 네트워크로 긴밀하게 연계되어 지역의 전문화된 자원기관을 공유하는 특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내용적으로 파주출판도시의 클러스터 완성도는 보완할 부분이 많다.

〈표 4-1〉 기업 입장에서 본 산업 클러스터의 장단점 비교

구 분	수요측면	공급측면
장 점	지역수요 확보 경쟁업체로부터 시장 확보 탐색(조사) 비용 감소 정보의 외부경제 효과	암묵적 기술 확산 용이 전문화된 노동력 확보 기반시설 확보 정보의 외부경제 효과
단 점	생산시장에서 기업간 경쟁심화와 매출 및 이윤 감소	요소투입시장(토지, 노동)에서의 경쟁과 이로 인한 비용 상승

*출처: G.M. Peter Swann, 1998³⁾

또한 클러스터에 편입되어 있지 않은 외부 기업들에 비해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그것은 최근 불황 등의 이유로 서울로 근거지를 다시 옮기는 출판사들이 발생하고 있는 데서도 유추할 수 있다.

대규모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해외 산업 클러스터 가운데 지식기반 산업 클러스터 등을 통해 파주 파주출판도시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는 곳으로는 프랑스의 소피아앙티폴리스와 스웨덴의 읍살라 클러스터를 우선 거론할 수 있다.

〈표 4-2〉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프랑스 소피아 앙티폴리스(Sophia Antipolis)와 스웨덴 읍살라(Uppsala)클러스터를 비롯한 성공한 해외 산업 클러스터들의 경우 대부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주도하에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 개발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이들 산업단지들의 경우 교육 및 연구 분야가 활성화되어 있다. 관련분야 대학 및 국가 연구기관 등이 단지 내에 함께 위치해 있으며 이를 통해 학교 및 연구기관과 기업은 활발한 산학협동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낸다. 이러한 교육 및 연구

2) Porter, M.E.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Nations, 1990, New York, Free Press.

3) G. M. Peter Swann, Martha Prevezer, David K. Stout, The dynamics of industrial clustering: international comparisons in computing and biotechnology, 1998, Oxford University

기관은 우수한 인재를 공급받는 채널을 확보한다는 장점 이외에도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각 단지 내에는 다양한 편의시설과 쾌적한 환경 및 주거시설이 확보되어 있어 자족적인 소도시로 발전해가고 있다.

〈표 4-2〉 산업 클러스터 개발사례 분석

구 분	프랑스 소피아 앙티폴리스	스웨덴 읍살라 클러스터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균형발전의 성공사례 ·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 개발 · 환경친화요인이 되는 개발 자제 (단지내 녹지면적 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살라 대학 및 고등연구기관을 중심으로 바이오/IT 등 여러 분야의 산업 클러스터 형성 · 대학, 기관, 기업 상보적 관계 형성 · 발전전략 등을 통해 지속적인 내부 네트워킹과 발전 프로그램 제공 · 교통의 허브 도시 역할 수행
단점 및 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으나 다양한 문화환경 향수에 어려움 · 입주업종 제한 등 제약요건 	
공동적 성공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및 정부의 고등연구기관이 집적되어 있어 시너지 효과 · 관련 기업들의 이전으로 인력의 공급과 수급이 원활 · 가까운 곳에 공항, 철도 등이 있어 접근 용이 · 내부 네트워크 활성화 	
출판도시 적용 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교통수단 확보 · 출판분야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대학 및 정부연구기관의 이전을 통해 인력 공급, 콘텐츠 공유가 원활한 자족적 환경 확보 · 출판과 연관된 디자인, 문화산업 등으로 외연 확대 · 발전전략 통해 내부 네트워킹 활성화 및 직원 재교육 프로그램 등 활성화 	

나. 문화 클러스터의 측면에서 바라본 출판도시

문화 클러스터는 일반 산업 클러스터의 조건과는 다르게 구성된다. 문화 클러스터는 크게 활동, 공간형태, 그리고 클러스터가 가지는 의미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활동 측면에서 문화적 활동의 다양성과 창조산업의 존재, 교육의 기획 등 콘텐츠의 질이 핵심을 이루고, 카페 문화 같은 네트워크 활동을 만들어내는 구조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공간 측면에서는 도시공간의 조밀도와 공공공간의 양과 질 등 경관이 중요한 척도이다.

〈표 4-3〉 문화 클러스터의 조건과 주요시설

문화 클러스터	주요시설
활동 (Activ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차적, 이차적 토지이용의 다양성 · 문화적 활동의 정도와 다양성 · 밤 경제(Evening Economy)의 존재(카페 문화 등) · 창조산업과 같은 강소기업의 존재 · 교육의 기획
공간형태 (Built For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밀한 도시공간조직 · 건축 스타일의 다양성과 수용성 · 거리경관의 수용성(Permeability) · 가독성 · 공공공간의 양과 질 · 활성화된 건축 전면 공간
의미 (Mean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질이 만남의 공간 · 역사성과 진보성 · 지역성과 상상력 · 지식(Knowledgeability) · 디자인과 스타일

*출처: Montgomery(2003)⁴⁾

일반적인 문화 클러스터의 구성 요소와 조성 과정, 제반 조건에 비추어볼 때 파주출판도시는 문화적 진보성과 철학, 공간에 대한 열린 해석과 상상력, 지식 생태계의 우수성이 강점이다. 또한, 전문가들의 식견과 혜안이 투영된 도시 건설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타 도시 건설에서 모범 사례로 자주 인용된다. 그러나 건축 자체의 디자인과 스타일은 뛰어나지만 수용성과 가독성이 부족하고 공공공간의 조성 및 건축 전면의 활성화는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도시 활동 측면은 매우 낮은 수치다. 토지 이용의 다양성, 문화적 활동의 정도, 밤 경제(카페 문화), 교육 기획, 양질의 문화적 만남의 빈도 또한 저조한 편이다. 이는 산업단지가 가진 여러 제약조건 때문에 개선되기가 쉽지 않다. 카페 등은 일부 허용된 상업지구 외에는 설치가 불가능하다. 문화 클러스터로서 필수불가결한 것일지라도 산업단지의 규정을 벗어나는 범위에 있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토지 이용의 다양성을 높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기존의 공장 중심의 산업단지 모델 규정으로는 창조 문화도시 및 창조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4) Montgomery Jhon, 2003, "Cultural Quaters as Mechanism for Urban Regeneration, Part I: Conceptualizing Cultural Quaters", Planning, Practice & Research, vol.19(1), pp.3-31.

문화,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비전 마련 및 예산의 확보 등이 난망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주출판도시가 문화 클러스터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면서 문화도시의 면모를 갖추려면 교육시설 및 연구기관 등의 R&D 기관을 육성해야 한다. 교육 및 연구기관은 문화 클러스터가 아닌 산업 클러스터의 성공적 모델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기관의 부재는 장기적 관점의 발전방향에서 매우 큰 장애요소가 아닐 수 없다. 지식산업이라는 출판산업의 특성과 문화 클러스터로서 발전해가야 하는 파주출판도시의 비전을 감안해볼 때 연구 조사 및 내부적인 지식 생산 시스템의 확보는 무엇보다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대목이다.

파주출판도시의 입주기업체는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개별적 R&D 기반을 확보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구기관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진다. 지금까지 파주출판도시는 소수의 문화적 헌신과 노력에 의해 발전되어온 측면이 컸다. 민간 차원의 힘든 여건 속에서 연구 및 문화 콘텐츠가 개발되다 보니 장기적 관점에서 육성해야 할 문화기획 인력조차 내부에 축적될 수 없었다.

숙련된 창조적 인적 자원의 부재는 파주출판도시가 문화 클러스터로서 역할을 하는 데 큰 걸림돌이다. 출판도시에는 일반 관람객을 유인할 수 있는 강력한 문화 프로그램과 문화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축제가 열리는 봄, 가을의 짧은 시기 외에는 대중들이 일상적으로 도시 공간을 향유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궁극적으로 파주출판도시는 공공의 문화가치를 생산하고 확장해 나가며 시민들의 문화적 요구에 부응하는 도시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현재로서 출판이라는 문화적 자산을 생산해내는 일차적 역할 외의 다른 제반여건은 현저히 부족하다. 문화적 가치의 확산과 사회 공헌의 요소를 키워가기 위해서는 품격 있는 책 축제 및 국제 수준의 학술 심포지엄 등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해 의미있는 문화전선을 형성해가야 한다. 일반 독자와 출판계 및 문화예술계를 이어주는 징검다리에서 나아가 동아시아와 국제 문화의 흐름을 주도하는 역할로 거듭나야 한다.

다. 문화 클러스터 개발사례

파주출판도시와 콘텐츠의 성격은 다르지만 문화를 통한 다양한 도시 발전 모델이 세계 도처에서 속속 등장하고 있다. 여러 발전 사례들 중에서도 문화라는 중심 키워드를 가지고 폐광 지역에서 친환경 문화 생산도시로 거듭난 독일 루르(Ruhr)지역과 디자인을 키워드로 해 도시를 새롭게 브랜딩한 핀란드 헬싱키(Helsinki)의 사례 및 만화 콘텐츠로 전 세계 만화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한 프랑스 앙굴렘 시(Angouleme 市)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사례 분석을 통해 문화 혁신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공통 요소가 무엇이며, 파주출판도시에 어떻게 창조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가) 독일 루르 지역

독일 루르 지역의 경우 장기간에 걸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투자와 체계적 마스터플랜 수립 아래 이루어졌다. 여러 많은 발전 사례들 중에서도 과거 광업 도시이자 산업도시에서 문화도시, 녹색 생태도시로 가장 극적인 변화를 통해 지역을 쇠신하였다는 측면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독일 루르 지역은 크고 작은 중소 도시들이 커다란 문화 벨트를 이루고 있다. 각각의 도시들은 주변의 여타 도시들과 상호 발전적인 관계를 이루며 각 도시의 특성에 맞는 문화콘텐츠로 차별점을 가지고 있다. 문화벨트로 변모하기 이전의 루르 지방은 유럽 최대의 공업지대로 에센시를 중심으로 뒤스부르크, 도르트문트 등의 공업도시가 집중되어 있었다. 1970년대 들어 석탄 및 철강산업이 쇠퇴하면서 시작된 실업 증가, 소득 감소 및 인구 감소는 도시의 존립 위기를 가져왔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루르 지방의 지자체 들은 1989년 ‘문화’ 와 ‘환경’ 을 테마로 하는 지역경제 구조개선계획을 시작하였다. 이른바 ‘이바 엠셔파크(IBA Emscherpark)’ 지역경제 구조 계획이었다.

〈그림 4-2〉 독일 오버하우젠 가스미터 (Gasometer Oberhausen) 전경 및 전시 사진



독일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장기계획 아래 진행된 도시 재건 프로젝트는 훼손된 환경 복원, 하천 정화, ‘광역 녹색 기차 조성사업’ 치료공원, 도시 공원 등 환경개선 사업과 함께 국제

꽃 박람회 등을 유치하여 버려진 산업시설을 문화시설로 탈바꿈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문화시설에서는 영상, 미디어 산업 관련 전람회와 함께 각종 문화행사가 개최됨으로써(2010년 한 해에만 2,500개 이상의 행사가 열림)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

그중에서도 오버하우젠 시(Oberhausen 市)의 도시 브랜딩 사례와 에센 시(Essen 市)의 출페라인 탄광산업 복합단지(Zeche Zollverein; Zollverein Coal Mine Industrial Complex) 개발 사례에서 앞으로 파주출판도시가 지향해야 할 시사점을 도출해볼 수 있다.

오버하우젠 시는 유럽 최대의 가스 저장소를 전망대를 갖춘 이색적인 전시 및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지역의 명소로 거듭나게 했다(Gasometer, <http://www.gasometer.de>). 또한 터바인 홀(<http://www.turbinenhalle.de>): 다양한 음악 장르(클래식보다는 대중음악)의 공연이 이루어져 독일 젊은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오랜 역사를 지닌 ‘오버하우젠 단편영화 페스티벌(<http://www.kurzfilmtage.de>)’ 같은 풍요로운 문화적 자양분과 다양성이 새로운 문화활동의 배경이 되어주는 것도 장점이다. 이 영화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영화제이자 세계 3대 단편영화제 중의 하나로 통일 독일 이전부터 신독일영화의 중심축 역할을 담당했다.

에센시의 출페라인 탄광 산업복합단지(Zollverein Coal Mine Industrial Complex)는 옛날 공장을 그대로 남겨둔 채 ‘산업화 시대’의 모습을 살리고 부분적으로 리모델링해 건설되었으며, 세계적인 수준의 디자인 박물관과 디자인 센터가 중심축을 이루고 있다. 쇠락해가는 에센시를 부흥시키기 위해 지역민들과 탄광의 소유주는 옛 시설을 철거하고 다른 공장을 유치하고자 했으나, 에센시 주정부인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North Rhine-Westphalia 州)는 탄광을 사들여 문화공간으로 개조를 시도했고, 2억 유로에 달하는 금액을 투자했다.⁵⁾ 2001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한 이 복합단지 안에는 작가들의 아틀리에 및 연극, 공연, 콘서트, 전시회, 뮤지엄 등이 들어서 있어 연중 다양한 문화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2006년에는 출페라인 디자인경영학교(Zollverein School of Management and Design)가 단지 내에 개교하여 독특한 건축적 외관과 함께 창조적인 사고를 하는 디자인 경영 학교로서 산업복합단지의 특수성을 강화시키고 있다.

루르 지역 문화지구의 성공 요인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도시 개발이 독일정부의 주도 아래 민간과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받아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단기적인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장기간에 걸친 치밀한 개발계획이 수립되었다. 둘째, ‘문화’와 ‘환경’이라는 미래도시의 핵심가치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는 점이다. 도시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건물들을 최대한 보존하여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의 이야기를 만들어낸 하드웨어 측면에서 미래지향성을 담아냈을 뿐 아니라, 연간 개최되는 2,500개가 넘는 크고 작은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통해 무형의 도시자산을 확보하고 유럽의 문화 중심지역으로 거듭났다.

5) [세계의 소프트시터를 가다] <8>에센 - 광산도시에서 예술을 캐다, 한국일보, 2010년 7월 22일.

〈그림 4-3〉 에센시 출페라인 탄광산업단지 및 출페라인 디자인경영학교



루르의 사례는 파주출판도시의 미래 모습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지 숙고해볼 단초를 제공해준다. 하드웨어를 만들고 보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문화콘텐츠이다. 문화콘텐츠가 지역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큰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파생된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상당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각 도시가 ‘문화’의 여러 부분을 각기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고 도시 개발에 반영함으로써 각 도시의 차별화를 만들어낸 점도 주목해 보아야 한다.

나) 헬싱키 아라비아 지구 + 디자인 지구

핀란드의 헬싱키는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북유럽 디자인의 중심에 자리한 핀란드 디자인을 활성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디자인 지구를 활성화하였다. 수도인 헬싱키를 디자인 중심 지구로 지정하고 국가 브랜드 향상 및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헬싱키 안에 흩어져 있는 여러 문화적 자산을 지구별로 특성화시켜 개발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헬싱키 아라비아(ARABIA) 지구’는 헬싱키 외곽에 위치한 핀란드의 대표 디자인/생활용품 회사 ARABIA의 과거 공장지대를 디자인 산업 중심 센터로 개발한 예로서, 구 헬싱키(Old Helsinki)와 신 헬싱키(New Helsinki)가 공생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의 하나이다. 현재 헬싱키 디자인 대학이 이전하여 산학협동 중심지역으로 거듭나고 있으며, 아라비아 박물관 및 아웃렛 같은 판매시설이 함께 위치해 있어 상호보완작용을 하고 있다.

헬싱키 디자인 지구(Helsinki Design District)는 헬싱키 시내 중심부에 디자이너 브랜드, 공방, 아트샵, 갤러리 등이 모여 있는 지역을 통칭한다. 2005년 국가 주도로 지정된 디자인 지구로 창조산업에 종사하는 지역의 활동가들이 함께한다는 개념에서 출발하였다. 디자인 도시로 알려진 헬싱키의 역할을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되었으며, 창조적 허브 기능을 수행하는 디자인 지역으로서 다양한 분야 활동가들의 도움을 받고 있다. 또한, 디자인 박물관, 건축

〈그림 4-4〉 헬싱키 아라비아 지구



박물관 등이 지구 내에 위치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하고 있다.

디자인 지구는 주요 관광지와 연계되어 있고 헬싱키 시내 중심부에서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여서 찾아오는 방문객이 끊이지 않는다. 관광객이 많은 기간에는 디자인 투어 등이 진행되고, 비즈니스 네트워킹 및 마케팅 기회를 연결하는 허브 역할로서도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각종 워크숍, 예술가들과의 만남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외연을 넓히는 기회로 활용한다. 무엇보다 트렌디한 레스토랑과 카페들이 즐비해 헬싱키 시민 및 외국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디자인 도시로서의 헬싱키의 도시 브랜딩은 핀란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련분야 종사자들의 노력을 통해 명성을 높여가고 있다. 헬싱키 도시 안에 산재해 있는 각종 디자인, 공예 분야 하드웨어 자원들을 특징별로 묶어 브랜딩하고 시너지를 내는 것이 특징이다. 아라비아 지구의 경우 산학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디자인 지구의 경우 핀란드의 우수한 디자인 상품을 관광 프로그램과 엮어 도시 홍보와 상품 판매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하였을 뿐 아니라, 각 지구별 파티, 이벤트, 페어, 공연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풍부한 이야기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한다.⁶⁾

6) <http://www.designdistrict.fi> 참조.

〈그림 4-5〉 헬싱키 디자인 지구



다) 앙굴렘 국제만화영상단지

프랑스의 앙굴렘 시는 1991년에 국립만화영상센터(CNBDI)를 설립한 이래 세계적인 명성을 지닌 만화도시로 우뚝 섰다. 만화도서관, 만화박물관을 개원하고, 만화에 대한 활발한 연구 및 콘텐츠 생산이 진행됨으로써, 앙굴렘 시의 문화콘텐츠 성격을 ‘만화’ 산업으로 집약하여 강력한 도시 브랜딩 효과와 문화관광자원화에 성공할 수 있었다. 산업적 측면과 문화적 측면이 가장 잘 결합한 사례의 하나이다.

국립만화영상센터가 작가 레지던시 프로그램인 ‘작가의 집’ 과 합쳐져 국제만화영상단지(CIBDI)로 발전하면서 앙굴렘의 만화산업은 더욱 날개를 얻게 되었다. 이 영상단지에는 프랑스 및 세계 각국의 만화, 영상, 그래픽 작품과 제조 도구들이 진열되어 있을 뿐 아니라, 도서관, 예술가들의 작업실, 거주지, 상영관, 서점, 강연장 등 다양한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다.

앙굴렘 시의 만화 콘텐츠의 하드웨어 측면을 국제만화영상단지가 담당한다면 콘텐츠 측면에는 세계적인 명성을 지닌 앙굴렘 국제만화축제가 있다. 매년 약 6천 명에서 7천 명의 전문가들과 800여 명의 언론 종사자들을 비롯해 20여만 명이 축제를 찾는다. 앙굴렘 시는 종이제조업으로 부를 축적한 도시로서, 1972년에 ‘천만개의 영상’ 이라는 제목으로 만화가, 출판업자, 서점업자가 가진 발표회를 통해 만화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 앙굴렘 시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1974년에 축제가 처음 시작되었으며, 매년 1월말 도시 전역에서 시상식, 전시회, 비평회, 상영회, 강연회, 판매 및 출판 홍보 행사 등이 진행된다.

앙굴렘의 성공 이면에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시정부의 추진력이 있었다. 먼저 1980년대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이 이끈 사회당 정부의 대중문화 지원에 크게 힘입었다고 할 수 있다. 중앙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칸 영화제 등과 더불어 프랑스 5대 국제문화행사의 하나로 자리 잡았으며, 앙굴렘 시는 국립만화영상센터를 설립해 만화에 대한 연구개발과 자료수집관리

및 기획전시 출판에 힘을 경주해온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 문화콘텐츠 관련 인력 양성기관을 앙굴렘에 설립해 만화의 메카로 자리잡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표 4-4〉 문화 클러스터 성공사례 분석

구분	독일 루르 지역	핀란드 헬싱키 디자인 지구	프랑스 앙굴렘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광지역개발모델의 대표적인 성공사례 · 루르 지방의 각 도시를 '문화'라는 키워드로 특색 있는 미래형 도시로 탈바꿈시킴 · '문화'와 '환경'이라는 키워드를 통한 지역개발에 대한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 안에 분산된 각 지구를 '디자인'이라는 키워드로 묶어 도시 브랜딩화 · 관련분야 매출 및 관광객 유발 효과 증대 · 관련분야 종사자들의 활발한 네트워크를 통해 더 큰 시너지 효과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회가 넘는 앙굴렘 만화페스티벌을 지속 개최하여 분명한 문화정체성 및 콘텐츠 확보 · 오랜 역사를 가진 앙굴렘과 만화라는 현대성이 적절히 조화되어 시너지 발생 · 만화 및 인접분야 다양한 인력 양성 및 연구기관 집적
단점 및 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간의 시간 투자와 많은 비용이 소요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들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 방문객 동선 확보에 어려움 · 디자인지구 외에는 볼거리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화, 애니메이션의 신흥 강국인 일본의 영향력 커지고 있음
공통된 성공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드웨어 조성에서 끝나지 않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짐 · 중앙 및 지역 정부의 장기간에 걸친 지원 ·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 · 다양하고 전문화된 콘텐츠를 통한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의 장 마련 		
출판도시 적용 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판문화산업과 관련된 도서관, 박물관, 전시관, 공연장 등을 집적하고 출판문화산업에 관한 자료, 지식정보, 연구개발, 전시, 공연 등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 · 일정 수준의 하드웨어가 조성되어 있으므로 문화콘텐츠 개발과 국내 및 해외 네트워크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 출판도시만의 특색있는 '문화'를 만들어나가야 함 · 방문객들이 다양한 문화공간 안에서 출판 관련 콘텐츠를 체험,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 관련 지식과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 · 파주북소리 등 축제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육성 · 국내외 매체 등에 적극적인 노출 전략 · 문화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활동 증진 · 해외의 비슷한 성격을 가진 도시 및 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 		

라) 문화산업 클러스터 성공사례 분석

지금까지 위에서 살펴본 문화산업 클러스터의 경우 공통된 성공요인이 있다. 각 지역은 박

물관 및 관련분야 센터(상점, 공방, 공연/아트센터 등)를 조성하는 일과 함께 프로그램 개발에 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함으로써 각 지역에 맞는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또한 클러스터를 발전시키기 위한 중앙과 지방정부 차원의 장기간에 걸친 지원이 뒷받침되었다. 특성화된 콘텐츠를 중심으로 정부 산하의 각종 기관과 기업, 문화단체, 아티스트들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며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도 돋보인다. 다양한 볼거리 및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네트워크가 활성화되고 개방적이라는 공통점도 지니고 있다.

파주출판도시의 경우 ‘책’ 과 ‘출판’ 이라는 핵심적 문화콘텐츠와 우수한 인적 네트워크를 갖고 있어 발전 가능성은 매우 크다. 그러나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연구시설, 교육기관 등 많은 요소들이 미싱 링크(Missing Link)로 남아 있는 점이 보완과제다. 구축된 네트워크에 비해 개방성도 약하다. 출판도시가 지닌 장점을 극대화하고 상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단점을 보완해가야 한다.

라. 출판문화 클러스터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

가) 출판, 인쇄, 영상, 문화콘텐츠 산업의 융복합 단지화

출판도시의 발전목표를 출판과 인쇄만이 아닌 다양한 문화콘텐츠가 집적된 글로벌 문화도시, 창조도시로 설정하여 가능성을 확대하여야 한다. 출판인쇄 등의 제조업 기능과 문화콘텐츠 서비스 부문을 융합하여 다양한 지식기반산업 자원을 부문별, 기능별로 융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구축된 출판-인쇄-문화 융복합 클러스터의 글로벌화를 추진해야 한다. 출판도시의 뛰어난 인프라와 한류를 중심으로 일고 있는 우리 문화콘텐츠의 우수성을 결합하면 아시아의 출판 허브로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다.

과학기술과 IT 부문, 인문학을 기저로 한 문화콘텐츠의 융합과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출판의 독자 모델도 숙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출판도시 2단계에 입주할 영상, 방송, 소프트웨어 부문과 결합하면 세계적 경쟁력을 갖는 지식문화 플랫폼의 개발이 먼 나라의 얘기만은 아니다.

이미 산업 및 문화의 전 영역에서 융복합화 추세는 세계사적 흐름이다. 아무리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지만 하드웨어의 뒷받침 없이는 경쟁력에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이런 점에서 출판도시는 최적의 조건을 구비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 같은 흐름과 출판도시가 우리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잠재적 역량을 읽어내어 창조산업의 불길이 활화산처럼 타오르게 기름칠해주는 일이다. 이종산업간 및 문화예술과의 융합과 연계라는 개방형 혁신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출판도시의 산업, 지식 생태계를 새로 디자인하는 일이 선급한 과제다.

나) R&D기반 강화를 위한 연구기관 설립 및 대학 유치

지식창조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이 필수적 요소인데 반해 출판도시에는 연구개발 역량과 시스템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이다. 국내 사정을 살펴보아도 출판업 관련 4년제 학과 등 공교육 차원의 출판 전문인력 양성 기반이 취약하고, 핵심적 연구개발 허브가 부재하다. 출판업만이 아니라 인쇄, 영상, 방송 분야까지 망라해야 하는 출판도시의 성격 및 시대적 과제까지를 감안하면 연구 및 교육의 기능은 더욱 절실하다.

○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의 활성화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힘을 보태 설립한 시설로서 현재 지원시설 가운데 출판도시 내에서 유일하게 R&D 관련 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간은 단순 사무 기능으로만 사용되고 있고, 일부는 비어 있는 실정이다. 비어 있던 공간에 최근 파주타이포그래피학교(PaTI)와 온북TV가 입주한 것은 획기적인 일로서 출판도시 발전에 희망을 갖게 한다.

R&D 개념을 확장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시설은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에 동지를 틀고 있는 파주출판도시정보도서관이다. 그러나 정보도서관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만큼 방치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2단계 부지에 출판인쇄박물관이나 경기도 대표도서관이 건립되려 해도 한참을 기다려야 한다. 그리고 출판환경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 출판도시정보도서관이 어린이 서적으로 특화되어 있긴 하지만, 무엇보다 출판 기획에서 필요한 것은 정보다. 출판도시 정보도서관이 최소한의 이름에 값하려면 전 세계의 대표적인 출판관련 잡지와 신문은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아울러 최소한 출판도시 종사자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운영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할 것이다.

최근 출판도시문화재단은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내 지지향 게스트하우스를 라이브러리 호텔로 개조하겠다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아시아센터를 폐쇄적인 공간에서 대중에게 개방적인 공간으로 바꾸겠다는 포석이자 문화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야심찬 계획이기도 하다. 또한 아시아센터의 빈 공간을 갤러리 개념으로 만드는 프로젝트도 구상중이다. 이 같은 프로젝트가 안정적으로 추진된다면 아시아센터가 한결 대중과 친근한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의 출판문화진흥 5개년계획에서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를 세계출판교류센터(World Book Trade Center)로 개편” 해 “세분화된 특정 주제분야 중심의 출판물 전시·판매, 컨퍼런스, 저작권 교역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 한다는 청사진을 펼쳐보였다. 출판도시가 세계 유일의 출판 클러스터 위상에 걸맞는 국제출판교역의 거점으로 발전

해가는 일도 시급한 과제인 만큼 구체적인 정책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 출판인쇄박물관/도서관 건립

출판도시 2단계 지구에는 문화시설지구가 존재한다. 여기에 출판인쇄박물관과 출판도시의 위상에 걸맞고 출판산업의 발전을 위해 기능할 수 있는 수준의 전문도서관을 짓는 것이 출판도시의 숙원사업의 하나다. 출판인쇄박물관의 건립 필요성을 새삼 거론할 필요는 없겠으나 최적지가 출판도시임은 사족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 박물관은 전시 기능뿐 아니라 교육과 국제교류의 거점으로도 기능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출판도시의 미래와 함께 존재의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출판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도서관 건립을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의 분관 및 경기도대표도서관 등이 검토된 적이 있는바, 출판도시에 위치할 도서관은 대중적 수요보다는 출판도시의 R&D 기능에 기여하는 특화된 전문 도서관이어야 할 것이다.

○ 교육기관의 유치

우리나라 대학에서의 출판 관련 교육이 출판계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출판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부재하다 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다. 그나마 있던 대학의 출판 관련학과는 폐지되거나 통폐합되는 실정이며, 한국출판인회의에서 운영하는 서울북인스티튜트(SBI; Seoul Book Institute)는 단기 과정이다.

아시아 출판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에서는 칭와대학을 비롯한 많은 대학에서 출판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기관인 신문출판총서 교육훈련센터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다. 문화부는 출판 인력 양성의 필요성을 절감해 출판대학원대학의 설치 지원을 통해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고급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출판도시에 필요한 출판관련 교육기관은 대학원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지식산업의 조직자로서 편집, 기획 등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계 및 지식산업 전체를 조망하는 안목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수천 명의 출판관련 종사자들이 일하는 출판도시에 출판대학원대학이 설립된다면 산학 협동이라는 과제도 원활히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올 들어 출판도시에 문을 연 파주타이포그래피학교는 출판도시의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파주타이포그래피학교가 출판도시에 동지를 튼 것은 캠퍼스 건립에 막대한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출판도시내에 산재한 시설들을 유기적으로 네트워킹하여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대안적 교육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영화학교도

사업계획이 추진 중이다. 이 같은 대안 교육기관은 공교육과는 또다른 차원에서 보완작용을 하며 출판도시의 문화적 지형을 바꾸어갈 것이다.

다) 국가 지원체계의 강화

산업도시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출판도시의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지원체계는 초보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 R&D 및 교육시설은 물론이고 행정적인 부문에서도 산업단지 관리 업무 외에는 정부기관의 역할이 눈에 띄지 않는다.

정부는 지난해 출판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을 출범시켰다.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있어야 할 곳은 다름 아닌 우리나라 출판산업의 중심지인 출판도시다. 진흥원의 연구 조사 업무, 출판문화 진흥업무의 대상도 수혜자도 출판사일 뿐 아니라, 지원행정기관이 현장에 있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정부가 5대 정책과제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전자출판 및 신성장 동력 육성’을 위해서도 출판산업이 밀집해 있는 파주출판도시에 전자출판연구소 및 지원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해법의 하나다.

아울러 논란이 되고 있는 출판도시 관리기관의 문제도 문화부가 전면에서 나서 출판도시 입주사들이 희망하고 또 그들이 꿈꾸는 도시를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라) 출판도시 입주사간 네트워킹 및 협력체제 강화

출판도시 입주사들이 시너지를 갖기 위해서는 입주사간 정보교류 및 네트워킹 체제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문화 클러스터의 성공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문화단지 및 도시에는 내부의 소통과 외연 확대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네트워크의 형성이 또다른 담론과 문화를 만들어내는 핵심축이며, 도시의 모습을 만들어나가는 무형의 자산이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콘텐츠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 클러스터는 비전을 제시하는 그룹과 이를 공유하며 상호작용하는 다양한 그룹간의 네트워크에서 성패가 갈린다. 그런 점에서 출판도시문화재단이 중심축이 되어 도시의 비전을 굳건히 다지는 한편 미래지향적인 문화 행위를 펼쳐가야 하며, 입주기업협의회는 회원들의 친목과 생활상의 편의 증진을 위한 일로 좀더 분명히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고, 두 단체를 정점으로 기업체 대표, 편집기획자, 영업자, 디자이너 등 다양한 종사자들이 종횡으로 연계를 이루어가는, 아울러 출판도시 바깥의 우호세력 및 관련 업체들에게까지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일이 필요하다.

입주사간의 가치사슬 강화, 업무 및 정보의 교류, 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공동 행사 기획 등의 다양한 채널이 가능할 것이며, 출판도시 포럼 등의 상시 운영을 통해 내·외부를 연계하는 네트워크를 다져가야 할 것이다.

입주사간의 가치사슬 강화, 업무 및 정보의 교류, 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공동 행사 기획 등의 다양한 채널이 가능할 것이며, 출판도시 포럼 등의 상시 운영을 통해 내외부를 연계하는 네트워크를 다져가야 할 것이다.

2) 도시기반시설 확충

가. 교통 인프라 확충

파주출판도시는 과거에 비해 교통 인프라가 많이 발전한 상태이나 여전히 물리적 접근성 확대가 시급하다. 서울과 출판도시 사이의 교통 인프라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과의 연계성, 출판도시 내의 이동 편의성 증진 등 다양한 대책이 보완되어야 한다. 구간 및 교통편에 따른 세부 방안은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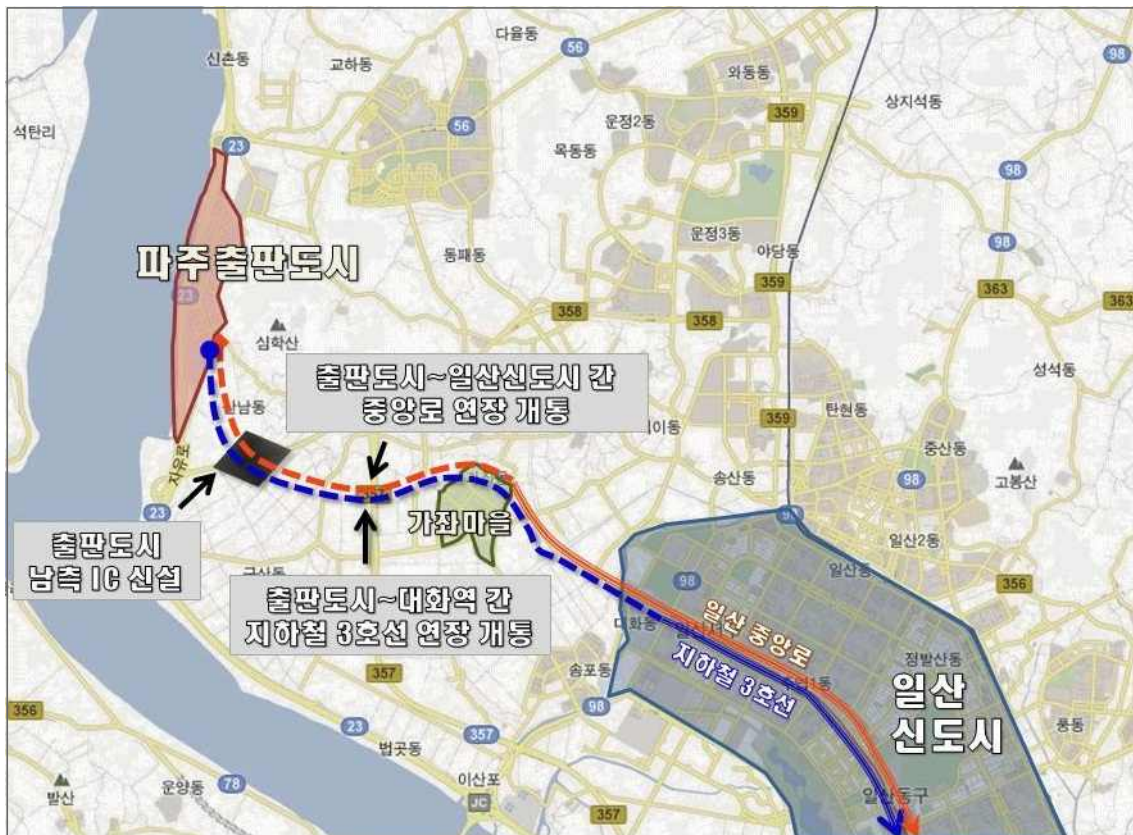
〈표 4-5〉 출판도시 내외부 교통수단 확충방안

구간 및 교통편	방안
서울 - 출판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정역 - 출판도시, · 광화문, 시청 - 출판도시, · 강남권 - 출판도시 · 광역버스 노선 확충 및 운행 간격 개선
출판도시 - 인근 도시 (일산 운정 교하 금촌 헤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근 지역과의 연결망 확대 및 노선 합리화 · 인근 가좌마을까지 연장된 일산 중앙로와 출판도시 연결
출판도시 내부 연결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보 활성화 위해 인포그래픽 (공공 사인물, 안내 맵) 보강 · 프리미엄 아웃렛 이용인구의 출판도시 유입 동선 마련 · 출판도시내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
지하철 3호선의 출판도시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화역이 종점인 지하철 3호선을 출판도시까지 연장 혹은 출판도시를 경유해 통일동산이나 교하신도시와 연결 - 방문객 유입과 도시 활성화 차원에서 획기적 효과 기대
자전거 도로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임진각 자전거 길을 잇는 생태 도로 - 심학산 및 둘레길과 연결된 자전거 도로 활성화
국내선/국제선 공항과 연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버스와 공항 리무진 버스 연계

서울과의 연계성은 많이 개선되었으나 광화문 등 서울시내 중심부 및 강남권과의 노선 버스 확충을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있다. 파주지역 연결노선은 직선화 등 노선의 합리화가 과제다. 일산신도시는 거리에 비해 매우 불편한 편인데, 인근 가좌마을까지 연장된 일산 중앙로를 출판도시까지 연결하면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출판도시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지하철 혹은 전철 운행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일산 대화역이 종점인 지하철 3호선을 연장하는 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지하철 연장, 일산 중앙로의 출판도시 연결, 출판도시 남측 IC의 건설을 연계하면 의외로 합리적이고 쉬운 해법이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방안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4-6〉 출판도시 연결 교통 인프라 개선방안



나. 도시 환경의 개선

교통편의 확충과 더불어 파주출판도시의 도시 환경을 사용자에게 친숙한 환경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그 중 주목되는 프로젝트는 현재 추진중인 책방거리 조성사업이다. 책방거리 조성사업은 출판도시의 도시 경관 개선은 물론 활성화를 위해서도 획기적인 사업으로 기대를 모

오고 있다. 광인사길(1차)과 회동길을 걷고 싶은 테마거리로 조성하는 것과 함께 서점, 어린이 체험학습시설, 공방, 박물관, 미술관, 갤러리 등이 순차적으로 들어서고 있다.

책방거리 조성사업에는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이 여러 해에 걸쳐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1단계 광인사길 테마거리 조성에 이어 회동길 등 나머지 거리의 환경을 어떻게 개선할지와 수반되는 예산을 확보하는 일이 과제라 하겠다.

책방거리 조성사업은 2단계 지구까지를 합쳐 총 100여 개의 서점 및 기타 문화공간을 확충하는 문화콘텐츠 개발사업이기도 하다. 출판도시 계획 입안 당시 표방하였던 개별 건물의 1층을 방문객을 위한 오픈 스페이스로 개방하는 목표를 실현하는 일이기도 하다. 책방거리 조성사업을 통해 출판도시 건축물의 공공성이 담보되고, 그럼으로써 출판도시가 갖는 사회공헌적 의미도 배가될 것이다. 책방개설이 어려운 건물 주변에 외부인을 위한 휴식공간을 마련하여 책방거리의 연속성을 확보한다면 출판도시는 한결 사색과 여유가 묻어나는 도시 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다.

걷고 싶은 거리는 출판도시 전역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방문자들이 불편해 하는 정보를 담은 예술성 높은 공공 사인물이 설치되고 환경 조형물과 스트리트 퍼니처가 조화를 이루어 출판도시 전역이 예술공원으로 탈바꿈한다면, 방문객들은 출판도시의 건물 내에서만 아니라 바깥에서도 유유자적 문화의 향기를 맛볼 수 있을 것이다. 수변공간을 예술공간으로 가꾼 사례로는 일본 교토 카모가와 지구, 미국 텍사스 샌안토니오 리버워크, 영국 이스트런던 템즈강가의 도크랜드 등이 있다.

출판도시 전체 면적의 21%를 차지하는 우수지 및 수로 등에도 보행자 도로와 연계되는 산책로와 탐방시설이 필요할 것이다. 갈대셋강이 파주출판도시 전체를 연결해 주고 있으므로 일정 구역에 주차한 다음 수변공간을 이용하여 도보로 산책을 즐길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갈대셋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역사적 문화적 스토리가 있는 다리로 명소화하는 전략도 필요해 보인다. ‘응칠교’는 안중근 의사의 아명인 ‘응칠’을 딴 다리로서 이를 활용한 행사와 이벤트가 가능할 수 있으며, 정약용의 호인 다산을 딴 ‘다산교’ 등에서도 다양한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 심학산의 야생화 자원 및 생태 경관을 책방거리와 연계하면 생태와 출판을 잇는 이색적인 탐방 공간으로 바뀔 수 있으며, 현재 설치되어 있는 마해송 시비와 같은 문학 관련 기념물을 늘려간다면 우리 문학사와 출판문화에 대해 공부하는 학습공간으로 탈바꿈될 것이다.

다. 교하 및 일산 신도시와 도시적 채널로 연결

현재의 출판도시는 자족도시로서는 한계가 너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 내에 부족한

주거시설을 늘려갈 수도 없다. 축제 등 이벤트를 개최할 경우 행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머물러야 하는 사람들과 국내외 관광객을 위한 숙박 및 레저, 체류 공간을 확충하는 일도 과제다. 문학 레지던시와 어린이 및 청소년 대상의 출판학교, 대규모 투어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운영하려면 숙박과 생활편의시설이 필수적이다. 출판도시 안에서 이 같은 수요에 부응하기 어렵다면 인근 도시와의 연계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출판도시의 부족한 부분은 바로 이웃해 있는 주변 신도시들과 도시적 채널로 연계해 해결해 가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특히 교하신도시는 3차 지구가 완성되면 출판도시와 수백 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게 된다. 먹거리 중심으로 주변지역이 난 개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도 출판도시에 필요한 시설을 중심으로 양도시를 연결하는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해 보인다.

출판도시조합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북팜시티의 조성 역시 일산신도시와 도시적 채널로 연결을 모색한다는 관점에 설 때 의미가 증대하게 된다. 정부 차원에서는 서울을 중심으로 방사선 모양으로 뻗어나가는 도시들 사이의 연접화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바로 이웃한 100만 인구의 고양시와 서울보다 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누가 봐도 어색하기 짝이 없다.

일산신도시와는 중앙로 연결, 버스 노선 합리화 및 증설, 지하철 연장, 출판도시 남측 IC 개설 등의 교통 인프라와 관련해서 큰 숙제가 주어져 있는 만큼, 이 같은 과제를 도시적 채널로 출판도시와 일산신도시를 연결한다는 관점에서 풀어갈 필요가 있다.

이웃 도시와 도시적 채널로 연결될 때 서로 하나의 문화구역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동질감이 높아질 수 있다. 특히 교하신도시와는 그 같은 동질감이 더욱 높아져야 하고, 교하신도시를 매개로 파주시 전역으로 심리적인 동질감이 확장되어야 한다. 이웃 신도시들은 출판도시로 인해 서울의 위성도시로서의 기능을 넘어 젊은 가족을 위한 경쟁력 있는 자족도시, 은퇴후 세대를 위한 문화생태도시로서의 정체성이 생겨날 수 있을 것이다.

이웃 도시들, 특히 파주시 구시가지 및 농촌지역과의 심리적 연계성을 강화해나가는 노력도 수반되어야 한다. 출판도시의 일상적 문화행사와 축제 프로그램에 지역민이 적극 참여하는, 함께 문화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2. 문화도시 전략

1) 문화 프로그램의 확대 및 질적 향상

가. 책방거리를 활용한 일상 프로그램 운영

출판도시내 광인사길, 회동길에 조성되고 있는 책방거리의 문화적 지형도를 그려나가기 위해, 상시적인 일상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문적인 도서 큐레이팅과 문헌연구를 통한 문학/출판 카페 거리를 형성하여 개별공간의 문화적 특수성과 정체성을 살린 프

로그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각 출판사에서 전문적으로 출판하는 주요 서적의 성격을 반영하여 도서를 구성하고, 북카페의 주제에 맞춰 해외 서적과 타사 서적을 추가로 구비하여 주제가 선명한 완성도 있는 도서 컬렉션을 구비한다면, 예술서적 전문 카페, 여행서적 카페, 고서적 전문 카페, 지도 전문 카페 등이 한데 모인 문화거리, 문화도시의 모습을 갖춰나갈 수 있을 것이다. 책방거리 조성책방 거리를 토대로 한 일상 프로그램의 운영은 출판문화 진흥의 관점에서 운영되는 문화사업이므로, 책방거리 전체가 하나의 문화 벨트로 함께 움직이며 고유한 성격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물리적 심리적 거리감을 극복할 수 있는 차별화된 문학/책 프로그램 기획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관객에게 한꺼번에 다가가기보다는 긴 호흡으로, 특화된 관객층에게 여러 채널로 다가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관객으로 하여금 차 한 잔, 책 한권을 앞에 두고 문화행사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예약형, 도심형, 분산형 일상 프로그램이 제격이다.

또한 파주출판도시에 산재한 유관기관 - 온북TV, 파주타이포그라피학교, DMZ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메이크샵 아트센터, 아트스페이스 휴, 작가 아틀리에 및 소규모 공방 등 -들과 협력하여 다양한 내용의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대안적 출판물 생산을 병행함으로써 다원적 예술이 생산되는 문화 플랫폼으로 기능하도록 한다. 개별 출판사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가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하되, 통합적인 관점에서 볼 때 책방거리, 나아가 출판도시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을 띠는 방향으로 진행해 가도록 프로그램을 통합 관리한다. 운영 가능한 일상 프로그램은 유형별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4-6〉 책방거리 일상 프로그램 구성안

프로그램 유형	운영주최 및 시기
저자와의 만남 Authors' Talk	개별 출판사/ 신간 발행에 맞추되, 되도록 정기 프로그램
출판거리 책산책 Walking On Book City	전체 프로그램
책 잔치 Book Concert & Party	출판사들이 연합하여 분기별로 운영
북 디자인 강좌 Book Design Network	출판사- 출판도시 - 경기도/ 파주시 - 각 대학 연계
책 베품시장 Open Book Market	출판사들이 연합하여 격주로 운영
글쓰기 창작 워크숍 Creative Writing Workshop	각 출판사-출판도시본부 - 각 대학,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장기 프로그램으로 발전

나. 파주북소리 등 대표축제 육성

파주북소리는 시작과 동시에 국제 수준의 출판문화 축제로 자리매김하였으며, 깊이있는 주제 제시와 양질의 프로그램 구성, 안정적 운영으로 주목받고 있다. 출판도시를 일구어온 입주 기업들의 네트워크와 출판도시의 문화적 가능성을 인정한 국내외 기관들의 자발적 협력에 힘입은 성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층위의 관객 개발의 문제, 물리적 접근성 극복의 문제, 프로그램 구성에서의 실험성과 대중성의 경계 등 고민점들이 적지 않다.

올해 3회째로 접어드는 파주북소리를 다각도에서 분석해 장기적인 비전, 발전 계획, 안정적 예산의 확보와 운영, 프로그래밍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할 시점이다. 아시아를 대표하는 문학/출판 페스티벌로 성장하기 위해 해외 네트워킹의 강화와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노력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보다 적극적으로 국내외의 수준 높은 문화예술기관 및 타 페스티벌과 협업하여 출판 및 독서문화 진흥, 독자 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파주북소리의 발전 못지 않게 중요한 과제는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출판도시어린이책 잔치를 질적으로 끌어올리는 일이다. 좋은 프로그램의 개발에는 피치 못하게 예산이 연동되므로 예산의 증액이 선결과제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책축제는 대부분 판매행사 위주이거나 계몽적인 성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단기적인 성과에 연연하기보다는 좀 더 거시적인 시야에서 책의 가치를 높이고 책을 가까이하는 문화를 만드는 지식문화제로서의 성격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출판도시어린이책잔치와 파주북소리가 봄과 가을에 두 개의 큰 봉우리를 형성하고 그 사이를 일상 프로그램과 작은 이벤트들이 징검다리처럼 이어주는 것이 출판도시의 대외행사를 중심으로 한 문화지형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두 개의 책축제로는 출판도시가 갖고 있는 문화적 자양을 충분히 드러내 보여줄 수 없을뿐더러 우리 사회의 기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일이다. 우리나라의 허다한 축제는 소위 그나물에 그 밥이다. 붕어빵처럼 비슷하다 보니 축제에 대한 인식도 매우 부정적이다. 따라서 출판도시의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는 아류 축제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유니크함과 질적 내용을 담보해낼 수 있다면 새로운 축제를 개발하는 일에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장차 형성될 출판도시의 성격 가운데 하나는 영상산업이다. 따라서 이미 출판도시를 배경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DMZ 다큐멘터리영화제를 더욱 유니크한 영화제로 발전시켜나가는 과제가 중요해 보인다. 영화제에 출판인들과 2단계에 참여할 영화인들이 힘을 보태는 구조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출판도시의 또 하나의 이미지는 건축이다. 지난해 일본에서 막을 올린 서축전은 건축과 출판의 결합을 모색한 유니크한 축제로서 일본, 한국, 중국이 돌아가며 개최하기로 하고, 올해의 제2회 서축전을 출판도시에서 개최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한편 출판도시의 빛나는 건축과 미디어아트를 비롯한 빛 예술을 결합하는 빛축제가 준비되고 있기도 하다. 선 자리가 탄탄하지 못하고 내용이 부실하면 시작과 함께 사라져버리는 것이 신기루 같

은 세상사의 이치다. 책축제뿐 아니라 위에서 거론된 다른 장르의 축제들도 출판도시를 빛내줄 또한 출판도시의 정체성에 기반한 것이거니와 출판도시의 문화적 자산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해 본다. 출판도시의 미래의 모습에서 더욱 중요해질 것은 국제성이다. 파주북소리가 내건 목표 역시 아시아의 출판 허브가 되겠다는 것이고, ‘아시아 책의 수도’ 라는 선언에 부합하는 내용을 갖기 위해 Paju Book Award라는 이름의 아시아 출판문화상을 제정하고 아울러 세계 책마 을 심포지엄, 아시아작가대회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출판도시의 국제적 역할이 중요한 만큼 지금까지 단일 국제행사로서 출판도시의 위상을 떠받쳐온 국제출판포럼, 동아시아 책의 교류 심포지엄도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다. 출판문화 레지던시 운영

출판문화 레지던시 운영은 앞서 언급한 출판도시의 일상적 문화자원 통합 및 이를 통한 축제 구성이라는 큰 축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또 하나의 해법으로 제시될 수 있다. 지난 10년간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의 지자체에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작가 레지던시 프로그램 및 다양한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는 문학 창작촌을 떠올린다면 차별성을 담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출판도시야말로 문인들을 위한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필요한 최상의 공간이다. 개별 작가의 저작활동이 출판도시 안에서 수용되고 책의 형태로 생산되기 때문이다.

출판도시는 이미 2009년에 경기도와 협력하여, 파주출판도시 아트 플랫폼 'PAP'(Paju Bookcity Art Platform)이라는 이름으로 아티스트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진행한 바 있다. 당시 특별 사무국을 설치하여, 출판도시 내 출판사들의 동의와 참여를 이끌어내, 시각예술 분야의 작가들에게 작업공간을 내주어 창작을 진작시키고, 결과물을 바탕으로 전시회 등의 문화행사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작가들이 유희공간을 이용해 페인팅 작업을 하는 임시 스튜디오의 개념에서 크게 나아가지 못했다. 그럼에도 당시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던 작가들의 상당수는 아직도 출판도시에 머물며 작업하고 있다. 그들 가운데 다수는 아트스페이스 휴와 연계된 새로운 개념의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실험하고 있다. 메이크샵, 박영갤러리에서도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출판도시에 필요한 공간은 자칫 폐쇄적으로 흐를 수 있는 집필촌이 아니라 다양한 성격의 ‘저자’와 ‘출판문화’가 만나는 넓은 범주의 문화, 지식 생산과 교류의 장이어야 한다. 출판문화의 외연을 확장하고, 그것을 구성하는 인적 자원을 다변화할 때 비로소 문화적 다양성과 활기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운영방식 또한 좀더 젊고 역동적인 방법론이 필요하다. 전통적 개념의 문인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저작자, 예컨대 문학비평가, 극작가, 저널리스트, 학자와 리서처, 문화/독립출판 기획자, 시각예술가, 포토그래퍼 등을 대상으로 레지던시를 운영함으로써 한국문학과 예술계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길이 개척되기를 기대한다.

전통적 문학 창작촌의 틀을 탈피하여, 문학이라는 큰 카테고리 내외부에 연접해 있는 다양한 창조 인력들을 모을 수 있다면, 그 안에서 각각의 연구 진행과 수준 높은 문학교류가 이뤄지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레지던시를 통해 새로이 파생된 간학제적 연구와 토론의 결과물을 대중과 함께 공유해 그 의미를 배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집필과 연구를 위해 필요한 공간과 시간을 보장해 주되, 참여자들에게 그들이 진행할 수 있는 소규모의 일상 프로그램- 글쓰기 워크숍, 비평 토크, 오픈 스튜디오 등 -의 운영을 의뢰하는 것이다. 축제 기간을 이용해 레지던시 공간을 활용한 신작 발표회와 창작자간의 협업 공연 프로그램도 기획 가능하다.

그밖에도 파주북소리에서 해마다 주빈국을 정해 해당 국가의 작가 한두 명을 초청하여 해외 문학 소개와 함께 문학교류의 구심점이 되게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라. 공공성을 띤 교육 프로그램의 강화

문화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의 한 축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교육은 문화적 상상력과 파급력, 지식생산의 원천인 출판의 문화적 가치를 확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다. 가칭 ‘출판도시 인문학당’ 이나 ‘파주출판아카데미’ 를 설립하여 출판도시 전체를 하나의 공공 교육기관이 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다.

출판도시에는 수많은 출판사들이 모여 있고, 각 출판사들은 수십, 수백의 저자와 네트워킹되어 있다. 따라서 출판도시보다 더 좋은 양질의 교육기관으로서의 잠재력을 지닌 곳도 드물다. ‘100인 1,000’ 강좌 커리큘럼을 운영해보자는 의론이 일고 있다. ‘출판도시 인문학당’ 을 설립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100명의 지식인을 선정해 저자로 모시고 체계적인 커리큘럼에 따라 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다.

교육 콘텐츠는 비교적 풍부하다. 출판산업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다양한 인접 분야의 콘텐츠를 발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 프로그램은 우리 사회에 필요한 창의인력 양성, 예비출판인 교육, 현업 출판인을 위한 재교육 등 다양한 영역의 외부효과를 가져온다. 외부의 인적 자원을 유입해 청년 취업으로 연결되도록 하고, 도시 내의 활발한 업무 교류와 네트워킹을 유도해 궁극적으로는 출판도시 전체에 문화적 활기를 부여하는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다. 아래는 출판을 키워드로 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예다.

〈표 4-7〉 출판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영역과 유형

대분류	소분류	교육대상 및 협력기관	기대효과
디자인 교육	· 표지 디자인, · 북 일러스트, 타이포그래피, · 출판 전문 사진, · 북 아트	· 예비 출판 미술가, 업계 전문가 대상(감성적 실무 교육, 인문학적 접근의 디자인 교육) -파주타이포그래피학교 및 출판 관련 예술단체 등과 연계	· 합리적 수강비 책정하여 강사 섭외 및 일상 운영비 마련하고 출판도시내 인력 공급망 역할, 젊은 창조적 인력 흡수하여 도시의 문화적 활기 생성, 출판산업 및 출판 관련 행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배려
	· 출판 편집, 편집 디자인	· 출판 편집인(전문영역으로서의 출판 편집과 디자인 영역 강화)	
글쓰기 및 출판 비평	· 창조적/비평적 글쓰기 과정	· 모든 연령층(각 단계별 연령층을 위한 글쓰기 워크숍과 전문가 마스터클래스: 창조 지식산업 시대를 이끌어갈 원천기술인 글쓰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끌어내고, 폭넓은 범주에서 창조적인 글쓰기를 독려)	· 문학인 양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목적 - 자기 표현과 치유, 사회적 담론 형성 등 -에 부합하는 여러 유형의 글쓰기 과정 마련, 타과정의 수강생들과 협업하여 출판물 생산 및 글쓰기를 통한 축제 참여
	· 출판 번역 과정	· 외국어 및 외국문학 전공자(언어별, 장르별 번역 클래스 운영) -한국문학번역원, 국내 번역대학원 등과 연계	· 해외 및 국내 출판산업 교류 증진 및 산업의 양적, 질적 평창에 기여
	· 북 큐레이팅/ 아카이빙, 출판물 비평 전문가 과정	· 지식 생산의 또다른 형태로 원저작물에 관한 비평과 기록, 큐레이팅 개념 도입하여 출판산업의 문화 매개자 양성	· 출판물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상징, 문화비평과 아카이빙, 큐레이팅이 활발하게 적용되는 다양한 매개 전문가 육성
출판기획 및 경영	· 출판 기획과 독립출판사 운영	· 출판물의 기획과 출판사 설립, 지속가능한 운영에 관한 경영학적 관점의 강연 및 스터디 -출판사 및 온북TV 연계	· 다양한 성격과 규모의 출판사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례조사를 바탕으로 출판 '경영'의 최신 흐름과 논점 공유
	· 저작권 관리 및 출판 법률 전문가	·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출판 전문 법률 및 저작권 관리에 대한 내용 공유 및 전문가 풀 확대	· 저작권 관리와 출판 관련 법률 재교육(출판사 담당자) 및 예비 출판인 대상 실무 교육

문화기획 자 양성	· 문학/책 축제 프로그래밍	· 문학 및 책 문화 축제 전문 기획자 양성 프로그램	· 문화예술 기획이라는 넓은 범주에서 문학/책 기획자에 포커스. 출판도시 행사기획을 직접 실행해보는 방식으로 운영
	· 도시 비평 및 도시 디자이너	· 출판도시 기획 비평적 재점검, 국내외 여러 도시의 실험스터디, 간학제적 연구, 도시 기획 -국토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연계	· 한국적 도시 만들기 실험에 대한 분석과 대안 연구
기타	· 인문학 강좌	· 독자(다양한 주제의 인문학 적 주제와 시의성있는 주제를 깊이있게 다룰 수 있는 특강, 강연 시리즈)	· 출판사 저자 및 에디터, 대표, 독립저자 초청하여 지역민과 독자를 위한 열린 강좌 마련

2) 출판도시 자산을 활용한 문화 비즈니스 모델 창출

가. 투어 프로그램 모델 개발

현재 출판도시는 잠재력 있는 관광자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지로서의 면모는 저개발 상태에 있다. 서울에서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파주내 다른 곳을 방문하기 위해 잠시 지나치는 드라이브 코스, 혹은 봄·가을 축제 참여를 위해 가족 단위로 방문하는 정도이다. 긴 시간 체류하기에는 관광객들을 수용할 만한 별도의 시설도 관광 전략도 부재한 상태이다. 기본적으로 숙박이 가능한 공간과 식사를 해결할 식당 등 관광객을 위한 모든 시설이 절대 적으로 빈곤하다.

그러나 출판도시는 변화의 와중에 있다. 책방거리를 조성하고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일상 프로그램을 늘려가고 있는가 하면, 대규모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내방객이 늘고 있다. 책을 생산하는 도시에서 대중이 찾아와 책의 문화를 즐기는 공간으로 변신하고 있는 것이다. 출판도시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과 자원을 활용해 어느 관광지와는 차별화된 생산적이고 교육적인 관광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문화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 출판도시 내부적으로는 문화해설사를 양성해 이같은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의 우수한 산업자원을 활용해 가족 단위는 물론 청소년들의 단체 학습공간으로 개발하겠다는 산업관광 육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산업관광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단순 산업시찰이 대부분이며, 시장 규모도 매우 작다. 그러나 구미

를 중심으로 한 산업관광 선진국에서는 국가산업과 기업을 활용한 관광산업이 폭넓게 형성되어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융복합 고부가가치 산업관광 활성화 정책은 출판도시에게 하나의 기회이며, 정부 입장에서 산업관광의 다변화라는 차원에서 출판도시의 관광자원화는 큰 의미를 갖는다.

서울시교육청은 파주출판도시와 2013년 4월 MOU를 체결하였다. 출판도시의 자원을 학생들의 현장학습의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포석이다. 서울시교육청과 출판都市는 MOU를 계기로 출판도시의 교육 자원을 더욱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초중고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커리큘럼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출판도시 방문객들은 출판도시의 안내시설이 부족한 것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방문객들이 손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구축해야 하며, 물론 출판도시 곳곳에도 더 많은 안내지도를 설치하는 등 안내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출판도시를 활용한 성공적인 관광 프로그램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적 기능을 중심으로 출판도시의 특수성을 잘 살려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인근 지역의 뛰어난 관광자원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 출판도시 내에 관광 인프라가 부족하기는 하지만, 하루를 넘지 않는 짧은 투어 프로그램, 비즈니스와 산업 시찰에 중점을 둔 단기 프로그램, 기존의 먹고 쓰고 즐기는 소모적 여행의 정반대인 대안여행 프로그램의 개발을 우선 떠올릴 수 있다. 출판도시에서 가능한 프로그램과 그 단계적 모델 개발 전략은 아래와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그림 4-7〉 단계적 방문객 개발 모델

1일 투어 Book city Walking

: 일반인 대상 평일 프로그램
책방거리와 인근지역 도보여행

1박 2일 투어 Reading City

: 책 읽는 주말 프로그램
출판사들의 저자 초청 행사와 같은 일상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구성

2박 3일 프로페셔널 투어

: 전문가 및 외국 방문객 대상
인근 헤이리 예술마을, 통일전망대, DMZ까지 관광자원화, 학술 행사 및 축제 프로그램 연계

일주일 힐링 투어 & 독서 여행

: 출판도시 방문객이 저조한 여름/겨울 휴가 시즌을 역으로 활용하여 글쓰고, 읽기에 좋은 계절로 성인용 프로그램으로 포지셔닝, 바쁜 일상 속 도시로부터 멀리 여행을 가기 어려운 성인들과 가족 단위에게 몸과 마음을 잠시 내려놓은 힐링/독서/글쓰기 치료 투어의 컨셉 제시

나.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출판도시 창의학교 운영

출판도시는 전체가 교육자원으로 넘친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창의교육에는 더없이 좋은 곳이다. 이미 출판도시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그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출판도시 내에 위치한 서점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를 좀더 체계적이고 밀도 있게 운영하는 시스템의 마련이 중요한 시점이다. 서울시교육청과의 공동 프로그램 개발은 출판도시의 체험교육 시스템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중요한 전기가 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과의 협력사업이 계기가 되어 출판도시의 교육적 자산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 전국의 각급학교와 연계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른바 출판도시 창의학교를 설립해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과정 이수 개념이나 기간에 구애 없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다.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기간 동안에는 캠프 개념을 도입한 커리큘럼을 운영하도록 한다. 창의적인 글쓰기, 디자인, 아이디어, 타이포그래피, 건축, 생태 등의 다양한 주제가 커리큘럼에 포함될 수 있다. 각 출판사의 기획편집자, 레지던시 입주 작가, 출판사 전속 작가, 축제 초청 작가 등을 기획자 및 교육자로 활용해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기획하도록 한다.

프로그램의 초점을 문학적 글쓰기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 생태와 환경, 사회변화를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와 활동, 그리고 그 전개과정으로서의 디자인과 건축, 글쓰기로 확장해가는 것이다. 교육과정을 아카이브화하여 청소년 문학잡지나 기획보고서 등의 출판물로 퍼내 출판과정을 체험을 통해 이해하고 높은 성취감을 얻도록 유도해야 한다. 교육 프로그램의 성과는 다시 파주북소리 및 일상 프로그램으로 연결될 수 있다.

3. 생태도시 전략

1) 출판도시 에코시티 프로젝트 추진

파주출판도시는 구상 초기부터 생태도시로서의 지향점을 설정해 도시내 갈대샨강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기존의 자연지형과 특성을 존중하는 토대 위에 독특한 가치를 지닌 건축적 경관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출판도시의 주요한 철학적 지향점이었던 ‘생태도시’ 이슈는 문화정책적으로나 실제 운영상으로도 대중의 가슴에 크게 와 닿지는 않는 것 같다. 출판도시를 21세기형 에코시티로 재점화하는 노력은 출판도시내의 소중한 자연자원을 지역자원으로, 나아가 공공의 문화자산으로 보존하고 키워나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출판도시는 경관이 아름다운 건축도시에서 사람과 자연, 건축환경, 출판문화가 조화를 이루며 공생하는 미래형, 도심형, 비즈니스형 에코시티로 진화해야 한다. 생태환경을 기존의 출판

도시 시설들과 연계하여 문화자원화하는 지역 ‘맵핑’ 작업과 다양한 생태문화 프로그램의 구성이 필요하다. 또한 생태도시 이름에 걸맞게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탈것과 각종 기기에서 벗어나는 전략이 필요하다.

가. 갈대삿강의 생태환경 복원

출판도시 내 갈대삿강에는 저어새, 물총새, 백로, 개개비 등 다양한 새들이 살고 있고, 또한 여러 종의 자생식물이 자라고 있다. 그러나 자유로 형성 이전의 한강 물줄기로서 역사성 및 과거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갈대삿강이 오염에 찌들어 썩어가고 있다. 물길이 막혀 흐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오염원에 대한 역학조사가 이루어졌지만 아픈 삿강을 살리려는 노력은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있다. 장월평천과 연결하거나 다른 수원을 개발하여 연중 물이 흐르도록 해야 한다. 하상에 쌓인 오염원을 걷어내고 오염을 방지하는 생태환경을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갈대삿강의 물이 유입하는 1단계와 2단계 사이의 우수지의 기능 및 관리도 고민해야 할 과제다. 주변의 토지가 주로 농지로 사용되던 시기의 우수지에서 도시화된 현재의 환경변화를 고려해 출판도시의 생태환경을 떠받치는 비오톱 개념으로 그 중심 역할이 변모해야 할 것이다.

나. 수변공간의 예술공원화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는 수변공간을 예술공원, 생태공원의 성격으로 변모시킬 것을 제안한다. 수변공간에 어울리는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아름다운 예술공원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 철새와 석양, 빼어난 건축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생태공간이 조성되면 야외 음악회, 아티스트들의 퍼포먼스, 문학 낭독회, 실험적 이벤트의 장으로 변모할 것이다.

도시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수변공간을 활성화시킨 사례는 일본 교토의 가모가와 지구, 미국 샌안토니오의 리버워크, 영국 이스트런던 템즈강가의 도크랜드 등 무수히 많다. 많은 경우 미술관과 극장, 아트센터 등의 주요 문화적 시설과 프로그램을 수변공간을 따라 배치하여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문화시설뿐만 아니라 젊은 아티스트들과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광장을 마련하고, 주변 공간에 개성적인 카페, 레스토랑 등의 상업시설을 허용하여 젊고 역동적인 공간으로 장소 마케팅 및 도시 브랜딩을 수행해 나가는 점이 공통적이다.

출판도시의 생태적 환경을 특수하게 반영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예술행사를 개최하는 것도 방법이다. 특정한 공간에 일시적으로 설치했다가 철수하는 현대미술 작품보다는 일본의 에치코즈마리 트리엔날레 같은 대지미술제, 독일의 뮌스터 프로젝트 같은 생태환경을 활용

한 예술행사를 개최하여 출판도시 전역을 생태예술공원으로 변모시켜나가는 것이다.

2) 공용주차장 조성 및 친환경 내부 교통 시스템

가. 공용 주차장 조성

생태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친환경 교통 시스템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유럽의 생태도시 가운데는 차 없는 도시도 많다. 규모가 큰 도시들은 도심의 일부지역을 차량을 통제할 채 보행자 전용지구로 만들고 있다. 차 없는 거리가 역설적으로 도시를 활성화하는 사례가 빈번히 보고되고 있다.

아직 외부 방문객이 많지 않은 지금도 출판도시의 도로들은 주차장을 방불케 한다. 대중교통이 불편해 많은 사람들이 자가용으로 출퇴근하기 때문이다. 출판도시 외부에 두 군데의 대형 공용주차장을 조성할 것을 제안한다. 그렇게 되면 업무용을 제외한 차량들이 공용주차장에 주차하게 됨으로써 출판도시 내부가 한결 쾌적해질 것이다. 방문객들은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도시내 셔틀버스를 이용해 여유롭게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다.

출판도시 2단계 사업이 건축 초기 국면인 만큼 우선 1차로 1단계 남측 진입부인 북센 맞은편 농지에 주차장을 건설(66,000㎡, 2,000대 수용)하고, 2단계 사업부지에 면한 동측 진입로변에 2차 공용주차장을 건설(16,500㎡, 500대 수용)하는 방안이 있다. 두 군데 모두 절대농지라서 주차장 조성에 어려움이 없지 않지만, 농업진흥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선행절차를 밟아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관리지역으로의 변경절차는 ① 도시관리계획 결정 협의(10,000㎡ 이상은 농림식품부장관 협의) ② 고시(공고) ③ 농업진흥지역 해제 ④ 실시계획 인가에 따른 전용협의(100,000㎡ 이하 파주시장 협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는 약 235억 원(농지 매입비 15억=2,000 × 750천, 아스콘 포장비 220억 = 2,000대 × 1,100천원)으로 추정된다.

나. 친환경 내부 교통 시스템 도입

공용주차장과 출판도시 내부를 연결하는 교통수단은 친환경 교통 시스템을 도입한다.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이동수단으로는 도보와 자전거, 전기자동차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도보로 출판도시 전역을 걷기에는 어려움이 커 반드시 대체 교통수단을 강구하여야 하며, 자전거 역시 노약자와 어린이를 비롯한 다양한 연령층의 방문객을 고려할 때 주교통수단이 될 수는 없다.

도입 가능한 전기자동차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유선 전기자동차인데 적은 비용이 장점이지만, 많은 인원이 탈 수 없는데다 무엇보다 도로교통법상 도로를 주행할 수 없는 게 결정적인 단점이다. 둘째는 카이스트에서 개발한 무선 충전 전기버스다. 이른바 OLEV(Online

Electric Vehicle)라고 불리는 이 시스템은 2010년 과천시서울대공원에서 코끼리 열차라는 형태로 처음 도입되어 운행되고 있으며, 전기버스 형태로 발전되어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에서 시범운영되었다. 코끼리 열차는 방문객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상 도로를 달릴 수 없어 도입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표 4-8〉 친환경 내부 교통 시스템 비교

구분	친환경성	편리성	추정예산	비고
도보	친환경적	· 단지구도, 날씨(혹서, 혹한, 눈, 비) 등 고려 시 불편	-	
자전거	친환경적	· 노약자, 날씨 등 고려 시 불편	· 자전거도로, 자전거보관소, 자전거 구입비	· 보조수단으로 활용 가능
유선 전기자동차	친환경적	· 23인승(출판도시 1대 보유) 지붕만 있어 여름, 겨울 운행이 어렵고, 많은 승객 탑승 불가	· 대당 2,800만원 · 정류장 건설비	· 도로교통법상 도로 운행불가
OLEV (On-Line Electric Vehicle, 무선 전기 자동차)	코끼리 열차	· 96인승 지붕만 있어 여름, 겨울 운행이 어렵고, 안정화가 덜됨 *과천대공원 : 3대 운행 (11.7~)	· 대당 가격 6억원선 · 도로면 충전시설 필요 (3~4개소, 1개소당 1.5억) · 정류장 건설비	· 도로교통법상 도로 운행불가
	버스	· 45인승 운전기사 필요 안정화가 덜됨 *구미시 무선충전전기 버스 시범사업(13.7~, 왕복 24Km, 국토부 35억 지원)	· 대당 가격 6.5억~7억원 (3~4대 필요) · 도로면 충전시설 필요 (3~4개소, 1개소당 1.5억) · 정류장 건설비	· 도로에서 운행 가능

OLEV는 2010년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50대 발명품, 2013년 세계경제포럼(다보스)이 선정한 세계 10대 유망기술에 뽑혔음에도 아직 안정화가 덜 되고 상용화 초기단계라는 한계가 있다. 다행히도 경북 구미시가 국토부의 지원을 받아 무선충전 전기버스 시범운영사업을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므로 도입을 결정하는데 좋은 참고사례가 될 것이다. 이는 24킬로미터 구간을 달리는 노선버스로서 전기버스가 일반도로를 주행하는 것은 세계 최초다. OLEV는 도로바닥에 전기를 공급하는 급전선로를 깔아 그 위를 달리며 자동충전되는 시스템인데, 급전시설은

전체 운행구간의 10%에만 구축하면 되고 한번 충전으로 20킬로미터를 운행할 수 있다.

여러 가지 방안 가운데 파주출판도시의 여건을 고려할 때 가장 적절한 내부 교통 시스템은 무선충전 전기버스(OLEV)라고 생각된다. 정부가 국토부 주관의 국가 R&D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출판도시 관련 정책결정자들이 의지를 모으면 국가 시범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을 것이다.



제5장

법률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

제1절 제도개편의 배경과 필요성

제2절 파주출판도시 발전의 제도적 제약요인

제3절 제도 개선방안

제5장 법률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제1절 제도개편의 배경과 필요성

파주출판도시의 공식 명칭은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개발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관리되는 법률상의 산업단지이다.

파주출판도시는 1997년 3월 31일 건설교통부에 의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었으며(건설교통부 고시 제1997-95호), 같은 날 산업단지 개발기본계획이 확정(건설교통부 고시 제1997-95호)되었다. 이후 1998년 8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에 의해 산업단지 관리업무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위탁되었으며(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1998-39호), 1999년 2월 1일 산업자원부에 의해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의한 관리대상 산업단지에 포함되고, 관리기관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지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산업자원부 고시 제1999-15호).

파주출판도시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과제, 가령 도시적 기반시설의 부족과 같은 문제점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산업단지가 겪고 있는 일반적인 것으로, 도시와 산업단지의 공간적 이격이라는 1970년대 이래 내려온 관행적 입지선정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파주출판도시의 현안과제 중 일부는 파주출판도시의 주력업종인 출판산업의 특성에 따른 고유한 것이다.

파주출판도시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개발한 주목적은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째는 21세기 고도 정보화사회에 대비하여 출판영상 등 지식정보산업을 중심으로 한 출판문화산업을 집적화하여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며, 둘째는 출판도시를 국제 문화정보 교류 및 한국 전통문화의 공연과 전시가 이루어지는 “통일 한국시대의 문화중심지”로 육성하는 것이다(건설교통부 고시 제1997-95호). 지정 당시부터 파주출판도시는 단순한 산업단지가 아니라 출판업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산업의 집적거점이자 문화활동의 중심지로 계획되었던 것이다.

인쇄업이나 출판업의 단순한 집적을 통해 이러한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다. 문화산업의 집적거점이나 문화활동의 중심지로 파주출판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동종업종간의 교류나 이업종간의 교류만으로는 부족하다.

일반적으로 문화산업은 기획자와 재화의 생산자 및 최종소비자 사이의 긴밀한 교류를 통해 산업발전이 이루어진다.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1항에서 문화산업을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으로 규정하는 것은 이러한 특징을 반영한 것이다. 대표적 문화산업으로서 출판산업 또한 그러한 특징을 지닌다. 출판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작가 등 창조적 활동에 종사하는 자의 역량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아

이디어의 창출자에서부터 디자인, 유통, 최종소비자 등의 긴밀한 교류와 공감대 형성을 필요로 한다.

문화산업의 집적거점이자 문화활동의 중심지로서 파주출판도시는 기업과 지역사회에 이를 위한 공간과 기회를 제공하는 장(場)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파주출판도시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을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산업단지로서 파주출판도시는 나름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파주출판도시의 구성에 따라 파주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출판문화산업 중심도시 가운데 하나로 성장하였다. 인쇄 및 인쇄관련산업의 경우 전국 매출액의 9.8%와 경기도 매출액의 27.3%가 파주시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기록매체복제업의 경우 전국 매출액의 20.0%와 경기도 매출액의 33.4%가 파주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의 경우 전국 매출액의 10.6%와 경기도 매출액의 58.3%가 파주시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파주출판도시가 교류와 소통을 위한 공간과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중심지의 위상을 확보하고 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파주출판도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최근의 한 연구⁷⁾에 따르면 현재 파주출판도시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 계획 및 관리로 인해 출판산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융복합의 곤란, 3개 주체가 관여하는 사업주체의 복잡성 등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평가는 파주출판도시가 그 조성목적과 달리 인쇄출판업으로 특화된 산업단지로서는 성과를 거둔 반면 문화산업의 집적거점이자 문화중심지로서의 위상 확립에는 미진한 상태에 있음을 시사한다.

파주출판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 중 주요한 부분은 도심지향성이 강한 출판산업 산업단지를 기존 시가지에서 이격된 교외지역에 건설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정 이후 10여년이 지나는 동안 산업구조의 변화 등 많은 여건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였던 것도 사실이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출판산업 생태계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중심의 기존 산업단지와 같은 시각으로 파주출판도시에 대해 접근함으로써 지역과 산업의 특성을 살린 발전전략이 부재하였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는 파주출판도시가 그 개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7) 이상훈 외(2012), 「파주출판도시 활성화 방안」, 경기개발연구원.

제2절 파주출판도시 발전의 제도적 제약 요인

파주출판도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출판산업과 문화산업의 특성을 살린 개성있는 발전전략의 부재를 들 수 있다. 출판도시 조성 목적으로 문화산업의 집적거점과 문화중심지 형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전략은 사실상 보이지 않는다. 조성 이후 산업환경의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조성 당시 수립된 관리기본계획이 현재까지 변경없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전략 부재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출판도시의 목적 달성을 위한 차별화된 발전전략의 수립과 그 집행수단의 확보에는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서는 단기간 내에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과제를 중심으로 제도적 제약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입주업종 기준의 불합리

파주출판도시의 활성화와 발전을 가로막는 대표적 제약요인으로는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내 입주허용 업종이 출판산업의 특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입주허용 업종과 비교하여서도 불합리한 부분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현행 산업단지관리계획에 의하면 파주출판도시의 산업시설구역 내에 입주 가능한 주요 시설 및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펄프·종이 및 판지 제조업(171), 출판업(581, 592), 상업인쇄 및 인쇄관련 서비스업(181), 기록매체 복제업(182), 소프트웨어 자문·개발 및 공급업(582), 영화·방송 및 기타 공연·전시 관련 산업(591, 592, 601, 602, 901, 902) 등이다.

〈표 5-1〉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내 산업시설구역 입주허용 시설 및 업종

구분	산업시설구역 입주허용 시설 및 업종
건축물의 범위	1)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공장의 부대시설 2) 출판, 영화, 공연·전시, 방송, 인쇄, 소프트웨어 개발, 기록매체 복제, 출판·인쇄 관련 종이제품 제조 건축물·공작물과 그 관련시설 3) 출판, 인쇄, 영화, 방송을 위한 협동화사업 관련 건축물 4) 폐기물 처리시설용도 :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폐기물처리 관련 건축물 5) 물류시설 용도 : 보관 및 창고업, 하역 및 운송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물류시설 관련 건축물
입주대상 업종	1)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펄프·종이 및 판지 제조업(171), 출판업(581, 592), 상업인쇄 및 인쇄관련 서비스업(181), 기록매체 복제업(182), 소프트웨어 자문·개발 및 공급업(582), 영화·방송 및 기타 공연·전시 관련 산업(591, 592, 601, 602, 901, 902), 다만 펄프·종이 및 판지 제조업(171)의 경우 출판·인쇄 관련 종이제품 제조업에 한 함, 또한, 전시 관련 산업(902)의 경우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에 한하며, 건물 전체면적의 2/3를 초과하여 운영 할 수 없음. ※ 이하 생략

입주자격	1) 산업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공장 2)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중소기업협동화사업 실천계획 승인을 받거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조합 설립인가를 받아 협동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업체 3) 영화, 방송, 공연·전시 관련 산업 및 소프트웨어 자문·개발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4) 출판, 인쇄, 기록매체 복제업 및 출판관련 종이제품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5) 출판 관련 물류시설 및 일반 창고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지정용도에 한함)
------	--

*출처: 한국산업단지공단,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파주출판도시의 조성목적 가운데 하나인 문화중심지로의 육성을 위해서는 유치업종의 결정 시 산업시스템을 적절히 반영하여야 하나, 현재의 관리계획은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이러한 산업시스템을 반영하고 있는 반면 최대 특화업종인 출판업에 대해서는 반영하지 않고 있다.

파주출판도시의 산업시설구역 입주허용업종인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한국표준산업분류 591)의 경우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591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5912),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5913) 및 영화 및 비디오물 상영업(5914)이 포함된다. 이중 영화 및 비디오물 상영업(5914)은 다시 59141(영화관 운영업)과 59142(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으로 구분되는데, 이에선 실내 영화관이나 자동차 영화관은 물론 비디오 방과 DVD 방 등도 포함된다. 이는 현행의 관리기본계획에 의하면 비디오 방과 DVD 방도 산업시설구역 내에 조성원가로 입주할 수 있으며, 영상산업으로 입주허가를 받은 사업체가 사업장 내에 이러한 시설을 합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달리 산업시설구역 내 입주가 허용된 출판업(581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592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의 경우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를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기능은 배제되어 있다. 문화산업 가운데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한국표준산업분류 591)에 대해서는 기획에서 제작 및 관련서비스업, 배급 및 상영에 이르는 전단계를 허용하고 있으나, 중심산업인 출판에 대해서는 출판물의 판매(도·소매업)의 입지를 불허하고 있는 것이다.

서적 소매업 등이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의한 문화산업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이들 시설의 산업시설구역 입주가 허용되지 않는 것은 초기 지정단계에서 문화산업으로서 출판산업이 가지는 특성이 반영되지 못한데 따른 것이다. 사실 파주출판도시의 산업단지 지정 시점에는 문화산업이라는 개념조차 정립되기 이전이며,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 입주허용 산업에 문화산업이 포함되지 않고 있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문화산업의 개념이 포함된 것은 2001년도이며, 이 시기부터 서적 소매업은 서비스업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산업이라는 틀을 빌려 산업시설구역 내 입주가 가능해졌다고 할 수 있다.

〈표 5-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의 산업단지 정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1999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01년)
산업단지라 함은 공장·지식산업관련시설·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자원비축시설등과 관련 교육·정보처리·유통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제고를 위하여 시설의 종사자와 이용자를 위한 주거·문화·의료·관광·체육·복지시설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의 토지	산업단지라 함은 공장·지식산업관련시설·문화산업관련시설·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자원비축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정보처리·유통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제고를 위하여 시설의 종사자와 이용자를 위한 주거·문화·의료·관광·체육·복지시설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의 토지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파주출판도시의 산업단지 지정 시점에 문화산업으로서 출판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것은 당연하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10여년 전에 산업단지의 개념이 확대·개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대표적 문화산업 집적지인 파주출판도시에 제도 개편의 개념이 그 유치업종에 반영되지 못한 것은 설명하기 어려울 것이다.

2. 기업지원 기능의 취약

문화산업의 입지는 대도시 지향성이 강한 반면 현재 파주출판도시는 대도시지역이 제공할 수 있는 각종 인프라나 도시적 서비스가 부족하며, 다양한 관련 주체의 상호교류가 곤란한 실정이다. 따라서 파주출판도시의 활성화는 기존에 입주한 기업(출판사 등)을 활용하여 도시적 활력을 제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타 문화산업의 입지를 견인할 수 있는 도시적 서비스 기능을 확충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출판도시는 물적 시설 위주의 관리기능만이 수행되고 있을 뿐 입주기업지원 기능 등에 취약하며, 관리기능 또한 지역과 입주기업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파주출판도시의 관리는 입주기업 관리, 공급처리시설 관리 등 제조업 중심의 다른 산업단지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양한 관련주체들의 상호교류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단지의 활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관리기본계획은 파주출판도시의 관리기본방향을 다음의 5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 파주출판도시 관리의 기본방향

- 가. 단지내 산업시설, 연구시설, 주거시설, 지원상가시설, 문화복지시설 등의 복합 기능을 갖춘 21세기 미래형 첨단단지로 육성·발전
- 나. 합리적인 산업시설배치를 통하여 산업단지 운영의 효율성 제고
- 다. 적정 입주기업 선정유치 및 지원활동 전개
- 라. 폐기물처리장, 공원, 완충녹지 조성등으로 환경친화적인 단지조성
- 마. 생활편의를 위한 종합지원센터 건립유치로 입주기업체 생산성 향상 및 근로자 후생 복지 도모

이러한 기본방향 하에 관리기관은 분양용지의 관리, (오염물질) 환경관리, 안전관리, 기반 시설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에 적용되는 일반적 관리기능으로 문화산업이자 서비스산업으로서 출판산업의 특성은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다.

물론 현행 관리기본계획의 내용이나 관리기관의 역할은 관리기관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관리기관은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관리권자가 위탁한 업무만을 수행한다. 현재 산업단지 관리업무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 산업단지의 관리업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에 관한 업무
2. 공공시설, 지원시설 및 공동시설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
3. 산업용지의 매각·임대, 그 사후관리 및 산업단지의 입주에 관한 업무
4.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을 위한 공장·지식산업센터, 그 밖의 시설의 설치와 그 매각 및 임대
에 관한 업무
5.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을 위한 용수·전기·증기·가스 및 유류의 공급에 관한 업무
6. 산업용지 및 시설의 설치·유지·보수 또는 개량에 따른 이용자로부터의 비용징수에 관한 업무
7. 산업단지구조조도화에 관한 업무
8.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기술·인력·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업무
9. 환경친화적 산업단지의 구축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업무
10. 산업단지 안의 시설의 경비 및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업무
11. 그 밖에 산업단지의 운영 및 입주기업체의 생산 활동지원에 필요한 업무

일반적으로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관리기관을 기업지원기관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법률에 의한 관리업무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관리기관의 주요 업무는 토지용도 및 시설관리가 중심이 된다. 입주기업체 지원에 관한 사항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이 또한 관리기관이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라기보다는 정부 시책사업을 대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입주기업 지원과 관련하여 파주출판도시의 딜레마 가운데 하나는 출판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시책사업이 주요 문화체육관광부에 의해 주관됨에 비해 현행 관리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관장하는 법률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이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결과 관리기관이 정부를 대행하여 출판도시내 입주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역할에는 한계가 나타나며, 이로 인해 출판도시 입주기업협의회에서는 출판도시의 자체 관리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제3절 제도 개선방안

1. 출판도시 산업시설구역 내 입주허용 업종의 확대

1) 서적 등 출판물 판매업의 입주허용 필요성

파주출판도시가 지정 및 개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도시적 활력을 제고하고, 문화중심지로서의 장소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중심산업인 출판산업의 활성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파주출판도시의 산업시설구역에 서점 등의 입주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출판업의 기획-생산-유통 등 산업의 모든 단계에 걸친 기능의 집적을 통해 산업생태계의 형성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출판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최종소비자와 작가, 출판사 등 관련주체의 지속적이고 일상적인 교류가 필요하며, 이는 최종소비자를 파주출판도시로 견인하는데서 시작되어야 한다.

둘째, 최종소비자의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파주출판도시 내에서 도시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용이해지며, 이러한 도시적 서비스 제공기반이 확보될 경우에만 영상 등 다른 산업의 지역내 입지가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도시 지향성이 강한 영상산업 등의 유치를 위해서는 파주출판도시가 단순한 산업단지가 아니라 문화적 활력이 넘치는 지역이라는 이미지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출판물 소비자의 지역내 유입은 문화산업의 집적거점으로서 출판도시의 활력을 제고하고, 문화중심지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셋째, 현행 관리기본계획이 안고 있는 입주허용 업종기준의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현행 관리기본계획에서 입주를 허용하고 있는 영상산업의 경우 기획에서 생산, 지원서비스, 배급 및 상영 기능이 모두 산업시설구역내에 입주 가능하나 중심산업인 출판업은 유통기능이 배제되는 모순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상 문화산업이 서적 등의 유통·판매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에도 부합한다.

2) 산업시설구역내 입주허용 업종 확대를 위한 제도적 대안 검토

출판문화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주체들이 상호교류할 수 있는 장소로서의 기능을 갖추기 위해 교류와 소통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출판업체들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부분은 서적소매업과 편의음식점이 결합된 소위 북카페의 설치이다. 이미 파주출판도시에는 사옥 일부를 활용한 북카페 설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북카페는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 내 입주허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설치·운영되고 있

는 시설의 대부분은 편법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북카페의 산업시설구역 입주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위의 두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다만, 여기에서는 다른 제도를 통해 입주업종의 확대 가능성이 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해 전체 6가지의 대안을 검토하였다. 현행 제도 틀 내에서의 허용가능성 검토, 문화산업진흥지구나 특구제도 활용방안 검토, 용도지역 변경, 개발계획 및 관리기본계획 변경, 파주출판도시와 같은 전문화된 산업단지에 대한 특례조항 도입 등이 포함된다.

▶ 북카페

- 영업형태: 서점(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4761)/도서관(9021) + 카페(5622)
- 운영형태:
 - 가. 출판사 직영(인문카페 창비, 문지문화원 사이, 후마니타스 책다방 등)
 - 나. 지자체, 사회단체 운영(제주시, 종로구, 마포구, 양산문화원 등)
 - 다. 일반인 운영
- 현황 및 추세
 - 가. 서울 마포구와 파주출판도시 중심으로 출판사가 직영하는 북카페 증가
 - 나. 서울시: 주민이 운영하는 마을 북카페 사업 공모
 - 다. 지자체, 노인복지관: 지역커뮤니티 활성화 및 문화공간 위해 북카페 개소
 - 충남 배방읍: 신도시의 문화시설 부족 현상 타개 위해 북카페 개소
 - 도봉구: 마을 폐가 리모델링해 북카페 씨앗+ 개소(지역 커뮤니티 공간화)
 - 마포구: 만리배수지공원 관리동 리모델링해 마실길 북카페 개소
 - 라. 대안공간 북카페: The 꿈꾸는(도봉구), 페다고지(울산), 길담서원(종로) 등
- 해외사례
 - 가. 파월스북스(미 오리건주): 세계 최초 북카페(서점에서 커피를 팔기 시작)
 - 나. 리처드부스 북숍(영국 헤이온와이): 서점을 북카페로 개조해 명소화
 - 다. 하우스웍스 북카페(뉴욕): 시민단체 하우스웍스에서 기증받은 책 판매. 뉴욕 소호의 명소
- 북카페의 특징
 - 가. 문화공간(저자와의 대화, 강연회, 낭독회, 전시회, 공연 등 개최)
 - 나. 지역 커뮤니티의 구심 및 소통 공간
 - 다. 책을 보고 음악을 듣고 사유하며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힐링 공간
- 북카페 정의
 - 가. 일정수량(최소 500권)의 책을 구비해 독서 혹은 책을 구매할 수 있는 곳
 - 나. 정기적으로 저자와의 대화, 강연회 등 문화행사가 펼쳐지는 곳
 - 다. 책을 보며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거나 커뮤니티의 소통을 돕는 곳
 - 라. 음료 서비스는 북카페 활동을 촉진하는 매개체로서 제한적 의미를 지님

결론적으로 보면 개발계획 및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방안과 전문화된 산업단지에 대한 특례조항의 설치 방안만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중 전자(前者)의 경우 출판물 소매업은 비교적 명확하게 입주를 허용할 수 있으나 북카페를 구성하는 휴게음식점의 설치가 제한된다는 한계가 있으며, 후자(後者)의 경우 타부처 소관 법률의 개정사항으로서 파주출판도시 하나의 사례만을 대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 소요된다는 약점이 있다. 각 대안별 분석결과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현행 제도 틀내에서의 허용 가능성

제도 개선에 앞서 현행 제도의 틀내에서 북카페 등의 설치 여부가 가능한가를 살펴보았다. 현행 제도의 틀 내에서의 가능성을 검토한 두 가지 경우는 첫째, 북카페를 산업시설구역에 입주가능한 기업의 부대시설로 간주할 수 있는가의 여부와 둘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7항이 정한 “관리기본계획 변경 없는 유치업종 선정”의 경우에 해당할 수 있는가의 여부이다.

결론적으로 보면 이들 두 가지는 대안이 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부대시설의 경우 자사 제품의 판매에 국한하여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 한계로 제기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공장의 부대시설 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산업시설구역의 공장(기업)부지에는 부대시설로서만 판매장 등이 입주가능하며, 이때 판매장은 자사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제한된다(동 시행규칙 제2조 8항). 또한 동 규정에서는 식당 등의 경우도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시설에 한정하고 있어 사실상 종사자를 위한 구내 식당만을 부대시설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고, 타사 출간 서적의 판매까지도 추진하고 있는 파주출판도시 입주 출판사의 요구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부대시설의 범위)

1. 사무실·창고·경비실·전망대·주차장·화장실 및 자전거보관시설
2. 수조·저유조·사일로 및 저장조 등 저장용 옥외구축물(지하 저장용시설을 포함한다)
3. 송유관, 옥외주유시설, 급·배수시설, 변전실, 기계실 및 펌프실
4. 폐기물처리시설 및 환경오염방지시설
5. 시험연구시설 및 에너지이용효율 증대를 위한 시설
6. 공동산업안전시설 및 보건관리시설
7. 식당·휴게실·목욕실·세탁장·의료실·옥외체육시설·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시설
8. 제품전시·판매장(해당 공장의 생산제품을 전시·판매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원자재 및 완제품 등을 싣고 내리기 위한 호이스트
9. 그 밖에 해당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한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1항에서는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 입주자격을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입주대상산업 및 시설로서, 해당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을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산업시설구역 내 입주대상산업의 범위는 법 제2조 및 동시행령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동 시행령 6조 5항 9호에서는 관리기본계획에서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해당 산업단지의 유치업종으로 지정한 산업의 경우 법률과 시행령이 정한 산업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관리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관리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도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할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동 시행령 제6조 7항). 따라서 이 조항에 근거하여 북카페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산업단지 관리지침」 제7조에서는 상기의 시행령 제6조 7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권자가 입주자격을 승인할 때에는 승인하려는 면적이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 총면적의 3%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산업단지 관리지침 제7조 2항)고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통해서도 현재 파주출판도시에서 제기되는 북카페 등의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동 규정이 관리기본계획변경 의무만을 면제할 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정한 개발계획 변경 의무를 면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7항의 규정을 근거로 입주업종을 허용하는 방안은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나.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등을 통한 토지이용 특례 가능성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서는 문화산업진흥시설과 문화산업진흥지구라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문화산업진흥시설이란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유치함으로써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을 의미한다. 문화산업진흥지구란 문화산업 관련 기업 및 대학, 연구소 등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집적화를 통한 문화산업 관련 기업 및 대학, 연구소 등의 영업활동·연구개발·인력양성·공동제작 등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이들 중 진흥시설은 단일의 건축물 내에 다수 시설이 입지하여야 하고, 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이 의무화되어 있어 제도 도입의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문화산업진흥지구의 경우에는 각종 부담금 감면,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어 입주허용업종의

확대에는 활용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문화산업단지 제도가 규정되어 있으나 그 개발절차 등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토록 규정하고 있어 별도의 검토는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을 통한 토지이용 특례 가능성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 특구법)」에 의해 도입된 제도로,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특화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나아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특구법 제1조),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을 기초로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다(특구법 제4조).

특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는 특구법 제3장에서 규정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다음의 특례 조항이 특구지정의 목적에 따라 학교설립에 관한 특례(제17조),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제20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관한 특례(제21조),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제22조) 등 등의 다양한 규제특례가 적용된다.

특구법이 정하고 있는 일반특례 조치 가운데 토지이용과 관련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32조)가 대표적이거나 이에서는 용적률과 건폐율의 완화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파주출판도시가 당면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제완화조치를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제3장 2절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특례 사항 또한 특구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유치지역의 지정,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 등등이 의제될 뿐(특구법 제39조) 파주출판도시의 현안과제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특례조치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지역특화발전특구의 경우 출판도시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입주업종 확대에는 적용 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이 아닌 새로운 특구제도의 도입가능성 또한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문화특구와 같은 새로운 특구 제도가 도입될 경우에도 다른 법률에 의해 개발되고 관리되는 사업지구에 대해 관련 법률적 절차를 배제한 특례제도를 도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주요 유치업종의 변경을 개발계획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중요한 변경사항으로 간주하고 있어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내 유치업종의 변경을 의제하는 특구제도를 도입하는 것조차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라.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관리기본계획상 유치업종의 변경

유치업종 변경을 위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산업단지 개발계획과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것이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개발계획과 관련한 중대한 변경이 발생할 경우 개발계획을 변경토록 규정하고 있다. 개발계획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중요 사항은 산업단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면적변경, 주요 유치업종의 변경,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의 변경 등이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준공된 산업단지의 경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발계획 변경 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나 이에서 말하는 경미한 사항은 주요 유치업종 범위 내에서의 배치계획의 변경 등에 한정하고 있어 입주업종 확대에 적용될 수는 없다.

※ 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3)

- ①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개발행위 등은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해당 개발행위 등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 승인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산업단지지정권자는 미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관리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3)

법 제1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개발행위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산업단지 지정면적 변경 중 실체 측량결과에 의한 정정
2. 주요유치업종 범위 내에서의 배치계획의 변경
3. 토지이용계획상 각 시설별 및 용도별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다만, 누적 변경의 합이 100분의 10 이상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너비 15미터 미만인 도로의 신설 또는 폐지
5.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규모나 용량의 100분의 50 미만의 변경. 다만, 누적 변경의 합이 100분의 50 이상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동 시행령 제42조에서도 산업단지 지정권자와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 관리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입주업종의 변경은 법규에서 정한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파주출판도시의 입주업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개발계획과 관리기본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북카페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산업시설구역 입주허용 업종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이다.

먼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할 경우 서점은 산업시설구역 내에 입주 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동법 제2조에서는 산업시설용지의 입주용도 중 하나로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서 정한 문화산업 관련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며,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에 의하면 출판·인쇄·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은 문화산업에 포함된다. 이는 개발계획의 변경을 통해 서점을 유치업종에 포함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북카페를 구성하는 또다른 업종인 휴게음식점의 경우 문화산업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산업시설용지 입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7의2.

“산업시설용지”란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용지를 말한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산업시설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에너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에너지공급설비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재생에너지 설비
3.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의7에 따라 산업단지 안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대학시설
4.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및 물류 시설 등과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 문화산업의 범위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정의)

- 가. 영화·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
- 나. 음악·게임과 관련된 산업
- 다. 출판·인쇄·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
- 라.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 마. 문화재와 관련된 산업
- 바.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에듀테인먼트·모바일문화콘텐츠·디자인(산업디자인은 제외한다)·광고·공연·미술품·공예품과 관련된 산업
- 사. 디지털문화콘텐츠,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가공·개발·제작·생산·저장·검색·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
- 아.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활용하여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산업으로서 의상, 조형물, 장식용품, 소품 및 생활용품 등과 관련된 산업
- 자. 문화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박람회·견본시장 및 축제 등과 관련된 산업. 다만,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의 전시회·박람회·견본시장과 관련된 산업은 제외한다.
-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각 문화산업 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달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문화산업을 입주업종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시행령 제6조에 의하면 산업시설구역 내에 입주가능한 입주기업체의 업종으로는 출판업만이 해당하며 도서 소매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정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18호)

입주기업체”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자원비축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운영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3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를 말한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② 법 제2조제18호에서 "지식산업"이란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7. 출판업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5항에서는 관리기본계획에서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해당 산업단지에의 유치업종으로 지정한 산업」을 입주기업체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어 필요시 관리계획의 변경을 통한 입주업종 확대를 허용하고 있다. 단, 이 경우 또한 동조항의 취지가 휴게음식점을 포함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움이 있는데 이는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이 개발계획과 연계되어 있어 개발계획이 정하지 않은 유치업종을 관리기본계획에서 허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18. “입주기업체”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자원비축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운영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3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를 말한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⑤ 제2조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9. 관리기본계획에서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해당 산업단지에의 유치업종으로 지정한 산업

따라서 개발계획과 관리기본계획의 변경을 통하여 도서 소매업의 입주는 허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휴게음식점의 경우 계획변경을 통해서도 입주는 허용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적 등 출판물에 대해서만 소매업을 유치업종으로 허용하고, 휴게음식점의 경우 종사자를 위한 부대시설로 운영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으나 현재 파주출판도시내 북카페의 대부분이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음료를 판매하고 있어 편법적 운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개발계획과 관리기본계획의 변경은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 먼저 개발계획의 경우 산업단지 유치업종에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 정한 문화산업을 추가하는 방안과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1호 다목 “출판·인쇄·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을 유치업종에 포함하는 방안 두가지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개발계획과 관리기본계획은 유치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로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문화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으로 규정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의 문화산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나, 우선적으로는 출판·인쇄물의 판매업(도·소매업)만을 한국표준산업분류로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관리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이 수립한 「과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의 변경 또한 동일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서적 소매업 등 출판물 소매업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에 해당하나 이는 중분류의 해당 업종 가운데 서적 소매업만으로 유치업종을 한정하는 방법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관리기본계획에서 중분류에 해당하는 펄프 및 종이제조업을 유치업종으로 하되 출판·인쇄용 종이제조업으로 한정하는 조항을 삽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편, 출판물영상 등의 유통·판매업 입주허용은 산업생태계 구축을 촉진하고, 생산된 문화상품의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교류를 확대하는데 일차적 목적이 있다. 따라서 출판물 소매업 등이 해당 업종이 과주출판도시 주력 업종화 하는 것은 제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출판물 소매업 등의 입주는 전체 사업장 면적의 일부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관리계획은 물류시설용지에 출판물류 외 일반물류에 대해서도 1/3 범위 내에서 입주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원용하여 유통·판매업의 입주허용 면적을 대상 부지 내 사업장 면적의 1/3 범위 내에서만 허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마. 개발계획변경을 통해 산업시설용지를 지원용지로 전환하는 방안

개발계획과 관리기본계획의 변경을 통해 서적 소매업의 입주를 추진할 수는 있으나 휴게음식점의 입주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④ 대안을 도입할 경우에서 북카페 설치 문제를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산업시설용지를 지원용지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실제로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 입지한 아울렛의 편법적인 타사 제품 판매와 관련하여 정부는 아울렛이 입지한 용지를 지원시설용지로 용도 변경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다.

지원시설용지에는 서적소매업과 휴게음식점 등의 입주가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방안의 도입을 과주출판도시에서도 검토할 수 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동 시행

령에서는 산업단지의 경우 산업시설용지 면적이 전체 분양대상 면적의 50%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시설용지를 지원시설용지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 동규정에 저촉여부를 사전에 판단하여야 한다. 현재 파주출판도시의 토지이용계획에 의하면 일부 산업시설용지를 지원시설용지로 전환할 경우에도 동 규정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파주출판도시의 여건 및 북카페 설치 요구의 본질을 고려하면 상기 방안의 도입은 실익보다 손실이 클 것으로 보인다. 첫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동 시행령 및 이에 근거하여 수립된 「산업단지 관리지침」에서는 관리기본계획의 변경을 통해 산업시설구역의 용지를 지원시설용지로 전환할 경우 지가 상승분 차액의 50%를 기부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현지에서 기업활동을 계속하고자 하는 기업은 실질적인 재정수입 없이 향후 부지 매각시 예상되는 기대수입을 근거로 막대한 규모의 추가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거나 기존 부지를 1/2 수준으로 축소하여야 한다.

※ 용도구역변경에 따른 지가 차액기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⑧)

관리권자는 관리기본계획의 변경으로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로부터 구역변경에 따른 지가상승의 범위에서 산업용지 및 시설을 기부 받아 산업단지의 기반시설 확충 등 입주기업체 지원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45조의6에 따라 산업단지구조조도화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재투자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43조의2)

- ② 법 제33조제8항에 따라 관리권자가 산업용지 및 시설을 기부받을 수 있는 범위는 제1항에 따른 지가상승 분의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른 관리지침으로 정한다.
- ③ 법 제33조제8항에 따라 기부받는 산업용지 및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관리한다.
1. 해당 산업용지 및 시설이 국가산업단지 안에 있는 경우: 국유재산법
 2. 해당 산업용지 및 시설이 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안에 있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산업단지 관리지침 제8조 ⑤)

영 제43조의2 제2항에 따른 지가상승 분의 기부범위는 100분의 50으로 한다.

둘째, 파주출판도시 입주기업은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아울렛과 달리 특정 부지 전체를 지원시설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산업시설구역 내에 입지한 출판사 등의 사용 일부를 북카페 등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즉, 수평적 토지이용의 변경이 아니라 건축물 내에서의 용도의 복합화가 파주출판도시 입주기업의 요구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토지용도의 변경은 기업의 요구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아닐 수 있다.

셋째, 산업시설구역내 용지를 지원시설용지로 전환하는 것은 관리기본계획과 개발계획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중대변경에 해당한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사례는 산업단지내 입주업체

의 폐업이나 해외이전 등 다양한 요인이 결합되어 나타난 결과이자, 오랜 시간동안 편법적으로 운영되던 사례에 대해 사후적으로 조치한 결과이다, 즉,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사례는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을 사후적으로 인정한 예외적 조치라 할 수 있다. 파주출판도시 등 다른 산업단지에 대해 토지이용계획을 대폭 변경하는 것은 우리나라 산업단지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주요한 사안이다. 파주출판도시에서 입주기업의 요구에 따라 용도변경을 허용할 경우 향후 산업시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의 지가 차액이 큰 다른 산업단지에서 유사한 요구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개발계획과 관리기본계획의 주관부처에서는 용도변경을 전제로 하는 계획변경을 승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바. 전문화된 산업단지에 대한 특례제도의 신규 도입

일반적으로 하나의 산업단지 내에는 다양한 업종이 입주한다. 현행 산업단지 개발관리제도는 산업단지에 입주한 다양한 업종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산업단지내 업종별 배치계획이나 환경시설의 설치운영, 환경 위해업종의 공간적 이격 등은 하나의 산업단지 내에 성격이 다른 다양한 업종이 입주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에는 특정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단지의 개발이 증가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부처들도 자신들이 관장하는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문화된 산업입지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산업단지 중에는 문화관광체육부의 요청에 따라 개발된 파주출판도시,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개발된 오송생명과학단지가 그러하며, 농림식품부의 요청에 따라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식품클러스터 또한 관계 중앙부처의 요청에 따라 전문화된 국가산업단지로 개발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환경부에서 관장하는 자원재활용단지는 중앙부처가 개발하는 전문화된 일반산업단지의 사례이다.

이러한 전문화된 산업단지는 다양한 업종이 입주하는 일반적인 산업단지와 성격이 다르며,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서비스나 지원서비스 또한 다르다. 파주출판도시에서 현안의 하나로 제기되는 북카페의 설치문제는 전문화된 산업단지의 요구를 기존 제도가 반영하지 못함에 따른 결과로도 볼 수 있으며, 전문화된 산업단지의 개발이 활성화될수록 유사한 문제가 계속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파주출판도시의 사례를 계기로 하여 전문화된 산업단지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특례조항의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문화된 산업단지가 갖추어야 할 요건은 별도의 추가연구가 필요한 사항으로 여기에서 논할 수는 없으나 파주출판도시 산업시설구역 내 북카페의 설치문제를 이와 관련하여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산업의 집적거점과 문화중심지 육성을 위해서는 교류와 소통의 공간이 필요하다. 대표적 문화산업으로서 출판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획자와 작가 및 독자와의 교류공간이 필요하

다. 기존의 사옥이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공간을 공간적으로 이격된 장소에 별도로 구비하여야 할 이유도 없거니와 사옥을 활용한 교류공간은 단순한 상업시설과는 달리 문화시설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상업지역 내에 입지한 북카페는 세련된 휴게음식점에 불과할 수 있지만 출판사 사옥에 입주한 북카페는 현대화된 문화공간으로서의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파주출판도시의 북카페 사례를 계기로 전문화된 산업단지 내의 입주허용 업종 기준을 변경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산업시설구역 내에 상업업무시설이 입지하는 것은 이미 고가로 지원시설용지를 분양받은 수분양자와 갈등을 유발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은 입주업종의 특성 등을 면밀히 고려할 경우 완화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단지 내로의 인구유입이 증가할 경우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그러한 이익을 지역사회가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의 유사한 사례로 산업단지 내에 건설하는 지식산업센터를 들 수 있다. 지식산업센터 내에는 최대 50%까지 생산지원시설이 입주할 수 있으며, 수도권 내 지식산업센터의 경우에는 30%, 산업단지 내의 경우에는 20%까지 지원시설이 입주할 수 있다.

※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가능한 생산지원 시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 ②)

1. 금융·보험·교육·의료·무역·판매업(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자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하기 위한 시설
2. 물류시설, 그 밖에 입주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어린이집·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면적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면적범위 이내의 시설만 해당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또는 같은 표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다목에 따른 상점(음·식료품을 제외한 일용품을 취급하는 상점만 해당한다)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 (이하 생략)

정부는 전문화된 산업단지에 대해서도 관계중앙부처와 입주기업의 의견을 들어 이러한 규정의 도입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파주출판도시의 북카페 설치를 이러한 문제해결의 계기로 간주하여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전문화된 산업단지를 위한 규정의 정비에 장기간이 소요될 경우 현안문제의 해소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첫째, 전문화(특화)된 산업단지의 개발과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지정권자는 해당 산업단지의 생산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경우 산업시설구역 내 설치를 법률이 정한 규모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산업시설구역의 정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7의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데, 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산업시설구역 내 입주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동 시행령 1조의 2에서는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및 물류 시설 등과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도 산업시설용지에 입주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산업 관련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 국토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의 범위에 북카페를 포함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를 포함하여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다른 산업 또한 유사한 경우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단서조항으로 “해당산업의 주무부처가 입주기업과 관리기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시설” 을 신설하거나 또는 상기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1조의 2에 의해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내에 이러한 내용을 삽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 산업시설용지의 정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7의2호)

산업시설용지란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용지를 말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법률 제2조제7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에너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에너지공급설비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3.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의7에 따라 산업단지 안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대학시설
4.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및 물류 시설 등과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둘째, 준공된 산업단지의 경우 신설된 규정을 근거로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의 의견을 들어 지정권자 및 관리권자에게 해당시설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신청하고, 지정권자 및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한다.

다만, 산업단지 본연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고, 개발계획 변경 절차 등을 면제하기 위하여 생산지원시설의 설치에 해당 필지내 사업장 면적의 일부(지식산업센터를 준용할 경우 20% 이내)를 기준으로 한다. 사업장 면적의 일부가 아닌 부지의 일부를 상기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개발계획 변경 등 산업시설용지의 용도변경에 따른 기존 규정과 절차를 적용한다.

동 규정에 근거하여 파주출판도시 관리기관은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한다. 북카페는 서점과 휴게음식점이 결합된 형태로 그 바닥면적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 따라서 파주출판도시 산업시설구역 내

건축물에 대해 사업장 면적의 일정 범위 내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운데 서점과 휴게음식점의 설치를 허용하는 조항의 신설을 신설한다.

※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종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슈퍼마켓과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나.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서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필지분할 최소규모 제한의 완화

파주출판도시 내 입주허용 업종을 확대하거나 출판사 사옥이 입지한 부재 내에 서적 소매업 등의 입주를 허용할 경우 입주기업의 규모는 현재에 비해 다양화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소규모 필지의 필요성이 나타날 수 있다. 제조업 중심 산업단지의 경우 대부분 대규모 필지 중심으로 공급하는데 이는 소필지화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부담의 증가와 분양의 난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파주출판도시의 경우 대규모 필지를 유지하여야 할 이유가 희박하며, 이러한 여건을 고려하여 다른 산업단지에 비해 소규모로 필지를 구획하여 공급한 바 있다. 그러나 서적 소매업 입주허용 등 여건변화에 따라 소규모 필지의 수요는 더욱 증가할 수 있다. 산업생태계의 발전을 위해서나 문화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도 중견규모 기업이 건설한 사옥 내에 소규모 기업이 임대형식으로 입주하는 것 보다는 다양한 규모의 기업이 서로 어우러져 공존·혼재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수 있다.

현재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의 분할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와 동 시행규칙 제39조의3 및 관리기관이 수립한 관리기본계획에 의해 규정된다. 이들 법규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용지의 분할은 건축물이 없을 경우 1,650㎡를 최저로 하며, 건축물이 있을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제3호에 따른 면적 이상으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파주출판도시 관리기본계획에서는 필지분할의 최소규모를 1,650㎡로 건축물이 없는 경우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 산업집적법 제39조의2(산업용지의 분할 등)

- ① 관리권자·관리기관 및 사업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건축물이 없는 것을 말한다)를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미리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② 입주기업체가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후에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를 분할하거나 그 공유지분을 처분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입주기업체는 미리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의 분할기준 등)

- ① 법 제39조의2제1항 전단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천650제곱미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용지의 경우에는 그 분할면적기준을 900제곱미터부터 1천650제곱미터까지의 범위에서 법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2에 따라 공급되는 산업용지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6제1항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산업용지
- ② 법 제39조의2제2항제1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제3호에 따른 면적 이상으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을 말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80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을 말한다.

1. 주거지역: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60제곱미터

※ 파주 출판문화정보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산집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제2항에서 정하는 산업단지 최소 필지분할 면적은 1,650㎡이상으로 함.

파주출판도시의 산업시설구역 입주허용 업종의 일반적 규모에 비해 최소 필지규모가 과대하여 기업의 다양한 입지요구에 부합이 곤란할 수 있다. 2007년 현재 서적 등 출판업의 경우 건물 연면적 기준 사업장 면적이 1,000㎡ 이상인 업체는 전체의 6.8%에 불과하며, 다른 업종 또한 유사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표 5-3〉 출판업 등의 기업체 사업장 규모 분포

(2007년 기준, 건물연면적)

구분	출판업계			영상·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계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계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소프트웨 어 개발 및 공급업	계	영화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30㎡ 미만	207	78	129	34	33	1	197
30㎡-50㎡	1,192	669	523	119	105	14	238
50㎡-100㎡	3,093	1,325	1,767	1,064	856	208	512
100㎡-300㎡	3,780	1,299	2,481	1,704	1,549	155	508
300㎡ 이상	2,837	1,061	1,776	711	669	43	364
300㎡-1,000㎡	2,141	690	1,450	431	395	37	176
1000㎡ 이상	696	371	326	280	274	6	188
계	13,946	5,493	8,452	4,343	3,881	464	2,183
1000㎡ 이상 비중	5.0%	6.8%	3.9%	6.4%	7.1%	1.3%	8.6%

*출처: 통계청 KOSIS, 도소매업 조사.

따라서 필지분할의 최소규모를 출판업과 영상산업 등의 수요에 부합하도록 축소 조정할 필요가 있다. 현행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2에 따라 공급되는 산업용지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6제1항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산업용지에 대해서만 분할면적기준을 900㎡부터 1,650㎡까지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규정 내에 “특정산업의 입주를 목적으로 개발하는 산업단지, 입주업종의 특성상 대규모 기반시설의 설치 등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여 건축물이 들어선 부지의 분할 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현행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한 최소 분할기준 1,650㎡는 제조업 중심 산업단지에서 적용될 수 있는 규모로 파주출판도시 유치업종의 성격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3. 관리기관 등의 기업지원 기능 강화

1)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의 관리현황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이하 ‘파주출판산업단지’)는 출판사 및 관련사가 참여한 민간 중심의 세계 최초의 출판문화산업단지로서, 출판업 중심의 1단계 사업은 2003년에 준공되었으며 현재는 영상방송, 소프트웨어 관련업 중심의 2단계 사업이 진행중에 있다. 2단계 사업완료 후 출판·인쇄·영상·방송 및 통신업체 간의 경쟁 및 상호협력을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로 연간 2조원 규모의 생산이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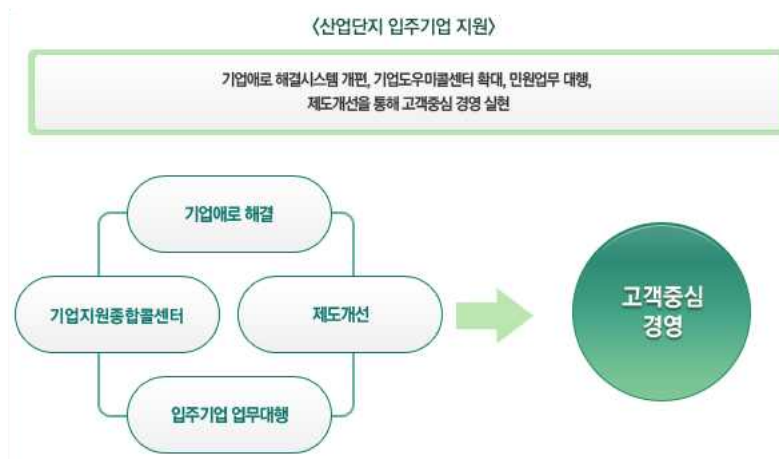
파주출판산업단지는 산업단지관리공단 파주지사, 출판도시입주기업협의회, 출판도시문화재단 등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2단계 사업은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이 주체가 되어 추진하고 있다). 파주출판산업단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국가산업단지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관리기관의 부재로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산업단지공단을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였다.

〈표 5-4〉 파주출판도시의 기관별 주요 업무

기관명	소속	주요 업무
산업단지관리공단 파주지사	지식경제부	· 기업 입주 인허가 관련 업무
출판도시입주기업협의회	입주기업체	· 산업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
출판도시문화재단	문화체육관광부	· 출판산업육성 사업 및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운영 업무

한국산업단지공단 파주지사는 파주출판산업단지의 법적 관리기관으로서 1997년 이후 법률상의 입주업체 인·허가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입주기업협의회는 파주출판도시 1단계 사업의 개발주체인 사업협동조합의 후신으로서 약 145개사가 회원으로 가입하여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포괄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출판도시문화재단은 파주출판산업단지내 복합문화연구시설인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문화재단의 주요 사업은 출판문화 및 지식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전시·교육·보급 사업과 국제회의 및 문화예술 행사 개최, 출판도시 홍보, 호텔 및 레스토랑 운영을 통한 수익사업 등이다.

〈그림 5-1〉 한국산업단지공단 파주지사의 주요 업무



*출처: 한국산업단지공단 (www.kicox.or.kr/).

〈표 5-5〉 출판도시입주기업협의회 개요

구 분	내 용
설립목적	·파주출판산업단지 개발주체로서 출판도시 건설을 위한 기업지원의 전반적 기능 담당
관리대상	·입주 회원사 145개사(2010년 현재)
관리인원	·9명
주요업무	·개별사옥 여유공간 활성화, 대중교통개선 및 셔틀버스 운행, 공동직장 보육시설 건립 ·홈페이지 운영 및 활성화, 산업단지를 위한 제도개선, 문화행사·교육·홍보 ·도시관리, 지역사회교류, 생태환경 보전, '파주출판산업단지책방' 운영 ·지체상금처리관련업무, 도서연감발행, 소위원회 활성화
재원조달	·기금의 이자수입, 입회비, 연회비, 국고보조금(출판문화행사)
수익사업	·셔틀버스 운행, 도서판매, 촬영, 행사 등

〈그림 5-2〉 출판도시입주기업협의회 조직도



2) 관리상의 문제

파주출판도시는 중앙정부의 문화체육관광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토해양부와 연계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의 대표적 문화산업 집적지라는 점에서 경기도와 파주시 또한 그 발전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한 파주출판도시는 그 사업의 추진이 출판인들이 구성한 협의회에 의해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다른 국가산업단지와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출판도시 발전에 대한 입주기업의 관심도가 높은 지역이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주체의 참여가 파주출판도시의 성장을 위한 자원이라기보다는 제약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최근 이루어진 한 연구⁸⁾에서는 파주출판도시의 약점 중 하나로 3개 단체가 관여하는 사업주체의 복잡성을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입주기업의 다수는 형식적 관리에 그치고 있는 현행 관리기구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을 대체하여 입주기업협의회에서 관리를 담당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산업단지의 관리는 관리권자가 관리업무를 위탁한 기관이 담당하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에도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관리공단, 입주기업협의회 등이 관리기관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포항 등 특정기업용으로 개발된 경우나 자원비축기지를 제외하

8) 이상훈 외 (2012), 「파주출판도시 활성화 방안」, 경기개발연구원.

고는 한국산업단지공단⁹⁾이 관리하고 있으며,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나 입주기업협의회 및 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다.

이중 관리에서 가장 취약한 산업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일반산업단지로 대부분 1-2인의 직원이 관할 구역내 모든 산업단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담당업무 또한 입주기업 관리에 그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경우 20인 이상의 인력을 고용하여 관리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 또한 대부분 환경시설 관리에 집중되어 있을 뿐 기업지원 기능은 실질적으로 미약하다. 가령 경상북도에 위치한 'A산업단지관리공단'의 경우 전담인력이 23인에 달한다. 그러나 이들 중 7인이 본부업무를 담당하며, 16인이 환경관리소 업무를 담당하여 기업지원과 관련된 기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⁹⁾. 이러한 이유의 대부분은 이 전담인력 고용을 위한 비용문제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앞서 지적하였듯이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대부분 관리기관을 기업지원기관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나 「산업단지관리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들의 기능은 토지이용 및 시설관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현재 관리기관의 역할이 기업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대부분 법률적·재정적 문제에 기인하며, 이는 입주기업협의회에서 관리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러한 문제점 외에도 입주기업협의회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업무가 중복 수행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가 있다. 법적인 관리주체인 한국산업단지공단 파주시사와 입주기업체의 대표기관인 입주기업협의회가 각각 독립적으로 관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비효율이 초래되고 있다. 특히, 사업진행 과정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 파주시, 문화관광체육부의 승인절차를 별도로 받아야 함으로써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점은 문화산업단지를 기존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와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어 문화산업이 갖는 변화성, 다양성, 유연성 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제조업 중심의 국가산업단지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파주출판산업단지의 특수성을 감안한 관리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 당시 단지 내 출판산업 박물관 및 전시관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관리기본계획에 미 반영되어 있어 파주출판산업단지 개발계획에 반영되었던 전시 및 판매시설이 방치되고 있고 입주기업 내에 조성된 전시, 서점, 카페 등의 상업·문화시설 운영이 불허되고 있다.

하지만 입주기업협의회는 공식적인 관리기관이 아니어서 공신력과 대표성을 갖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다. 특히, 입주기업협의회는 법적인 권한의 부족으로 산업단지 운영에 있어 입주업체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9) 류승한 외 (2010), 「녹색성장시대 선도를 위한 산업입지정책 방안」, 국토연구원.

3) 개선방안

파주출판도시가 단일의 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제도 개편을 통해 관련지원기관이나 산업진흥기관을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가령 환경부에서 개발하는 재활용단지의 경우 개발절차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정한 국가일반산업단지 개발기준을 따르나 관리권은 산업단지를 조성한 자가 가지며, 환경부 장관이 조성한 단지의 경우 지자체나 한국환경공단 등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재활용단지의 관리·운영)

- ① 재활용단지의 관리·운영에 관한 권한은 재활용단지를 조성한 자가 가진다.
- ② 환경부장관이 조성한 재활용단지의 경우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재활용단지의 관리·운영을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12.24)
 1. 시·도지사
 2. 한국환경공단
 3. 삭제
 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재활용단지를 관리·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그러나 파주출판도시의 경우 출판산업뿐만 아니라 영상산업 등 다수의 산업이 입주한다. 또한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리권을 지닌 국가산업단지이기 때문에 관리기관의 변경이나 기업수요에 부합하는 관리기능의 수행을 위해서는 부처간 협의를 통한 제도개편이 필요하다. 따라서 관리기관의 개편이나 기능재편에 대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제도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기업지원강화에 대한 입주기업의 요구를 부인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출판도시의 현안문제나 기업지원을 위한 단기적 대안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지방자치단체, 입주기업협의회 및 관리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파주출판도시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산업단지 관리업무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관리업무의 다양성, 유연성, 전문성 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경쟁체제의 도입방식은 ‘관리권한은 현행체제를 유지하고 관리기관 선정에 경쟁체제를 도입’ 하는 방안(準정부기관, 민간기업 참여 가능), ‘관리권한을 산업통상자원부로 통합하고 관리기관 선정에 경쟁체제를 도입’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가 있다.

4. 복합용도구역의 허용

현재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용도구역은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등 4개의 구역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와 같은 용도별 구획에 따라 구역별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어 제조형 중심의 단조로운 산업단지 형성 및 근로자 편의 저해라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창조경제의 구현을 위해 미래 산업단지가 갖추어야 할 기능 유치에 큰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 용도구역별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시설구역

- 1) 「산업집적법」 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 2)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공작물과 그 관련시설
- 3) 보관·창고·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공작물과 그 건축물
- 4) 「산업집적법」 제2조 제13호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
- 5)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나) 지원시설구역

- 1) 「산업집적법」 제2조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 2) 「산업집적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
- 4) 건축법시행령의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운수시설, 자동차관련 시설 등의 시설로서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다) 공공시설구역

- 1)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라) 녹지구역

- 1)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용도별 구획은 각각의 위계가 동등하기 때문에 허용 용도의 범위가 획일적으로 분화될 수밖에 없어서 용도의 복잡이 불가능하고 이에 따라 산업단지 토지활용의 경직성이 야기되고 있다. 분화된 용도개념은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에 필요한 기능간 복합적인 제약사항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단층공장 일색의 평면적 토지활용을 초래함으로써 비효율을 발생시키고 있다. 특히, 출판문화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인 시설의 배치와 융합이 필요하지만 현재의 용도구역 개념 하에서는 수익시설과 비수익시설의 적절한 배합을 통한 사업추진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근로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파주출판도시를 방문하는 소비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에서 창조 지향적인 산업단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행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4개 용도별 구역에 더해 복합용도구역을 추가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 생산기능뿐만 아니라 주거, 판매, 교육, 연구개발기능 등이 일정 구역 내에 함께 입지하는 복합용도를 허용한다면 문화산업 중심의 산업단지를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산업단지 내에 복합용도구역을 허용한다면 문화 소비자들을 위한 편의시설과 입주기업을

위한 지원시설의 확보가 용이해져 파주출판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다. 또한 수익성 사업과 비수익성 사업의 적절한 분배를 통해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사업 시행자의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사업 추진이 보다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림 5-3〉 복합적 산업입지의 개념



*출처: 산업연구원 외 (2008),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추진전략 수립 등을 위한 연구」.

5. 파주출판도시특별법 제정

파주출판도시는 1,2단계 합쳐 150만㎡에 이르는 규모로서, 세계 유일의 출판문화 클러스터이자 방송, 영상, 소프트웨어, 전시, 공연을 아우르는 융복합 산업클러스터로서 창조경제의 실험적인 모델로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파주출판도시가 활성화되고 경쟁력을 갖기 위한 당면 현안을 중심으로 법률 제도의 개선방안을 살펴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파주출판도시가 우리나라 지식문화의 정체성을 지켜내는 보루이자 세계 여러 나라가 경제논리에 서 벗어나 출판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특수성에 비추어 좀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출판도시의 발전전략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된다.

파주출판도시는 국가산업단지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의 요청에 의해 개발된 유일한 곳이다. 따라서 조성의 목표 역시 그러하거니와 다른 산업단지와는 관리 및 운영논리 등이 달라야

함에도 통상적인 산업단지 관리방법에 의거함으로써 출판도시가 갖는 장점이 꽃피지 못한 채 활성화가 지체되었다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위에서 전문화된 산업단지에 맞는 제도 개선 곧 특례조항 등을 마련해 전향적으로 당면현안을 풀어가야 함을 제안한 바 있다.

한편 앞서 본 연구는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가 파주출판도시의 현안과제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특례조치를 포함하지 않고 있으므로 출판도시 입주사들이 바라는 입주업종 확대에는 적용 가능성이 낮다고 결론지었다. 새로운 특구제도의 도입 또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의 유치업종 변경 등과 관련한 현안에서는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

당면현안은 개발계획과 관리기본계획의 변경이나 특화산업단지에 대한 특례조항의 마련을 통해 풀어가더라도 무한경쟁의 지구촌 경쟁시대에 우리 지식문화의 보루를 지켜내고, 세계 유일의 출판문화 클러스터를 국제경쟁력을 갖는 글로벌 창조경제 클러스터로 발돋움시키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마련이 시급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관계부처와 국회가 나서 파주출판도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 특구 지정은 기존 산업단지에도 중복 지정할 수 있거니와 문화지구나 지역특화발전특구(파주 출판문화복합산업지역특화발전특구)가 검토될 수 있으며, 정책의지에 따라 인천 송도 등과 같은 좀 더 전향적인 방안이 적용 가능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경기콘텐츠진흥원 (2012), 「2011 경기도 콘텐츠산업 실태조사」
- 대한출판문화협회 (2012), 「2012 베이징 국제도서전 한중출판세미나 자료집」
- 대한출판문화협회 (2011), 「세계 출판 컬렉션 1~5」, 대한출판문화협회
- 대한출판문화협회·한국출판인회의 (2012), 「출판위기 극복과 대신 후보 정책 제안을 위한 범출판계 토론회」
- 류승한 외 (2010), 「녹색성장시대 선도를 위한 산업입지정책 방안」, 국토연구원
- 문화체육관광부 (2012), 「출판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 (2012~2016)」
- _____ (2012), 「2012년 3분기콘텐츠산업동향분석보고서」
- 문화체육관광부·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2011), 「한국출판역사박물관 건립을 위한 기본 구상 연구」
- 배형민 (2009), 파주출판도시와 공공성의 경계, 강수미 외, 『공공미술: 건축과 참여: 플랫폼 2009 심포지엄 자료집』
- 산업연구원 외 (2008),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추진전략 수립 등을 위한 연구」
- 신지은 외 4인 (2008), 『세계적 미래학자 10인이 말하는 미래혁명』, 일송북
- 이상훈 외 (2012), 「파주출판도시 활성화 방안」, 경기개발연구원
- 임학순 (2003), 『창의적 문화사회와 문화정책』, 진한도서
- 출판도시문화재단 (2007), 『비와 바람의 도시일지 1988-2007』
- _____ (2013), 『별과 구름의 도시일지 2007-2012』
- _____ (2008), 『파주 책마을 이야기』
- 토문컨설턴트 (1995),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기초조사 연구」
-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2010),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2단계협동화사업계획서』
- 하나도시연구소 (2011), 「파주출판도시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 연구」
- 한국산업단지공단,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산업단지현황」
- _____,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2003.1.29. 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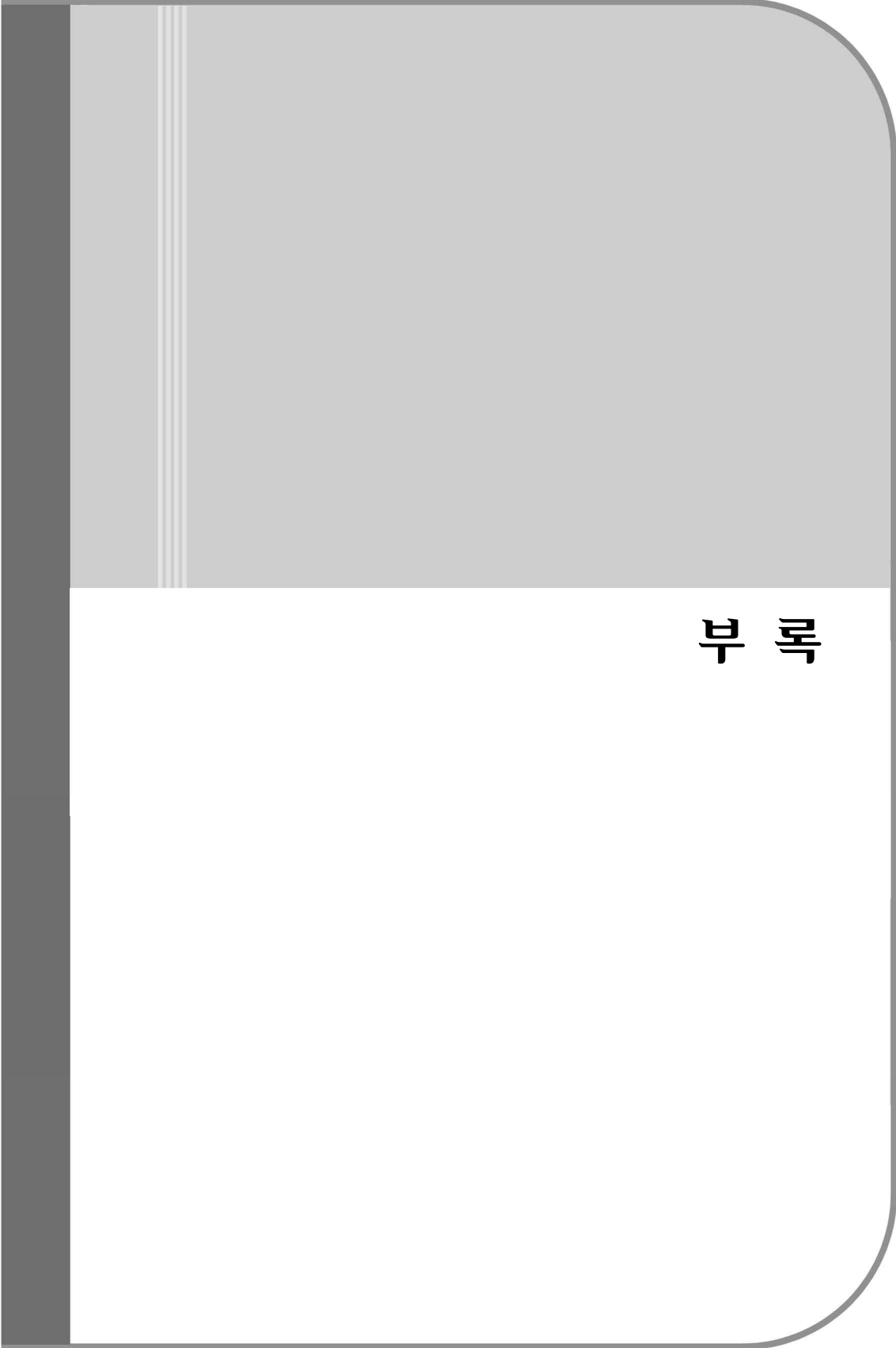
- 한국일보, 세계의 소프트시티를 가다 <8>에센 - 광산도시에서 예술을 캐다, 2010. 7. 22
- 한국출판연구소 (2012), 「한국 출판산업의 디지털 생태계 현황 조사연구」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2), 「콘텐츠지식/KOCCA 연구보고서」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0), 「2010 해외콘텐츠시장조사(출판)」
- 환경부·한강-임진강 시범사업관리단 (2009), 「파주출판도시 내 습지의 생태현황조사 및 조성방안 연구」

해외문헌

- Adapted from METI (2002), Current Situation in the Publishing Industry, Tokyo
- G. M. Peter Swann, Martha Prevezer, David K. Stout (1998), *The dynamics of industrial clustering: international comparisons in computing and biotechnology*, Oxford University
- Montgomery Jhon (2003), "Cultural Quaters as Mechanism for Urban Regeneration, Part I: Conceptualizing Cultural Quaters". *Planning, Practice & Research*, vol.19(1), 3~31.
- Porter, M.E (1990),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Nations*, New York, Free Press.

웹사이트

- 구글 (www.google.com)
- 네이버 (www.naver.com)
- 독일 오버하우젠 가소미터 (www.gasometer.de)
- 독일 오버하우젠국제단편영화제 (www.kurzfilmtage.de)
- 독일 오버하우젠 투르비네할레 (www.turbinenhalle.de)
- 위키백과 (ko.wikipedia.org)
- 출판도시 입주기업협의회 (www.bookcity.or.kr)
- 통계청 (www.kosis.kr)
- 핀란드 헬싱키 디자인 지구 (www.designdistrict.fi)
- 한국산업단지공단 (www.kicox.or.kr)



부 록

3. 출판도시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 ① 직원 채용
- ② 교통
- ③ 주차, 식사, 보육, 여가생활 등 생활편의 부문
- ④ 법적 제도적 규제
- ⑤ 기타 : ()

4. 전후방 연관산업과 관련한 거래처 가운데 출판도시내 업체의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출판사의 경우 기획사, 저작권 에이전시, 편집대행사, 북디자인회사, 지업사, 인쇄소, 제본소, 라미네이팅사, 도서물류회사 등)

- ① 아주 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아주 낮음

5. 출판경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현재의 경영 현황은 어떠한가요?

- ① 흑자 ② 현상유지 ③ 적자

6. 흑자가 나지 않거나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불경기(경제 전반의 위축)
- ② 출판인쇄산업이 사양산업이라서
- ③ 사욕을 지으면서 발생한 부채 때문
- ④ 기타 : ()

7. 출판산업 불황의 지표를 파악하기 위해 최근의 매출액 추이를 알고 싶습니다.

	2010	2011	2012
매출액			
비고			

*가급적 수치를 적어주시되 불가피할 경우에는 지난 2년간 또는 지난해 대비 매출액 증가 및 감소분 변화를 백분율로 표기해주시시오.

- ① ()% 증가 ② ()% 감소

8. 출판도시 입주사의 대부분은 건축자금을 대출로 조달하였습니다. 그 여파가 여전히 큰데 귀사의 현황은 어떠한가요?

- ① 대출금을 사용하지 않았다
- ② 대출금을 사용하였으나 전부 상환하였다
- ③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대출금을 사용하였으며,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다
- ④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대출하였으나 원금 분할상환이 부담되어 금리가 높은 금융기관으로 대출처를 변경해 이자만 납입중이다
- ⑤ 다른 금융기관 혹은 기타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였으며, 대출금이 남아 있다

9. 출판도시의 활성화가 더딘 이유는 산업단지라는 데서 연유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출판도시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산업시설용지에는 산업시설(출판사 및 인쇄소

등)만이 들어설 수 있으며, 2010년 제도개선으로 소프트웨어, 영상, 전시 등의 입주업종 확대가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서점(현재는 자사 도서 전시 판매만 가능)조차 개설이 불가능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산업단지 관련법의 개정이나 개발계획 및 관리계획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현재의 산업단지 관련법은 준수되어야 한다
- ② 문화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10. 출판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시설용지내의 업종확대가 가능하다면, 무슨 업종이 허용되는 게 바람직한지 희망업종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복수 기재 가능).

희망업종:()

11. 제도적으로 출판도시의 자율적 관리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 ① 입주업체의 비용 부담이 없다면 관리권을 양도받아 자율적으로 관리
- ② 입주업체의 비용 부담이 있더라도 관리권을 양도받아 자율적으로 관리
- ③ 현재처럼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관리
- ④ 모르겠다

12. 출판도시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책방거리 조성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취지에 공감해 귀사의 유희공간에 책방을 개설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 ① 있다 ② 없다 ③ 현재는 없으나 상황에 따라 가능

13. 책방을 열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귀사에서 책방을 내기 위한 전제조건은 무엇입니까?

14. 출판도시가 활성화되지 않은 채 출판불황이 계속된다면 서울 등 타지역으로 이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입주사들이 있는데 귀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 ① 이전 계획이 있다
- ②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전부 또는 일부라도 이전을 고려중이다
- ③ 이전 계획이 없다

15. 그밖에 출판도시의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의견 혹은 정책대안이 있으면 자유롭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설문

1. 출판도시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출판산업 집적화에 의한 시너지
- ② 건축
- ③ 생태환경
- ④ 책을 중심으로 특성화된 문화공간
- ⑤ 기타 : ()

2. 출판도시 1단계 조성의 목표는 얼마 만큼 달성되었다고 생각하는지 그 정도를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아주 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아주 낮음

3. 출판도시 이전을 고려하면서 마주치는 가장 큰 걱정거리는 무엇입니까?

- ① 직원 채용(이직)
- ② 교통
- ③ 주차, 식사, 보육, 여가생활 등 생활편의 부문
- ④ 법적 제도적 규제
- ⑤ 기타 ()

4. 출판도시의 활성화가 더딘 이유는 산업단지라는 데서 연유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출판도시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산업시설용지에는 산업시설(출판사 및 인쇄소)만이 들어설 수 있는바, 서점(현재는 자사 도서 전시 판매만 가능), 지업사주차 개실이 불가능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산업단지 관련법의 개정이나 개발계획 및 관리계획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현재의 산업단지 관련법은 준수되어야 한다
- ② 문화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5. 출판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시설용지내의 업종확대가 가능하다면, 무슨 업종이 허용되는 게 바람직한지 희망업종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복수 기재 가능).

희망업종 : ()

6. 제도적으로 출판도시의 자율적 관리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 ① 입주업체의 비용 부담이 없다면 관리권을 양도받아 자율적으로 관리
- ② 입주업체의 비용 부담이 있더라도 관리권을 양도받아 자율적으로 관리
- ③ 현재처럼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관리
- ④ 모르겠다

7. 출판도시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책방거리 조성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취지에 공감해 향후 귀사의 사옥내에 책방을 개설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 ① 있다 ② 없다 ③ 현재는 없으나 상황에 따라 가능

5-1. 판매할 의향이 있다면, 타사 출판물을 판매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6. 타사 출판물을 판매한다고 가정했을 때 가장 선호하는 운영방안 선택 및 이유를 작성해주시시오.

① 자사 건물에서 타사 책 판매

(이유:)

② 특정 존을 (zone) 지정해 그 안에 있는 서점에서만 타사 책 판매

(이유:)

③ 유희 건물을 용도 변경하여 한 건물에 입주해 개별 책방 운영

(이유:)

7. 출판도시에 다수의 책방을 유치하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긍정적 ② 긍정적 ③ 보통 ④ 부정적 ⑤ 매우 부정적

8. 책방의 개설이 가능할 경우 운영(임대 포함)할 의지가 있으신지요?

① 있다 ② 현재는 없으나 긍정적으로 검토 ③ 없다

9. 출판도시의 서점 내 일부공간에 편의시설을 허용하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긍정적 ② 긍정적 ③ 보통 ④ 부정적 ⑤ 매우 부정적

10. 편의시설을 개설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출판도시 내에 휴게시설 등 생활편의시설이 부족해서
- ② 서점 이용자들에게 쉼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 ③ 다양한 업종이 입점하는 것이 도시 활성화에 도움이 되므로
- ④ 영업수익 증대에 필요하기 때문

11. 북카페를 허용한다면 허용 기준은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책방 및 문화시설 면적의 1/3 이내
- ② 책방 및 문화시설 면적의 1/2 이내
- ③ 제한 없이 허용

12. 책방거리 조성사업 및 책방 운영과 관련한 의견 혹은 정책대안이 있으면 자유롭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